

# 미륵당 월탄 대종사 선양학술대회



일 시 : 불기 2569년 (2025) 8월 21일 (목) 오후 1시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금오미륵월탄문도회,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 관 : 불교신문, 한국불교학회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국대 석림동문회,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진흥원, 국회정각회,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Since 1973

사단  
법인 **한국불교학회**



# 미룡당 월탄대종사 선양 학술대회

시간	식순 및 발표	
	개회식 및 추모사	사회: 무진스님(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13:00 ~ 13:20	개회사: 자현스님(한국불교학회 회장) 인사: 성운대종사(금오미룡월탄문도회 문장)	
13:20 ~ 14:20 (60분)	월탄대종사 행장 소개: 도공스님(법주사 회주) 추모사: 진우스님(총무원장), 자광대종사(원로회의 의장), 설정대종사(전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지명대종사(법주사 조실), 원허스님(불교신문 사장), 돈관스님(동국대 이사장, 석림동문회장), 주호영(국회 부의장)	
14:20 ~ 14:40 (20분)	휴 식	
	제1부 학술대회	좌장: 종호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4:40 ~ 14:50 (10분)	기조강연 보광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 원로의원)	
14:50 ~ 15:20 (30분)	제1발표 「월탄대종사의 수행과 사상」 발표: 김방룡(충남대 교수) 논평: 자현스님(중앙승가대 교수)	
15:20 ~ 15:50 (30분)	제2발표 「월탄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 발표: 김광식(전 동국대 특임교수) 논평: 한상길(동국대 교수)	
15:50 ~ 16:20 (30분)	제3발표 「월탄대종사의 정화운동과 종단개혁」 발표: 김경집(동국대 교수) 논평: 차차석(동방문화대학원 교수)	
16:20 ~ 16:40 (20분)	휴 식	
	제2부 학술대회	좌장: 종호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6:40 ~ 17:10 (30분)	제4발표 「월탄대종사의 불사와 전법」 발표: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논평: 선지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17:10 ~ 17:40 (30분)	제5발표 「월탄대종사의 교육관」 발표: 이성수(불교신문 편집국장) 논평: 조기룡(동국대 교수)	
	폐회식	
17:40 ~ 18:00	총평: 성운대종사 금오미룡월탄문도회 문장(동국대 석좌교수) 폐회사: 자현스님(한국불교학회 회장)	



# 목 차

개회사 .....	7
자현스님((사)한국불교학회장, 중앙승가대 교수)	
인사 .....	9
성운대종사(금오미륵월탄문도회 문장)	
월탄대종사 행장 .....	11
도공스님(법주사 회주)	
추모사 ① .....	15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추모사 ② .....	17
자광대종사(원로회의 의장)	
추모사 ③ .....	19
설정대종사(전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추모사 ④ .....	21
지명대종사(법주사 조실)	
추모사 ⑤ .....	23
원허스님(불교신문 사장)	
추모사 ⑥ .....	25
돈관스님(동국대 이사장, 석림동문회장)	
추모사 ⑦ .....	27
주호영(국회 부의장)	
기조강연 .....	29
보광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 · 원로의원)	
제1발표 월탄대종사의 수행과 사상 .....	33
김방룡(충남대 교수)	
논평 .....	63
자현스님(중앙승가대 교수)	

<b>제2발표</b>	월탄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 .....	65
	김광식(전 동국대 특임교수)	
	논평 .....	91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b>제3발표</b>	월탄대종사의 정화운동과 종단개혁 .....	95
	김경집(동국대 연구교수)	
	논평 .....	121
	차차석(동방문화대학원 대석좌교수)	
<b>제4발표</b>	월탄대종사의 불사와 전법 .....	125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논평 .....	147
	선지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b>제5발표</b>	월탄대종사의 교육관 .....	151
	이성수(불교신문 편집국장)	
	논평 .....	177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b>총평</b>		
	성운대종사(금오미룡월탄문도회 문장 · 동국대 석좌교수)	

## 개회사

한국불교 역사에는 두 차례의 참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원 간섭기 때로 당시 문란한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고려불교는 대 처승이 주류를 이루는 부패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선불교를 중심으로 정화하는 고승이 여말삼사로 불리는 태고보우·나옹혜근·백운경한이십니다. 현재 조계종의 중흥조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교 내부의 정화 과정에서 고려불교는 성리학에 주도권을 빼기고, 조선이라는 송유억불의 엄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문제 있는 불교에 대한 민중의 수수방관이 송유억불을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로 이때는 메이지유신 시기 붕괴한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조선 승려도 대처와 육식이 일반화되던 시절입니다. 만해 한용운 같은 분조차, 조선 총독 등에게 3차례나 조선 승려 전체가 대처하게 해달라고 건백서를 보낸던 시기입니다. 이런 황망한 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청정성은 한암중원 대선사 등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전개된 것이 광복 후의 정화 운동입니다. 이렇게 재정비되는 것이 1964년의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해방 후의 정화 노력은 한국불교를 재건하는 여말삼사의 정화에 비견되는 불교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한국불교 중흥에 가장 크고 높은 깃발을 드신 어른이 바로 미륵당 원탄 대종사이십니다. 큰스님께서서는 부처님께서 천명하신 올바른 정신을 바로 세우신 불법 중흥의 참다운 대장부이십니다.

이제 원적 3주기를 맞아 많은 문도와 종단의 큰 어른들께서 두루 모여, 큰스님의 자취를 빛으로 장엄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한국불교학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모신 분들은 기려야 할 온당함을 기리고, 드러내야 할 떳떳함을 바로 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

는 올바른 미풍美風이 아닌가 합니다.

보살마하살은 수적垂迹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종사께서는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처님께 부촉 받은 시대보살의 수적이 아닌가 합니다. 도선율사는 『속고승전』 「자장전」에서 신라불교의 기틀을 확립한 자장율사를 ‘호법보살’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또 중국불교의 첫 절인 낙양의 백마사에는 불교가 전래되 모든 미망의 구름이 걷혔음을 기념하는 제운탑濟雲塔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혼탁을 걷어낸 대종사야말로 현대의 호법보살이며, 제운보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불기2569년(2025) 8월 21일

(사)한국불교학회장 자현 합장

# 인사

오늘 학술대회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 수덕사 전 방장 설정스님, 법주사 조실 지명스님, 원로의원 동명스님,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원로의원 보광스님, 금오문도 운영위원장 무상스님, 불교신문 사장 원허스님, 동국대 석림회장(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 법주사 회주 도공 스님, 주지 정덕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스님, 한국불교학회 회장 자현스님,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종호스님과 발표를 해주시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김경집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논평을 맡아주신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 한상길 동국대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의 선지스님, 조기룡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미룡당 월탄대종사께서 입적하신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생을 위해 하실 일이 많으신데 홀연히 떠나신 은사스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립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평소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선객(禪客)이시면서도 미륵신앙을 중시하셨고, 선과 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안목으로 후학들을 이끄셨습니다. 법주사, 용화사, 대흥사 등 미륵도량을 중심으로 용화세계를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대원력을 실천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금생에 다 이루지 못한 아쉬운 원력이 있으시지만, 다음 생에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문도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남기신 가르침으로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고 대종사의 가르침과 원력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은사 스님을 추모하는 자리이며, 월탄대종사의 사상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은사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밝혀가겠습니다. 이사(理事)를 겸비한 수행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서원합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불교신문과 한국불교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은사스님의 자비로운 원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9년(2025) 8월 21일

금오미룡월탄문도회 문장 성운 합장

## 월탄대중사 행장

사부대중 여러분,  
제5교구본사 법주사 회주 도공입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장이시며, 평생을 청정승가 구현과 중생구제에 헌신하신 미룡당 월탄대중사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월탄대중사는 1936년 9월 15일 전라북도 완주에서 탄생하여 속명 '유찬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법호는 '미(彌)자' '용(龍)자', 법명은 '월(月)자' '탄(誕)'이십니다.

전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신 큰스님은 심정이 강직하고 정의로우셨으며, 학업과 더불어 운동에도 열심이셨습니다.

그러나 큰스님께서서는 구례 화엄사에서 금오대선사를 친견하고 법문을 들으시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1957년 9월 15일 구례 화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시고, 1963년 7월 15일 합천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받으셨습니다.

해인사 강원에서 수학하시던 중 대한민국과 한국불교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친일불교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청정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정화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대법원이 대처승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큰스님께서서는 1960년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 강원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그해 11월 24일, 불교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정법수호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 여섯 비구와 함께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할복을 감행하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불교정화운동의 절박함과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조계종단 설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청담 큰스님을 비롯한 정화운동 지도부는 큰스님의 순교정신과 위법망구의 정신에 감동하여 종단의 위해 큰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월탄 큰스님은 전통교학은 물론 신학문을 겸비하기 위해 조계종 종비생 1기로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치시고, 대학원에서는 서산대사의 사상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종단의 삼대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제양성을 위한 종비생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백상원 기숙사 사감, 동국대 승가총동문회장, 석림동문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수행 정진과 더불어 종단의 다양한 소임을 맡으며,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서울 개운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사 주지, 불교신문 사장, 전등사 주지, 용화사주지 속리산 법주사 주지 등 주요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4, 5, 6, 8, 10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시며 종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종무를 수행하면서도 큰스님의 관심은 항상 선(禪)수행에 있으셨습니다. 종무와 가람수호를 하시면서도 정진을 거르지 않으셨으며, 화두 참구에 몰두하시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조실 월산 큰스님께서서는 인가를 내리시고 ‘미룡(彌龍)’이라는 법호를 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마음이 오욕에 꼬달리지 않고 육진에 오염되지 않아 무명에 현혹되지 않으면 미륵세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세에서 용화세계를 구현하려는 원력으로 큰 불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주지 시절, 높이 33미터의 시멘트 미륵불상을 1990년 4월 12일 청동대불로 개금하여 조성하셨습니다. 또한 청주 용화사를 중부권을 대표하는 포교와 신행도량으로, 단양 대흥사를 금오대선사와 월산대선사의 수행가풍을 계승하는 미륵도량으로 장엄하셨습니다.

2010년 조계종 원로의원, 2017년 조계종 법계위원장에 추대되었으며,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셨습니다. 70세가 넘는 노구에도 정혜사 선원을 비롯하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대승사, 월정사, 법주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시는 열정을 보이셨으며, 수좌들은 재가불자와 국민들에게 ‘인천(人天)의 사표(師表)’가 되셨습니다.

대종사는 불기 2566년(2022년) 8월 4일, 단양 대흥사 정화당에서 “풀어라 풀어라, 너와 나를 풀어라, 본래 자리 향기나니, 미륵광명 귀를 막네”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법랍 66년, 세수 87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월탄 대종사님의 일생은 불교정화의 열정, 수행정진의 의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대법원 할복으로 보여주신 위법망구의 정신은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현세 정토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모습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됩니다.

이러한 큰스님의 가르침과 수행가풍을 계승하여, 우리 모두 이 자리가 곧 용화세계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21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 회주 도공 합장 삼배



## 추모사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교정화운동의 산증인이며, 평생을 수행과 중생제도에 헌신하신 미륵당 월탄대종사의 3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대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월탄대종사께서는 금오대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신 이래 68년간 한결같이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대처승 편향 판결에 항의하여 여섯 비구와 함께 할복하신 일은 한국불교 정화운동사에 길이 남을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애종심과 희생정신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 청정승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초석이 되었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뵈고” 화두 하나로 평생을 정진하시며, 납자(衲子)들은 물론 불자와 국민에게 참선 수행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간화선에 뿌리를 둔 ‘선명상’이 인류에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조성, 청주 용화사 중창, 단양 대흥사 창건 등 미륵 신앙의 성지를 일구어내신 대종사의 보살행은 단순한 불사가 아니라 중생구제의 대원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특히 법주사 주지 재임 시절, 33미터 높이의 청동미륵 대불을 조성하신 것은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을 대작불사였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용화세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미륵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하면 바로 이곳이 미륵정토임을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 속에서의 보살행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을 비롯한 미륵문도회의 상좌와 손상좌, 증손상좌들이 대종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오대선사 문중의 모든 스님도 금오대선사와 월탄대종사로 이어지는 청정수행의 가풍을 계승하여 한국 불교 발전에 매진하고 있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대중 스님과 신도들도 진정한 미륵용화세계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정진

하고 있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법계위원장,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역임 하시며 종단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선원(禪院)에서의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며 눈푸른 납자(衲子)의 기상을 잃지 않고 후학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대종사의 이러한 헌신적인 수행과 교화는 사부대중은 물론 마음이 지친 세간 사람들에게 맑은 깨달음의 향기를 전하셨습니다.

“풀어라 풀어라, 너와 나를 풀어라. 본래 자리 향기나니, 미륵광명 귀를 막네”라는 열반계송을 남기시고 입적하신 지 3년이란 세월이 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대종사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불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학자 스님들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술대회가 대종사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수행자들이 대종사의 구법정신과 애종애법(愛宗愛法)의 마음을 본받아, 조계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종사께서 보여주신 위법망구의 용기는 시대를 초월한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보를 지키고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월탄대종사님!

대종사께서 뿌리신 애종심의 씨앗은 오늘날 만개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찬란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부디 도솔천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속환사바하시어 미륵부처님과 함께 이 사바세계로 다시 오시어 못다 이루신 중생제도의 대원을 성취하소서.

불기 2569(2025)년 8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합장

## 추모사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평생을 도반으로 함께 걸어온 월탄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 자리에 섰습니다.

월탄 스님과 저는 1964년 봄, 조계종 종비생 1기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불교정화의 열망을 품고, 전통 강원교육에 더하여 현대적 학문방법론을 익히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시절 동국대는 대처승들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비구 학인들은 승복 위에 교복을 겹쳐 입어야 했고, 때로는 교문 앞에서 복장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월탄 스님은 늘 당당하셨고, 정법수호의 의지를 한 순간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종비생 동기들 가운데서도 월탄 스님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해인사 강원에서 이미 대교과를 마쳤을 뿐 아니라, 불과 23세의 나이에 대법원 할복이라는 전무후무한 결단을 보이신 용맹정진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정화의 영웅’으로 우러러보았고, 스님 또한 도반은 물론 후배들을 각별히 아끼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월탄 스님이 불교정화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법이 무너지면 불교가 무너지고, 불교가 무너지면 중생이 고통 받는다”고 호소하시던 진정성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도반이었습니다. 월탄 스님이 종단의 요직을 맡으실 때마다 저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스님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1977년 석림동문회가 결성될 때, 월탄스님은 초대 회장을 맡아 종비생 출신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은혜를 종단과 중생에게 회향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은 석림동문회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월탄 대종사의 미륵신앙은 ‘실천철학’이었습니다. “미륵부처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미륵이 되어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스님은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조성과 대흥사 창건을 통해 현세정토를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연이 다하시어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께서 남기신 불교정화의 정신, 위법망구의 용기, 그리고 중생구제의 원력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청정한 승가, 올바른 정법, 그리고 중생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뜻을 이어가라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용화회상에서 다시 만나, 못다 이룬 중생구제의 대원을 함께 성취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을 되새기며 마치고자 합니다.

“출가자는 한 생각도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된다. 오직 부처님과 중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

불기 2569년(2025) 8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합장

## 추모사

오늘 이 자리에 서니, 평생의 수행도반이셨던 월탄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눈앞에 선합니다.

스님과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정진했습니다. 추운 겨울 덕숭산 정혜사 선원에서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나, 무더운 여름 황정산 대흥사 선원에서 땀을 흘리며 좌선할 때나, 늘 가까운 곳에서 서로 탁마하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엄격한 수행자이면서 따뜻한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고, 한결같이 겸손하셨으며, 종단의 어른이면서도 늘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사심 없이 앞장서 이끄셨습니다. 정화운동의 격랑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 정법을 지키셨고, 종단 개혁 과정에서도 청정 승가의 전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선방에서 함께 정진하던 시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나 하나 깨달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울립니다.

3년 전,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정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영결식 내내 대흥사에 머물며 평생을 함께한 정진도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것은 대작 불사와 업적만이 아닙니다.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보여준 삶 자체가 살아있는 법문이요 등불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스님의 원력을 되새기고,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탄 큰스님!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적멸의 낙을 누리소서.

큰스님께서 평생 서원하신 중생구제의 원력은 저희들이 이어받아 실천하겠습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21일

전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합장



## 추모사

큰스님 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선과 교로, 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고, 격려해 주시던 큰 어른이셨습니다. 늘 계실 것으로 생각되던 어른이 갑자기 떠나신 후, 속리산중이 허전해진 느낌입니다. 텅 빈 느낌입니다.

1. 큰스님은 화산처럼 뿜어내는 정열의 불길이었습니다.

소승이 옆에서 지켜본 큰 스님의 전체적인 성품은 앞 뒤 돌아보지 않는 정열이었습니다. 출가, 정화운동중의 할복, 늦은 나이의 동국대 공부, 종무행정, 선방수행, 법주사 주지와 불사 등을 돌아보면, 미지근하게 할 듯 말 듯한 일어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공부나 일이나 불사를 시작하면, 온 힘 다해 골몰하며 성취토록 하셨습니다. 법주사나 청주 용화사의 환골탈태와 같은 불사, 말년의 단양 대흥사 창전 불사가, 큰스님의 정열을 잘 나타내 줍니다.

2. 진정한 무아로 자신을 바치셨던 대도인이셨습니다.

큰스님은 참으로 순수하신 분입니다. 스승과 사형을 무조건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금오노스님을 업고 다니며, 머리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월산 사형님 따라 공부하며 전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깨달음의 경계를 짐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무아로 사느냐, 그 무아정신으로 불사나 보살행을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할복하고, 마지막까지 자금 없어서 구걸하다시피 불사를 행하던 큰스님의 삶, 이것이 대도인임을 확실하게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무아행, 보살행자에게, 대각자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좀 바보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자신의 안락을 완전히 버렸던 그 분, 바로 미룡당 큰스님이 이 시대 또는 미래세계에 필요한 대도인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큰스님의 두 제자, 인덕원 복지법인 성운 큰스님과 연꽃마을 복지법인 고 각현 큰스님이, 한국불교 최대의 복지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성운 큰스님은 스님들 노후복지 요양병원을 종단에 기증까지 하셨습니다.

3. 이상세계로의 길을 닦은 준비자이셨습니다.

큰스님은 도솔천 정토와 미륵하생의 세계를 굳게 믿으면서도, 여기에, 간화선 공부도 겸해서 마음을 깨쳐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0선을 실천하는 미륵 용화세상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하강하실 부처님상과 부처님 도량을 우선 잘 꾸며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명까지 단축시켜 가면서, 법주사 도량, 청동 미륵대불, 용화사 중창, 개천의 미륵 부처님 실내로 모시기, 미륵대흥사 창건, 그리고 미륵 석불 모시기 불사를 행하셨던 겁니다.

도달할 성취의 규모나 시기에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시작과 완성, 고해와 정토, 하나와 무수함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것이 수행이요 보살행이요 묘각 대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4. 효상좌 아래의 효상좌와 큰스님 열반 3주기 추모 학술대회 참여 어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룡당 큰스님의 보살도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거한 추모 학술대회까지 계최해 주시는 효상좌 성운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추모 학술대회를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 큰스님들, 학자님들, 후원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5. 속환사바를 빕니다.

오늘 추모 행사로, 큰스님의 삶과 사상과 공덕을 되새기면서, 어서 큰 빛으로, 미륵불로 환생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미륵존불

불기 2569년(2025) 8월 21일

속리산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합장

## 추모사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거목이며, 평생 수행과 불법 홍보에 헌신한 미룡당 월탄 대종사의 3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대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께서 1960년 11월 대법원에서 결행한 ‘할복’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으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상징으로 교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뵈고’ 화두를 참구하시며 수행한 대종사께서는 정혜사 선원을 비롯하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법주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셨습니다. 세수 70 중반을 넘어서도 이어진 ‘눈 푸른 납자의 기상’은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않으신 모습은 진정한 선사(禪師)의 표상이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보살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용화세계”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은 선방의 중요한 정진과 저잣거리의 중생 구제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신 이사무애(理事無礙)의 경지였습니다. “진정한 불사는 중생의 마음에 부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신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종단 발전에 대한 대종사의 기여는 실로 지대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과 총무원 주요 소임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기여하시고, 법계위원장과 원로위원으로 종단의 기틀을 놓으셨습니다.

또한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하시며, “불교 언론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음(法音)의 전달자”임을 강조하며 언론을 통한 문화창달과 불교 발전을 염원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니다. 선사상과 수행 체계, 그리고 종단 발전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불사입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한 문도대표 성운 스님을 비롯한 월탄대종사 문도들과 5교구본사 사부대중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 참선 수행을 근간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을 놓으신 월탄대종사님!

부디 극락정토에서 편안히 쉬시다 속환사바하시어 못다 이루신 중생제도의 대원을 성취하소서.

불기 2569(2025)년 8월 21일

불교신문 사장 원허 합장

## 추모사

한국불교 평화운동의 주역이며, 후학 양성에 평생을 헌신하신 미룡당 월탄 대종사의 3주기를 추모하는 학술대회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종사의 숭고한 공적과 인연을 회고하는 마음이 깊게 들어서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자 석림동문회장으로서 공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1960년대 평화운동의 이후, 종단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위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초로 종비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월탄 대종사께서는 영예로운 종비생 1기로 선발되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한 탁월함으로 동국 역사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불교의 앞날을 위한 동국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실천하고, 역사의 현장에서마다 후학들에게 엄중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1976년 『석림』 10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불교는 선사들의 피눈물 나는 역경으로 법맥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순교정신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땅에 법음(法音)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시며 석림인으로 가져야 할 사명과 각오를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대종사께서는 ‘석림인은 불법(佛法)이 최상(最上)의 가르침이라 굳게 믿어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탐욕과 이기주의에 물든 고통의 사바세계를 정화(淨化)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라 하셨습니다.

수행자로서 동국인으로서 ‘생명조차 다 받쳐서라도 법등(法燈)을 지켜 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는 현재의 후학들에게도 영원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정신이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불교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에도 든든한 힘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승한 원력들이 추모의 마음과 조화로워, 오늘 학술대회가 대종사의 수행과 교육, 그리고 인재 양성의 뜻을 되새기는 유익하고도 감사한 자리인 듯 합니다. 이러한 인연공덕을 바탕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대

종사님의 구법(求法)과 전법(傳法)정신을 본받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 모두는 대종사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불교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스님께서 밝혀주신 법등은 여전히 밝습니다. 극락정토에서 계시더라도 못다 이루신 교육 불사를 언제나처럼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스님께서 보여주신 숭선수범의 공덕들이 한국불교와 동국의 앞날에 환한 빛으로 비춰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9(2025)년 8월 21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돈관 합장

## 추모사

월탄 대종사의 3주기를 맞아 열리는 뜻깊고 귀한 학술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상의 이치를 보여주듯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월탄대종사께서 보여주신 깊은 가르침과 자비로운 모습은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월탄대종사는 저에게 있어 인생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30여 년 전 광주보병학교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젊은 시절, 스님께 수계를 받으며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법명이 자우(慈宇)이며,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큰스님께서 강조하신 중도(中道)의 정신은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며,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큰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분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월탄 대종사께서 평생 추구하신 화쟁(和諍)의 지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포용하여 더 큰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월탄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이 학문적으로 정리되고, 후학들에게 전승되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불교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스님의 가르침이 어떤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을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탄대종사께서는 항상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교단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을 본받아 각자의 자리

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탄 대종사의 원력이 이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21일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기조강연]

## 미룡당 월탄의 대종사 수행과 신앙

보광대종사  
(동국대 명예교수·원로의원)

- I. 수행관
- II. 신앙관
- III. 종단관
- IV. 사회관

미룡당 월탄(1936-2022) 대종사는 현대 한국불교의 격동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스님의 삶 자체가 한국불교의 종단사이기도 하다.

대종사의 삶을 정리하면, 신앙은 항상 미륵정토로 향해 있으면서, 수행은 선 수행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 육신은 청정비구종단의 발전과 혁신을 지향하던 개혁자였고, 사회적으로 한없는 자비실천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노력한 보살이었다.

소승은 큰스님의 입적 3주기를 맞아 “미룡당 월탄 대종사의 수행과 신앙”이라는 주제의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큰스님을 다시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종사의 광대한 서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한 끝에 대종사의 삶을 수행관, 신앙관, 종단관, 사회관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세미나의 각 주제발표에서 심

도있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스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화엄사에서 금오(金烏)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시심마(是甚麼) 화두를 받았다. 영축총림선원, 해인총림선원, 조계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봉암사 선원, 법주사, 대승사, 화엄사, 무주암, 대흥사 선원 등에서 45안거 동안 화두참구수행으로 정진하였다. 성림월산(聖林月山) 스님에게 깨달음의 경계를 인가 받고, 선수행자 지도에 나섰다. 단양 대흥사의 폐사지를 매입하여 미륵대흥사(彌勒大興寺)를 중창하면서 출가 은사이신 금오 스님과 깨달음을 인가 해준 사형 성림월산 스님의 법호를 따서 금오성림선원(金烏聖林禪院)을 건립하여 입적 때까지 선수행자들을 지도하였다.

한편 교학으로는 해인사 강원을 수료하면서 전통적인 교학을 수학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2년 통합종단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3대 목표를 내세웠다. 즉 역경, 포교, 도제양성을 불교정화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도제양성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내에 불교학과와 인도철학과에 종비생을 선발하여 현대적인 불교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당시의 종단 재정으로는 큰 부담이었지만, 종단은 미래 젊은 승려들을 양성하는데 전력을 다 하였다. 1964년 제1기 종비생으로 월탄 스님은 입학하여 화계사 백상원에서 수학하였다. 만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학생들과 탁마하면서 학부와 대학원까지 수료하였다. 특히 스님은 종비1기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고, 석림동문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필자도 스님을 모시고 종단개혁도 주창하였으며, 종단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토론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행면에서 전통강원과 현대학문인 동국대학교에서 수학 이후에도 선원에서 선수행에 전력하였다. 이러한 수행이 평생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저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스님의 신앙관은 미륵신앙으로 일관하였다. 월산 스님은 월탄 스님의 깨달음을 인가하면서 미룡(彌龍)이라는 당호를 내렸다고 한다. 스님은 이 호와 같이 미륵용화(彌勒龍華) 세계를 믿고 실천하였다. 법주사 주지를 하면서 세멘트로 된 미륵대불을 청동으로 교체 조성하였고, 청주 용화사 주지로 재임시에는 용

화보전을 건립하여 무심천에 방치되어 있던 미륵삼존상을 모셔서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양의 폐사지였던 대흥사를 미륵대흥사로 중창하면서 미륵대불을 봉안하여 미륵대흥사로 명명하였다. 이곳에 “용화정도를 향하여”라는 비석과 “미륵용화정도와 십선도계법”의 비석을 세워 길이 미륵용화세계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이 비문에 의하면,

“이 운동에는 미륵십선도를 수행체험함으로써 이땅은 물론 시방세계 전체를 용화정도로 열리는 바탕이 되도록함이니 어찌 한 사람이 나 한 고을이나 한 나라만으로 이것을 이룩하겠는가  
우주와 온 세상 전체가 마침내 하나의 법인 즉 이법이 미치지않는데 없는 미륵부처님의 회상에서 비로소 그 장엄한 광명 가득하여지이다.”

라는 발원을 하였다. 스님이 전개한 미륵십선도는 이 땅을 용화정도로 만들어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발원하고 있다. 따라서 스님의 신앙은 미륵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종단관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한국불교를 일본불교화 하기 위해 비구 스님들에게 취처를 허용했고, 그들이 31본사 주지 등 주요사찰의 주지를 맡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한국불교는 대처교단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일제잔제청산 차원에서 한국고유 정통종단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이 대처비구정화운동이었다. 비구승들은 비구교단을 주창하였고, 대처승들은 밀려나지 않으려고 함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급기야는 법적인 분쟁으로 접어들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비구교단이 불리한 분위기에 접어들자 순교자적인 결단이 필요하였다. 1960년 11월 대법원에서 대처측에 편향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짙어지자 비구측은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때 대법원장실로 월탄 스님을 비롯한 젊은

비구 6명이 불법에는 대처승이 없다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활복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민에게 비구승의 참뜻을 전할 수 있었으며, 불교정화운동은 전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비구측이 대법원 최종 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월탄 스님의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하게 된 것을 볼 때 이차돈의 순교에 버금가는 위법망구(爲法忘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관은 미륵정토를 꿈꾸면서 사회정화를 미륵십선계로 실천할 것을 지향하였다. 스님의 미륵정토의 실천과 자비사상은 제자들이 이어받아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여 한국불교에서 최대의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종단에 “아미타요양병원”을 기증하여 스님들이 노후에도 걱정없이 정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성운 스님은 복지의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도 겸하여 아쇼카대왕의 복지사상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200여명의 석,박사를 지도하여 이들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복지기관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또한 각현 스님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설립하여 전국에 수많은 요양병원과 복지기관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손상좌들이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자들의 활동도 모두 월탄 스님의 용화정토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월탄 큰스님의 업적을 정리해 보았다. 평생을 미륵행자로 살아오신 행적을 몇 마디의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큰스님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 자세한 것은 각 주제별로 심도있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발표]

## 월탄대종사의 수행과 사상

김방룡  
(충남대 교수)

- I. 머리말
- II. 미룡선사 월탄의 삶
- III. 덕숭선맥의 계승과 선풍진작
- IV. 미륵신앙 운동의 전개
- V. 맺음말

### I. 머리말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공존한다. 살아 있는 자에게 주검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같지만, 호흡이 멈추는 순간 육체는 주검으로 바뀐다. 법성계의 ‘생사열반상공화(生死涅槃常共和)’란 말을 수없이 되뇌어도 ‘삶’과 ‘죽음’은 ‘아(我)’와 ‘비아(非我)’를 나누는 경계이자 벽이다. 이 단단한 벽을 허무는데에서 존재는 비약한다.

오늘 학술대회는 미룡당 월탄대종사(1936~2022)의 열반 3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스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땅에 왔다 가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도대체 왜 스님은 이 땅에 왔다 가셨을까?’ 구름 따라 물 따라 떠도는 운수 행각 중 잠시 머물다 가신 것일까, 아니면 꼭 해야만 할 사명을 가지고서 다녀가신

것일까? 알 수가 없다. 참으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선학(禪學)’이란 술래가 숨은 아이를 찾는 술래잡기와도 같다. 선사(禪師)란 자기 모습을 감추는 데 선수이고, 술래가 되어 그 진면목을 찾아내는 것이 선학자의 임무이다. 술래잡기는 술래가 숨은 아이를 찾아 호명하더라도 호명된 아이가 술래 집에 먼저 손을 짚게 되면 살게 되는 데에서 긴장과 묘미가 있다. 선학도 마찬가지로이다. 선학자가 선사의 모습을 찾아 언어의 그물에 가두려는 순간 선사는 그 그물을 뚫고 다라나 버린다. 바로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술래잡기가 시작된다.

달아난 선사를 찾는 비법(秘法)이 『금강경』에 나온다. 그것은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이다. 제상(諸相)을 비상(非相)으로 볼 수 있어야만 진실이 보인다. 즉 보이는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보이는 모습이 환(幻)일 수도 있고, 진(眞)일 수도 있다. 환이면서 동시에 진일 수도 있고, 환도 아니고 진도 아닐 수도 있다. 환의 세계에 있으면 환으로 보이고, 진의 세계에 있으면 진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비법을 알려줘도 선사의 진면목에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다.

『사산비명』을 찬한 최치원은 『낭혜화상비』에서 선사를 ‘심학자(心學者 : 낭혜 무염)’로 유학자를 ‘구학자(口學者 : 최치원)’라 명명하고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심학자는 덕을 세우고 구학자는 말을 남기는 것이므로 그 덕도 말에 의지하고서야 전해질 수 있으며, 이 말은 또한 덕에 의지하여야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전해질 수 있어야 마음을 멀리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없어지지 않아야 말도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니, 어찌 다시 감히 실속 없는 글이라고 굳이 사양하기만 하겠는가!”<sup>1)</sup>

1) 崔致遠撰, 「藍浦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교감 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가산문고, 1994, 155-156. “心學者立德 口學者立言 則彼德也或憑言而可稱 是言也或倚德而不朽. 可稱則心能遠示乎來者 不朽則口亦無慙乎昔人. 爲可爲於可爲之時 復焉敢膠讓乎.”

‘미룡당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라는 대제목을 걸고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가 개최하게 되었다. ‘제선봉행 제악막작’이란 말이 있다. 드러난 선은 더욱 복돋우고 드러나지 않은 선은 나오도록 하며, 드러난 악은 제거하거나 약하게 하고 드러나지 않은 악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불자들의 마음 다스리는 법이다. 이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선양’이라는 의미 또한 큰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미 드러난 점은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드러나도록 힘쓰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합 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계가 승속을 막론하고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비난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가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평화해야 할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서 시작된다. ‘정화’와 ‘마음’과 ‘미륵’이 둘이 아닌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가 바로 용화세계이고 복지사회이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자에게 맡겨진 주제는 ‘월탄 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이다. 스님의 삶 전체가 수행이자 사상이라 말할 수 있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선 수행과 미륵사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선사로서의 스님의 생애와 선 수행을 통한 구도의 길 그리고 스님이 구현하고자 한 미륵용화세계에 한정하고자 한다.<sup>2)</sup>

## II. 미룡선사 월탄의 삶

양나라 승려 혜교(慧皎, 497~554)의 『고승전』을 월탄 스님이 편역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sup>3)</sup> 그런데 스님은 2003년에 자유문고에서 이 책을 출간하였다. 표지에는 ‘열반은, 있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2) 월탄 대종사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도움을 주신 성운 스님, 이성수 기자, 각연 스님, 각운 스님, 성견 스님들께 감사드린다.

3) 혜皎, 유월탄 편역, 『高僧傳』(개정판), 자유문고, 2003. : 이 책은 『고승전』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고 주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지만 당시 『고승전』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데, 당시 스님이 혜교의 『고승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남아 있는 최초의 고승전으로 이후 고승전과 구별하기 위해 ‘양고승전’으로 불린다. 전체 1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14권에 서문에 해당하는 혜교의 ‘서록(序錄)’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혜교는 역대 고승에 대한 기준을 ‘역경(譯經), 의해(義解), 신이(神異), 습선(習禪), 명률(明律), 유신(遺身: 亡身), 송경(誦經), 흥복(興福), 경사(經師), 창도(唱導)’ 등 열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이후 고승전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도 고승을 판별하는 지남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변시인(未辯時人) 사동후의(事同後議)’라는 말이 보인다. 이는 “요즈음 시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할 것 같아서이다.”라는 뜻이다. 분명 스님은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 혜교는 이 책의 이름을 이전에 유행하던 ‘명승전(名僧傳)’ 대신에 ‘고승전(高僧傳)’이라 정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 시대에 지은 전기들은 대부분 명승(名僧)이라 하였다. 그러나 ‘명(名)’이라는 것은 본래 실상의 손님일 뿐이다. 만약 실질적으로 행하더라도 광채를 숨기면, 경지는 높아도[高] 이름난[名] 것은 아니다. 공덕이 적어도 시대에 어울리면, 이름은 나도 경지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름만 알려지고 경지가 높지 않으면, 본래 여기에 적지 않는다. 경지가 높으면서 이름나지 않았으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싣는다. 그런 까닭에 ‘명(名)’이란 소리를 지우고, 대신 ‘고(高)’란 글자로서 대신한다.<sup>4)</sup>

‘명승’과 ‘고승’을 구분하고자 한 혜교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위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기왕에 스님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한 마당에는 후대의 사람들이 보아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스님의 행적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 보다는 경지가 높은 것을 가려내어 기록하고 전해야 한다.

4) [梁]慧皎撰, 『高僧傳』, 高麗藏 권 32, 902b. “自前代所撰 多曰名僧. 然名者 本實之賓也. 若實行潛光 則高而不名 寡德適時 則名而不高. 名而不高 本非所紀 高而不名 則備今錄. 故省名音 代以高字.”

스님은 1936년 9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332번지 부친 유재옥(柳在玉)과 모친 이복순(李福順) 사이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유찬수(柳讚秀)이며, 법명은 월탄(月誕) 법호는 미룡(彌龍)이다. 1957년 4월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1960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2022년 (음력 7월 7일) 미륵대흥사 열반당에서 “풀어라 풀어라, 너와 나를 풀어라, 본래 자리 향기나니, 미륵광명 귀를 막네”라는 임종계를 남기고서, 법랍 67세 세수 87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 이후 격변의 세월 87년간을 살았던 스님의 한평생 행적을 여기에서 다 밝힐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할 필요도 없다. 스님의 법어집과 구체적인 연보는 문도회 측에서 자료수집과 고증 및 논의를 거쳐 추후 발간될 것이라 생각한다. 87년의 세월을 살다 간 스님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시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입장에 따라 성별과 승속에 따라서 스님에 대한 생각과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본 발표에서는 ‘미룡선사 월탄’이라 호칭하여, 선사로서의 스님의 삶을 조망하고자 한다.

‘선사(禪師)’로서의 삶은 단순하다. 그것을 요약하면 ‘깨침의 과정’과 ‘제접 및 교화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삶의 지향점이 있는가?’하는 것과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주시하면 그 사람이 보인다. 물론 ‘선사인가 아닌가’하는 것이 승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스님의 호칭을 ‘선사’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스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만약 스님이 한평생 선사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러한 자취와 향기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사들의 생애를 도식화할 수 있다면 ‘발심→구도→깨침→인가→제접·교화’ 등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추후 문도들에 의해 스님에 관한 법어집이 만들어지고 또 사학자들에 의해 스님의 생

5) 필자는 「鏡虛惺牛의 禪사상과 불교사적 위상」(『동서철학연구』 72, 한국동서철학회, 2014, 221-232.)에서 간화선사로서 경허의 생애를 ‘발심→화두결택→화두참구→깨침→인가→중생교화’의 과정으로 나누어 논구한 바 있다.

애가 검증된 이후에 그에 근거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스님의 삶에서 주목되는 네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스님의 발심에 대한 내용이다. 스님의 출가와 발심에 대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스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는 구례 화엄사에서 월국(月國) 스님의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1957년 스님은 당시 화엄사에 머물렀던 금오 태전(金烏太田, 1896~1968)의 하안거 해제법문을 통하여 발심하였다고 한다. 그때의 심정을 스님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호랑이처럼 무섭고 엄격한 금오대선사 문하에서 정진하던 1957년 하안거 해제 법회에서 스승의 설법을 듣고 출가 사문의 원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금오대선사는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산송장이다. 자기를 만드는 마음을 모르고 몸뚱이를 자기라고 알고 살고 있다”면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마음이 우주 만법의 근원임을 설하였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일, 참선 수행의 수승함을 전해 듣고 화두를 참구하여 대장부 반열에 오르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sup>6)</sup>

스님이 은사 금오선사로부터 받은 화두는 ‘이뵈고’였지만, 금오선사의 ‘산송장’이란 말은 스님의 한평생 삶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한평생 선 수행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탐비문에는 “스님은 ‘잠시 좌선하는 것이 칠보탑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공덕이 더 수승하다’는 문수보살 계송을 받들어 영축총림선원·해인총림선원·조계총림선원·덕숭총림선원·봉암사태고선원·상원사청량선원·법주사총지선원·대승사대승선원·화엄사 금정암·지리산상무주암·미륵대흥사금성선원 등 20여 선원에서 45안거 기간 시시심마(是甚麼) 화두로 실참정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7)</sup>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원방함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는 8월 1일에 성원스님이 제공해 준 것으로 성견스님이

6) 2022년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배포된 「미륵당 월탄대종사 행장」에 수록된 내용이다.

7) 탐비문에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가독성을 위해 한글로 바꾸어 놓았다.

직접 방함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롱당 월탄 대선사 확인된 『선원 방함록』 기록

작성자: 현산 성견(賢山成見)

연도	안거	선원	법명	소임	나이	재적사	기타
1969년	동안거	총무원	月誕贊秀	총무원 감찰국장	37	화엄사	총무원장 월산
1971년	동안거	총무원	月誕贊秀	총무원 서무국장	37	화엄사	총무원장 청담
1974년	동안거	총무원	月誕	총무원 총무부장	39	직할교구	총무원장 경산
1975년	하안거	총무원	月誕	총무원 총무부장	39	직할교구	총무원장 경산
1980년	하안거	종회	柳月誕	중앙종회 부의장	미표시	미표시	총무원장 월주
1992년	하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57	법주사	조실 월산
1992년	동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57	법주사	승적부 기록
1993년	하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58	법주사	승적부 기록
1993년	동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58	법주사	승적부 기록
1994년	하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59	법주사	승적부 기록
1994년	동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59	법주사	승적부 기록
1995년	하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60	법주사	조실 월산
1995년	동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한주	60	법주사	조실 월산
1996년	하안거	대승사 대승선원	月誕	선덕	61	법주사	조실 월산
1996년	동안거	대승사 대승선원	月誕	선덕	61	법주사	조실 월산
1997년	하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선원장	62	법주사	조실 월산
1997년	동안거	대승사 대승선원	月誕	선덕	62	법주사	월산 입적
2006년	하안거	덕송총림선 원	月誕	선현	71	화엄사	승적부엔 '선덕' 기재

40 미룡당 월탄대종사 선양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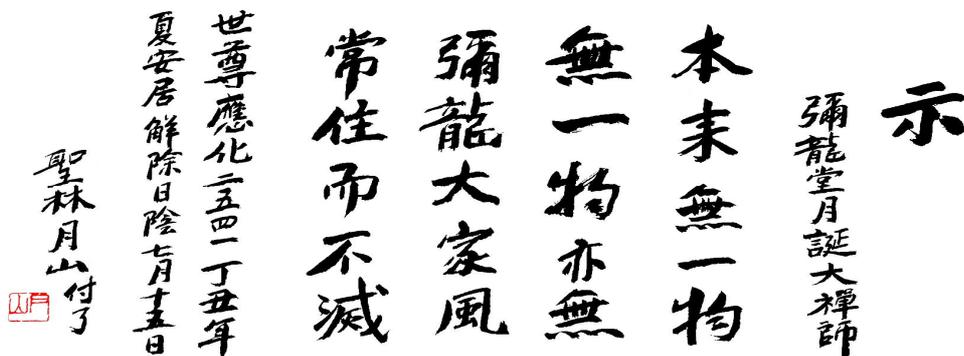
연도	안거	선원	법명	소임	나이	재적사	기타
2006년	동안거	조계총림선원	月誕	선현	71	법주사	
2007년	하안거	해인총림선원	月誕	선현	72	법주사	
2007년	동안거	영축총림선원	月誕	선현	72	법주사	
2008년	하안거	봉암사 태고선원	月誕	미표시	73	법주사	
2008년	동안거	상원사 청량선원	月誕	미표시	73	법주사	승적부엔 '선덕' 기재
2009년	하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미표시	74	법주사	승적부엔 '선덕' 기재
2009년	동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미표시	74	법주사	
2010년	하안거	대승사 대승선원	月誕	미표시	75	법주사	
2010년	동안거	법주사 총지선원	月誕	미표시	75	법주사	
2011년	하안거	대승사 대승선원	月誕	선현	76	법주사	
2014년	하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79	법주사	
2014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79	법주사	
2015년	하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0	법주사	
2015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0	법주사	
2016년	하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1	법주사	
2016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1	법주사	
2017년	하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2	법주사	
2017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2	법주사	
2018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3	법주사	
2019년	하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4	법주사	

연도	안거	선원	법명	소임	나이	재적사	기타
2019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4	법주사	
2021년	동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6	법주사	
2022년	하안거	대흥사 금성선원	月誕	회주	87	법주사	

셋째, 간화선 수행을 통하여 깨침을 인가받았다는 사실이다. 탐비문에는 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師가 상무주암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림과 멈춤에 큰 깨달음을 이룬 후 계속 참구하여 1997년 대승사선원 하안거 정진 중 조실 月山大禪師에게 心色本來空 空空亦復空 此時是何物 ○天天地地라고 둥근 모양을 허공에 그리며 읊었다. 조실 스님은 장하다 격려 認可하고 本來無一物 無一物亦無 彌龍大家風 常住而不滅 偈頌과 彌龍이라는 법호를 내렸다.<sup>8)</sup>

스님이 작성에서 올린 오도송의 문건은 찾지 못했으나, 월산선사로부터 받은 인가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8) 탐비문에 한문으로 기록된 내용의 일부를 가독성을 위해 한글로 바꾸어 놓았다.

넷째는 단양의 미륵대흥사에 ‘금성선원(金聖禪院)’을 개원하고 수좌들을 지도했다는 사실이다. 금성선원이란 금오 태전 선사와 성림 월산 선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2011년 하안거부터 열반에 든 2022년 하안거까지 회주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앞의 방함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사실에서 미룡선사 월탄의 선사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다.

### Ⅲ. 덕승선맥의 계승과 선풍진작

불조혜명(佛祖慧命)을 잇는 것이 불교의 생명줄이다. 3년 전 스님의 영결식장에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일오(一悟) 큰스님은 다음과 같은 조사(弔詞)로써 스님의 한 평생 삶을 기렸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산 송장이다’라는 금오(金烏) 대선사의 일구에 발심 출가하여 ‘오유일물(吾有一物)’의 공안으로부터 ‘천천지지(天天地地)’라는 일척안(一隻眼)에 이르러 단박에 金聖(金烏, 聖林)의 선맥(禪脈)을 계승하시니, 월탄대종사께서는 분명 이사원융(理事圓融)의 조계적통(曹溪嫡統)이십시다.

위의 조사는 ‘경허→만공→(보월)→금오→월산→미룡’으로 이어지는 근현대 덕승문중의 선맥(禪脈)을 공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선맥이 단일한 계보로 이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경허의 선법을 이은 제자로 수월·혜월·만공·한암 등이 있고, 그로부터 뻗어나간 선맥이 또 다수를 이룬다. 또 월산 성림의 선맥이 미룡 월탄으로 단일하게 전해졌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오늘의 주인공인 미룡선사 월탄를 중심으로 보면 위에서 제시한 덕승문중의 선맥을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현대 한국선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경허에서 미룡까지 이루어진 전법의 징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다. 이 문제의 선명함을 위해 경허에

서 월산까지 이어진 전법의 징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경허에서 만공 월면(滿空月面)으로의 전법이다. 이는 1982년 만공문도회에서 발간한 『만공법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어집은 진성 월담(眞惺圓潭)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만공 월면 대선사 행장(滿空月面大禪師行狀)」에 경허가 만공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전법게가 밝혀져 있다.

雲月溪山處處同    구름 달 시냇물 산 곳곳마다 같은데,  
 叟山禪子大家風    수선 선자의 대가풍이여!  
 慇懃分付無文印    은근히 무문인(無文印)을 분부하노니,  
 一段機權活眼中    한 조각 권세 기틀 활안중에 살았구나.<sup>9)</sup>

이 전법게가 전수된 곳은 천장사이며, 일시는 1904년 7월 15일이다. 경허 화상이 함경도 갑산으로 가는 길에 천장사에 들렸으며, 만공의 견처를 상세히 확인하고 이 같은 전법게를 주었다. 이때 경허는 ‘만공(滿空)’이라는 법호를 내리고 “불조혜명을 자네에게 이어가도록 부촉하노니 불망신지(不忘信之)하라”라고 만공에게 당부하고 길을 떠났다.<sup>10)</sup>

둘째, 만공에서 보월 성인(寶月性印)으로의 전법이다. 이는 『만공법어』에 수록된 ‘시보월성인(示寶月性印)’의 계송을 통해 확인된다.

色空空亦空            색은 공하고 공 또한 공하니  
 空色兩俱空            색과 공 두 가지 모두 공하도다  
 且道是何物            이 도리가 어떠한 물건인고  
 ○立冬薄寒            ○의 도리이니 입동에도 추위가 심하지 않도다<sup>11)</sup>

9) 만공문도회 편찬, 『滿空法語』, 수덕사 능인선원, 1982, 307.

10) 위의 책, 306-307.

11) 「示寶月性印」, 위의 책, 195.

위의 ‘시보월성인(示寶月性印)’은 보월의 건당식에서 내려준 전법계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1912년에서 1913년 정월 사이에 내려준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보월에서 금오 태전(金烏太田)으로의 전법이다. 금오의 전법은 보월과 만공의 두 분에게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금오가 보월로부터 전법계를 받고서 보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보월이 입적에 들어 건당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만공이 직접 금오에게 다시 전법계를 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금오의 행장에 나타나 있다. 금오의 행장은 1974년 간행된 『金烏集』에는 ‘行狀’으로 수록되어 있고<sup>12)</sup>, 2010년 다시 발간된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에는 ‘금오대선사 행장’으로 수록되었다.<sup>13)</sup> 또 ‘금오대선사 행장’은 2008년에 발간된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권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다.<sup>14)</sup>

「금오대선사 행장」에는 금오가 보월에게 인가를 받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태선(太先)은 금오의 초기 법명으로 후에 태전(太田)으로 변경하였다.

암자에 도착한 태선은 보월선사를 친견하고 이내 의기(意氣)가 상통(相通)해져 여장을 풀기도 전에 그동안 실참실구(實參實究)하여 얻은 ‘견처와 득처’를 보월선사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透徹十方界	시방세계를 투철하고 나니
無無無亦無	없고 없으며 없다는 것 또한 없구나
個個只此爾	날날이 모두 그러하기에
覓本亦無無	아무리 뿌리를 찾아봐도 없고 없을 뿐이다

그 계송을 들은 보월선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섭과 부처님이 보였던 염화미소와 다름 아니었다. 이후 태선의 송구(頌句)를 점검한 보월선사는 분명히 득처(得處)가 있음을 간파하고 곧 태선에게 인가를 내렸다. 이로써 보월선사의 사법(嗣法) 제자가 된 태선은 보월선

12) 금오 태전, 『金烏集』, 동국역경원, 1974, 184-190.

13) 금오대선사 지음,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351-395.

14) 금오선수행 연구원 편찬,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권,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27-64.

사의 회하(會下)에서 약 2년간 제자의 도리를 다하여 사장(師匠)의 검추(鉗鎚)를 받고 용맹정진 했다.<sup>15)</sup>

이렇게 인가가 이루어진 곳은 보덕사이며, 일시는 1923년 3월이었다. 그리고 이듬 해인 1924년 음력 12월 12일에 보월이 갑작스럽게 입적에 든다.

넷째, 만공에서 금오로의 전법이다. 금오가 보월로부터 인가 받았지만 당시 선종의 전통에 의하여 건당식을 통하여 전법계를 물려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인가는 보월의 스승인 만공으로부터 직접 건당식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금오대선사 행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만공선사는 태선에게 보월의 법을 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었다. 그때가 바로 보월선사가 입적한 이듬해인 1925년 2월 15일이었다. 태선은 덕숭산 정혜사에서 만공선사로부터 보월선사의 사법(嗣法)임을 증명하는 건당식을 봉행 받았다.

德崇山脈下	덕숭 산맥 아래
今付無文印	지금에 무문인(無文印)을 부치노니
寶月下桂樹	보배 달(寶月) 비록 계수에 졌으나
金鳥徹天飛 <sup>16)</sup>	금 까마귀(金鳥) 하늘에 사무쳐 나르네

이로부터 태선은 금오(金鳥)라는 법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태선으로서 는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만공선사가 태선에게 ‘문자 없는 인(無文印)을 전한다.’는 뜻은 비록 ‘지금 세상에는 없지만 보월의 법을 대신 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sup>17)</sup>

15)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앞의 책, 362-363.

16) 『滿空語錄』, 「示寶月性印」, 앞의 책, 293.

17)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앞의 책, 367-368.

다섯째, 금오에서 월산으로의 전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금오대선사행장」과 『월산선사법어집』의 ‘行狀’에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sup>18)</sup> 여기에서 월산의 ‘행장’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8년 가을 어느날 은법사(恩法師)이신 금오대선사께서 입적을 앞두고 문도들을 돌아보시며 오른 손바닥을 들어 보이시니, 이에 큰스님께서 이렇게 견처(見處)를 보이셨다.

忽覺本來事	참모습 깨다고 보니
佛祖在何處	부처와 조사 어느 곳에 있는가.
肚裏藏乾坤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 있으니
轉身獅子吼	몸을 뒤쳐 사자후를 하노라.
不立	세우지 않고
不捨	버리지 않고
不休	쉬지 않도다.

금오대선사께서 “제반사(諸般事)를 월산에게 부촉하노라”하시는 인가를 하셨다.<sup>19)</sup>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사실은 경허로부터 미륵에게까지 덕송선법이 전하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륵이 단양의 미륵대흥사에 ‘금성선원(金聖禪院)’을 개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금오-월산’의 선풍을 드날리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였다. 그렇다면 금오문중의 선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 종학연구소에서 편찬한 『金烏스님과 한국불교』<sup>20)</sup>과 2022년 월산문도회에서

18) 월산문도회 편저,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8, 364-368.

19) 위의 책, 365-366.

20) 종학연구소 편,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 이 책에는 김방룡의 「금오선사의 생애와 당시 불교계」, 윤원철의 「금오선사의 수행관」, 신성현의 「금오태전의 계율관」, 신규탁의 「금오태전 선사의 선사상」, 이덕진의 「금오 ‘간화선법’에 대한 고찰」, 종호 스님의 「금오선사의 심(心)사상 이해」, 김광식의 「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선사의 역할」, 김경집의 「금오선사의 불교정화운동과

발간한 『월산 대선사 생애와 中道禪 사상』<sup>21)</sup>에 이 분야 석학들의 논문이 실려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 IV. 미륵신앙 운동의 전개

조사선 사상에 기반한 간화선 수행과 미륵삼부경에 기반한 미륵신앙은 사상적 차이가 크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를 하나로 조화시키는 데에서 사상은 발전해왔다. 미륵선사 월탄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면 정화운동과 간화선 수행 및 미륵신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화운동’과 ‘간화선’과 ‘미륵신앙’이란 이질적인 요소들이 미륵의 사유 속에서 어떻게 통일되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미륵의 진면목에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화’란 미륵의 한평생 짚어온 운명적인 과제였으며, ‘산송장’과 ‘이뵈고’ 화두를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다. 그런데 미륵은 말년에 이르러 ‘미륵 용화사상’으로 제접·교화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살림살이였다.

용화세계를 꿈꾸는 미륵은 ‘이상적 현실주의자’와 ‘현실적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동시에 띠고 있지만 어쩌면 ‘극단적 이상주의자’였는지도 모른다. 현실에 미련을 가진 자는 결코 이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지 못한다. 이상을 포기한 자는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한다. 미륵은 용화세계와 그러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구

---

불교사적 의의), 박해당의 「금오선사의 불교인식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21) 불국사 월산문도회,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 이 책에는 성타 스님의 「월탄 큰스님의 사상과 가르침」, 종우 스님의 「월탄 큰스님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김광식의 「월탄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김광식의 「월탄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한태식(보광)의 「월탄 큰스님의 선사상(1)」, 한태식(보광)의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 사상(2)」, 석기암의 「월산 큰스님과 불국사 선원」, 김중두(혜명)의 「불국사 선원의 건립과 사상적 의미와 특징」, 한상길의 「불교사의 강학 전통」, 한상길의 「근현대 불국사의 사적」, 이재형의 「월산 큰스님과 법보신문」, 김순석의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 등 11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체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상세히 제시하는 자일수록 이기적인 속내를 감추고 있을 확률이 높다. 미륵은 말년에 법주사·용화사·미륵대흥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운동을 펼쳤으며, 그러한 와중에 열반에 들었다. 자신이 꿈꾸던 미륵 용화세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실천 방안이 분명 미륵의 가슴 속에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완성하여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미륵신앙은 신라의 백제에서 유행하였고, 통일신라에 이르러 진표율사(眞表律師)의 출현과 금산사 미륵대불 조성을 통해 나타난다.<sup>22)</sup> 진표는 율사와 지장신앙 및 미륵신앙 그리고 참회 수행 등과 관련이 있다. 미륵신앙과 관련해서 진표는 변산의 부사의방에서 망신참(亡身懺)으로 수행하다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정계(淨戒)를 받고, 이어 미륵보살로부터 『점찰경(占察經)』 2권과 간자(簡子) 189개를 받게 된다.<sup>23)</sup> 이후 금산사에 대미륵불을 조성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점찰교법과 계행(戒行)을 통해 미륵사상을 전파한다. 진표는 미륵하생의 용화삼회를 상징화하여 금산사와 속리산의 법주사(法住寺) 그리고 금강산의 발연사(鉢淵寺)를 창건하였는데, 이 사찰은 이후 미륵신앙의 중심 사찰로 지속되었다.

미륵은 이러한 미륵신앙과 인연이 깊다. 그가 출생한 곳은 익산의 미륵사지와 김제의 금산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법주사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청주 용화사의 미륵불 조성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진표가 금산사, 법주사, 발연사를 창건한 것과 같이 미륵은 1988년 법주사 청동미륵대불을 조성하였고, 용화사를 중창하고 미륵대흥사를 건립하였다. 만약 미륵이 청동미륵대불을 새로 조성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수가 있고, 청주 용화사에 미륵불을 모시는 과정 또한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륵대흥사의 건립과정 또한 미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연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sup>24)</sup>

22) 진표와 관련된 자료로는 『삼국유사』 「의해(義解) 제5」의 ‘진표전간(眞表傳簡)’·‘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심지계조(心地繼祖)’와 중국측 자료로 『송고승전(宋高僧傳)』·『신승전(神僧傳)』·『신수과분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고승적요(高僧摘要)』 등이 있다.

23) 一然, 『三國遺事』, 「義解 第五」, ‘眞表傳簡’.

24)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발표자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본 발표문에서는 생략한다.

미룡의 미륵신앙 운동과 그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현대의 미륵신앙 운동은 첫째, 금산사 주변의 범종산교 종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둘째 태공 월주가 중심이 되어 미륵십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미륵신앙에 대한 연구는 1973년에 설립된 원광대학교에 마한·백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마한·백제연구소의 소장 김상룡과 홍윤식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94년 김상룡 총장의 고회를 맞이하여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라는 제목으로 『한국사상사학』 6집의 특집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한중일 삼국의 불교학자들의 미륵 관련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미륵신앙의 연구사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이종익은 금산사의 미륵신앙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적이 있는데, 미륵경전과 미륵신앙의 방법론을 종합하여 1992년 『미륵성전』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1편에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성불경』 등 미륵삼부경을 수록하였고, 제2편에 ‘미륵존불’, ‘미륵도인의 과거와 미래’, ‘우리겨레의 미륵신앙’, ‘미륵신앙과 십선운동’, ‘용화세계의 건설과 미륵십선운동의 선언’, ‘21세기를 향한 미륵신앙’, ‘미륵신앙과 용화세계의 건설’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다.<sup>26)</sup>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금산사 태공 월주와 법주사 미룡 월탄의 미륵신앙 운동의 이론적 지침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1998년 법주사의 청동미륵대불조성을 회향하고서 미룡은 ‘미륵신앙을 우리의 의식을 순화시키고 인류의 구원사상으로 새롭게 정초하고자’ 세미나를 개

25) 한국사상사학회,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서문문화사, 1994. : 이 책에는 김상룡의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황수영의 「영월출토의 금동상 二例」, 목정배의 「한국미륵사상의 역사성」, 홍윤식의 「한국사상에 있어 미륵신앙과 그 사상적 구조」, 신종원의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조 역주」, 조용현의 「진표율사 미륵사상의 특질」, 류병덕의 「원불교에서 본 미륵사상」, 홍범초의 「증산의 천지공사에 나타난 미륵사상」, 박성배의 「Alan Sponberg의 「미륵상생경중요해설」을 읽고」, 변선환의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민중불교와 민중신학」, 김홍철의 「한국신종교의 미륵신앙」, 송화섭의 「조선후기 마을미륵의 형성배경과 그 성격」, 方立天의 「彌勒信仰在中國」, 梶山雄一の 「彌勒の根源」, 石上善應의 「미륵사상의 본질의意味」, 宮田 登의 「日本における彌勒信仰と民俗文化」, 小玉大圓의 「百濟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 등이 실려 있다.

26) 이종익, 『미륵성전』, 운주사, 1992.

27) 태공 월주의 미륵신앙에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권기완(문광)의 「태공 월주의 미륵사상과 요의 중생 - 『미륵삼부경』과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염중섭(자현)의 「초기 금산사 계율과 신앙에 대한 태공 월주의 계승 및 구현」 등이 있다.

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모아서 2000년에 법주사에서 『미륵사상의 현대적 조명』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다.<sup>28)</sup> 미륵은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하여 자신의 미륵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대립과 분열을 지양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인 것을 실증(實證)하는 우주본체의 참모습을 바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상, 고통으로 허덕이는 중생계가 아닌 동체대비의 참사랑의 본질적 바탕으로서의 나와 너,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대생명체로서 존재하는, 본질성을 회복하는 사상이야말로 이 시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이며, 또한 수용해야 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sup>29)</sup>

현대사회에서 미륵사상에 주목한 이유는 ‘깨달음의 사회화’에 있다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미륵이 생각하는 미륵 용화세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륵 월탄의 미륵신앙, 미륵사상에 대해 종합 정리한 저술은 보이지 않지만, 동영상 자료는 남아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동영상) 우리가 기다리는 미륵부처님 : BTN

(동영상) 마음을 비우면 그게 곧 부처다 : 청주 용화사 초하루 법회,  
2017년 2월 26일, BBS 불교방송

(동영상)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 국회정각회, BTN

(동영상) 불광보조 일요법회 : 봉은사, 2015년 1월 27일

(동영상) 국회 정각회 7월 월탄스님 초청 정기법회 : 국회 정각회,  
BTN

---

28) 유월탄 편, 『미륵사상과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 이 책에는 유월탄의 발간사에 이어, 石上善應의 「미륵신앙의 근원적 접근」, 이기영의 「경전사상에 나타난 미륵사상」, 김영태의 「한국미륵신앙의 사적 전개와 그 전망」, 홍윤식의 「미륵신앙의 소상화와 그 신앙」, 宮田登의 「미륵신앙과 민중사상」, 고은의 「오늘의 미륵-그 현재성을 위한 감상」 등이 실려 있다.

29) 유월탄 편, 『미륵사상과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7.

(동영상)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 무상사 일요법회 : BTN

이외에 미륵의 미륵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청주 용화사 각원스님으로 제공 받았는데, 미륵이 직접 쓴 세 가지 문서이다. 추후 연구자들을 위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南無彌勒尊佛

時時示世人  
化身千百億  
彌勒眞彌勒

미륵부처님 참미륵  
부처님께서는  
천백억 화신을  
항상 나타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계시오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네

化沙龍華淨土  
行心同體大悲  
萬物與我同體  
天地與我同根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 생명체요

우주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뚱이로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 사람들이  
동체대비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일찍이  
석가세존의 예언하신 바  
사바세계가 승화되어  
미륵용화정토요  
극락정토가 되리로다

불기 2562년  
단기 4351년  
서기 2018년 戊戌年  
11월 1일 음 9월 24일 挺立

忠淸北道 丹陽郡 黃庭山  
彌勒 大興禪寺  
會主 彌勒 龍華 行者  
彌龍 月誕大宗師  
與 時會 合願 大衆 一同  
施主 서울市 居住  
淸信女 修德華 法雲華 圓妙行 佛子

## 2. 미륵용화정토와 십선계법

계율은 무량한 법문 가운데 근본이 되므로 계행으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고 선정의 힘으로 지혜를 밝혀 무상불도를 성취하는 것이요, 그러

므로 십선도계는 선업을 쌓고 죄업을 끊는 기본이 되며 고뇌의 사바세계를 뛰어넘어 장차로 열려질 미륵용화정토에 태어나는 씨앗이 되는 것이니라.

이 십선도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미륵부처님께서 거듭 설하시리니 이 계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부처를 이루어 자리가 구족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여 일체중생을 구제함은 이타를 성취함이라, 자리 이타가 하나로 어우러져 나와 남이 하나가 되며 사랑과 미움이 하나 됨이 동체대비심이며 이것은 곧 미륵용화정토의 참모습이니라.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이 이 십선도계를 지키면 곧 미륵부처님께서 용화보리수 아래 몸을 나투시어 단지 삼회 설법으로 초회 96억 2회 94억 3회 92억의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와 보살과를 증득하여 미륵용화정토를 이룩할 것이니, 이 땅은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온갖 부조리가 척결되어 서로 화합하고 보살피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환희심 넘치는 불보살님들이 살아가는 땅이라. 그 누가 십선도계를 받들어 지키지 아니하라 이제까지 죄 있음을 참회하고 이 계를 받아 몸과 말과 마음의 삼업을 청정케 할지니라.

그리하여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여 자비무량하신 미륵부처님과 함께 절대 자유 평등 평화가 넘쳐나는 모두 안락한 미륵용화정토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지어다.

불기 2565(2021)년 4월 일

미륵대흥사 중창법주 미륵당 월탄 근백

### 3. 용화정토를 향하여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이땅에 이루고자 오래오래 염원했던 세계가 있나니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만물이 나와 한 몸이어서 너와 나 둘이 아닌 커다란 생명 실상으로 열리는 세계가 그것인바 어찌 미륵회상의 용화정토 아닐손가

그러나 무명으로 하여금 분별과 집착을 낳아 오로지 나만의 이득을 찾아 끝없는 대립과 혼돈으로 빠지고 마는 사바세계에 이르렀나니 이로부터 결연히 뛰쳐나와 본래면목의 자유 평등 평화가 넘쳐나 너와 내가 함께 살아나는 보리살타의 복된 삶을 향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이여

오랜 역사의 고대로부터 이천여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불교 가운데 특히 신라 화랑도의 미륵신앙과 백제의 국가 이상으로서의 용화정토사상이 있어 이 땅의 일체중생에 대한 보살화운동이 계승되었음이여

그리하여 이 운동에는 미륵십선도를 수행케함으로써 이 땅은 물론 지방세계 전체를 용화정토로 열리는 바탕이 되도록함이니 어찌 한사람이나 한 고을이나 한 나라만으로 이것을 이룩하겠는가

우주와 온세상 전체가 마침내 하나의 법인즉 이 법이 미치지 않는데 없는 미륵부처님의 회상에서 비로소 그 장엄한 광명 가득할지어다

여기 단양 황정산 미륵대흥선사 연화연실봉에 자비롭게 모셔진 미륵부처님과 더불어 세세생생 살고지고 억만겁토록 살고지고

불기 2564년(2021) 4월

미륵대흥사 중창법주 미룡당 월탄 근백

위의 세 문건을 통해 미룡이 추구하고자 했던 미륵신앙운동과 그가 꿈꾸었던 용화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미륵불’을 세 곳에 조성하고, 미륵십선운동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 미륵용화정토를 구현하고자 한 것은 마치 진표가 이 땅에 환생한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위의 글을 작성한 미룡은 이듬해 열반에 들게 된 것이다.

미룡의 미륵신앙운동은 그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미완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룡의 미륵사상, 미륵신앙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승 작업의 하나는 불교복지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룡의 문도인 성운은 미륵신앙의 전개 과정으로 불교복지를 통한 불국정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용화세계를 앞당길 수 있는 것, 정토복지사회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는 정책과 제도를 통한 복지사회의 건설이다. 불교는 이타행을 통한 불교복지를 통해 불국정토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 문제와 물질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에 정신적 복지를 더하는 불교복지는 일반 사회복지보다 훨씬 차원 높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이다. 인간의 복지를 통해 최종적인 해탈을 이루게 하려는 불교복지의 실천이야말로 바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겠다.<sup>30)</sup>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미룡의 미륵사상과 용화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원력이 그의 문도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 맺음말

출가 이후 미룡당 월탄 대종사의 삶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작계는 금오문중의 역사를 이끌었고 크게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끌었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주역 중의 한 분이자 거장으로서 조계종과 더불어 영욕(榮辱)을 함께 했다. 피모대각(被毛戴覺)·이류중행(異類中行)의 보살정신으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행과 교화, 종단운영, 교육과 번역 등 균형 잡힌 업적을 남겼다. 때론 엄격한 모습으로 때론 쾌활한 모습으로 때론 온화한 미소로 제자들과 신도들을 지도하였다.

한국불교 선 수행의 전통인 간화선을 올곧게 수행하여 월산 대선사로부터 인가받음으로 인하여 ‘경허→만공→보월→금오→월산→미룡’으로 이어지는 근현

30) 서병진(성운),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전개와 복지정토 관점에서의 조명」, 한국정토학회, 2007, 321-322.

대 덕숭문중의 선맥(禪脈)을 정초하였다. 또한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신식교육을 받고서 불교를 현대에 맞게 변화 발전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말년에는 법주사와 청주 용화사 및 단양의 미륵대흥사를 중심으로 미륵사상을 통해 충북의 불교발전을 이끌었다.

오늘 학술대회의 목적은 월탄 대종사의 생애와 업적을 선양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산이 높으면 그 골도 깊은 법이고 공이 크면 그만큼 과도 큰 법이다. 공과를 분명히 하여 생애와 업적을 엄격하게 조망하는 작업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본 발표문은 ‘선수행과 미륵사상’의 측면에서 월탄 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의 뼈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이는 월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금오 대선사와 월산 대선사 그리고 미룡 대선사로 이어진 금오 선맥은 본래 면목과 간화선 수행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펼침에 있어서는 각각의 독자적인 선풍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성과 역동성을 이어받아 한국사회·한국불교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덕숭 문중, 금오 문도, 월탄 문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월탄 대종사의 법을 이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전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미룡당 월탄대종사 탐비」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명단을 확인해 보면 상좌로는 성운(聖雲)·각현(覺賢)을 비롯하여 27명, 손상좌로는 동출(東出)·원명(元明)을 비롯하여 38명, 제가 제자로는 국회정각회장 주호영(朱豪英)·대덕(大德)을 비롯하여 9명 등 총 74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월탄 대종사가 스승 월산 대선사로부터 받은 계송을 통해 스님의 선풍과 가풍을 짐작할 수 있다. 월탄 대종사의 선풍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무일물역무(無一物亦無)’의 선풍(禪風)과 ‘미룡대가풍(彌龍大家風)’의 미륵세계를 연결하여, 선(禪)의 정신이 미륵의 자비행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전법 체계를 구

축하였다 할 수 있다. ‘본래무일물’의 공(空)사상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선의 지혜가 미륵불의 대자대비와 만나 그의 상좌인 성운과 각현에 이르러 사회복지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꽃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스님은 성운과 각현의 두 상좌에게 ‘복지를 통한 보살 용화세계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시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가르쳤다고 한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조계종 사회복지의 절반가량을 월탄 문도들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중불교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개인의 수행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출가자 중심에서 재가자와 함께하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의 초기 교단이 보여준 모습, 즉 중생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을 전하던 모습으로의 회귀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彌龍堂 月誕大宗師 塔碑」.
- 「미륵당 월탄 대종사 행장」, 『미륵당 월탄 대종사 영결식 팜플릿』,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미륵당 월탄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 2022. 8. 8.
- 유찬수(월탄), 「서산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1972.
- 유월탄 편, 『미륵사상과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 慧皎, 유월탄 편역, 『高僧傳』(개정판), 자유문고, 2003.
- 진관 지음, 『近代佛敎 淨化運動史 研究 - 월탄의 할복 50주년을 중심으로』, 경서원, 2009.
- 월정사·김광식 엮음, 『(만화 희찬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오대산의 버팀목』, 오대산 월정사, 2011.
- 불교신문기획·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엮음, 『(우리시대 선사 아홉 분의 간화 선법문) 해 뜨니 낮이요, 달뜨니 밤이로다』, 조계종출판사, 2015.
- 금오 태전, 『金烏集』, 동국역경원, 1974.
- 금오 태전, 『金烏集』, 법주사·불국사, 1992.
- 금오대선사 지음,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 금오선수행 연구원 편찬,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전 2권),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 만공문도회 편찬, 『滿空法語』, 수덕사 능인선원, 1982.
- 종학연구소 편,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 월산문도회 편저,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8.
- 불국사 월산문도회,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 자운문도회 기획·김광식 엮음, 『자운대율사』, 불광출판사, 2017.
-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사』, 중앙일보사, 1980.
- 경허 성우, 이상하 옮김, 『경허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김광식, 『(불교인문학으로 조명하는 근현대 고승 31인) 우리시대의 큰 스님』, 인북스, 2015.
-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김광식, 『우리가 살아온 한국불교 백년』, 민족사, 2000.
-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 김광식,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 김영옥, 『우리시대의 스님들, 바라 꽃이다』, 호미, 2002.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 - 근현대편』, 조계종출판사, 2001.
-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기획·편찬,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 박희승, 『선지식에게 길을 묻다』, 은행나무, 2009.
- 선우도량,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 近現代史』(上·下), 선우도량출판부, 1995.
- 송월주 저·태공당 월주 대종사 회고록 간행위원회 엮음, 『송월주 회고록 토끼뿔 거북 털』, 조계종출판사, 2016.
- 윤청광, 『한 생각 돌리면 천하가 다 내 것일세』, 우리출판사, 2002.
- 이종익, 『미륵성전』, 운주사, 1992.
- 종학연구소 편,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 태진스님, 『경허와 만공의 禪思想』, 민족사, 2007.
- 한국불교승단정화사 편집위원회, 『한국불교승단정화사』, 대보사, 佛紀 2540.
- 한국사상사학회,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서문문화사, 1994.
- 고영섭, 「경허 성우의 불사와 결사-역사의 안팎과 철학의 앞뒤 -」, 『한국불교학』 51, 2008.
- 권기완, 「태공 월주의 미륵 사상과 요익 중생 - 『미륵삼부경』과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불교학보』 9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22.
- 김경집, 「경허의 정혜결사와 그 사상적 의의」, 『한국불교학』 21, 1996.
- 김경집, 「근대 禪學院 활동의 史的 意義」, 『불교학연구』 15, 불교학연구회, 2006.
- 김경집, 「금오선사의 불교정화운동과 불교사적 의의」,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 김경집, 「滿空 月面の 사상과 활동」 12, 2005
- 김광식, 「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선사의 역할」,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 김광식, 「월탄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 김광식,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21, 대각사상연구원, 2014.
- 김삼룡,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 김삼룡, 「백제미륵사상의 역사적 위치」, 『마한 백제문화』 4, 월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2.
- 김방룡, 「鏡虛惺牛의 禪사상과 불교사적 위상」, 『동서철학연구』 72, 한국동서철학회,

2014.

김방룡, 「금오선사의 생애와 당시의 불교계」,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 수행연구원, 2011.

김방룡, 「원불교사상에 나타난 미륵신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3,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김방룡, 「청담대종사의 정화사상과 현대적 구현」, 『마음사상』 9, 경상국립대학교 청담사상연구소, 2011.

김방룡, 「청담조사가 추진한 불교정화운동 이후의 한국불교」, 『마음사상』 13, 경상국립대학교 청담사상연구소, 2021.

김방룡, 「曉峰의 선사상」, 『보조사상』 33, 보조사상연구원, 2010.

김방룡, 「구산 수련의 제2 정혜결사 운동과 그 의의」, 『보조사상』 67, 보조사상연구원, 2023.

김상두(靑願), 「金烏 太田禪師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2016.

김순석, 「금오문종의 위상과 성격」,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박규리, 「鏡虛禪詩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2013.

서병진(성운),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전개와 복지정토 관점에서의 조명」, 한국정토학회, 2007.

성타 스님, 「월산 큰스님의 사상과 가르침」,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신규탁, 「금오대전 선사의 선사상」,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 수행연구원, 2011.

염중섭, 「진표의 신앙적 특징과 배경 검토」, 『진단학보』 138, 2022.

염중섭, 「초기 금산사의 계율과 신앙에 대한 태공 월주의 계승 및 구현」, 『불교학보』 9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2.

이덕진, 「鏡虛禪師의 ‘法化’와 ‘行履’에 대하여」, 『한국선학』 4, 2002.

이덕진, 「금오 ‘간화선법’에 대한 고찰」,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 수행연구원, 2011.

이봉춘, 「한국 미륵신앙의 역사와 정신」, 『천태학연구』 20,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17.

이성타, 「경허선사의 선세계」, 『한국불교학』 22, 1997.

정성본, 「滿空禪師의 生涯와 禪思想 研究」, 『한국불교학』 22, 1997.

종우 스님, 「월산 큰스님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종호 스님, 「금오선사의 심(心) 사상 이해」,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 수행연구원,

2011.

한상길, 「불국사의 강학 전통」,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中道禪 사상』, 조계종출판사, 2022.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 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한태식(보광), 「월산선사의 중도선 사상(2)」, 『대각사상』 36, 대각사상연구원, 2021.

홍윤식, 「한국사상에 있어서 미륵신앙과 그 사상적 구조」,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홍현지, 「경허 성우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2015.

황정수(태진), 「경허·만공의 선사상 연구 : 덕숭산문 형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1999.

(동영상) 우리가 기다리는 미륵부처님 : BTN

(동영상) 마음을 비우면 그게 곧 부처다 : 청주 용화사 초하루 법회, 2017년 2월 26일, BBS 불교방송

(동영상)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 국회정각회, BTN

(동영상) 불광보조 일요법회 : 봉은사, 2015년 1월 27일

(동영상) 국회 정각회 7월 월탄스님 초청 정기법회 : 국회 정각회, BTN

(동영상)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 무상사 일요법회 : BTN



[제1발표의 논평]

## 「월탄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읽고

자현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선행 연구가 부족한 연구는 원전의 발굴과 새로운 연구 틀을 제시하는 어려운 시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김방룡 선생님의 논문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본고는 월탄 대종사의 삶을 ①발심과 출가·②선사로서의 선수행 이력·③금성(금오와 성림)의 인가와 계승으로 정리한다. 이는 ‘기본 생애’와 ‘선수행’ 및 ‘사법인가와 전등의 계보’에 관한 측면이다. 이를 통해, 논문은 선사로서 일생을 수행과 함께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해 주고 있다.

이외에 사상적으로는 미륵신앙에 주목한다. 월산 대종사의 미륵신앙 현양은 보은 법주사와 청주 용화사, 그리고 단양 미륵대흥사의 세 곳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주목된다. 특히 미륵대흥사는 대종사께서 폐사된 사찰을 중건하여 일신한 것으로 당신의 미륵신앙과 관련된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찰이다. 또 본 고에서는 미륵과 관련된 대종사의 세 편 글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종사는 선과 미륵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사상과 신앙이 병진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고승들에서 자주 목격되는 부분이다. 자장은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율사지만, 그와 동시에 신라 오대산(월정사)을 개창하는 문수 신앙자며 또 사리 신앙자였다. 오늘날 소위 오대보궁으로 칭해지는 성지가 모두 자장율사의 개창을 표방하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이

는 또 진표율사가 율사인 동시에 미륵과 지장 신앙자였다는 점, 그리고 의상이 화엄 사상의 전지자인 동시에 아미타와 관음 신앙자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대종사 역시 선과 미륵 신앙을 병진한 것은 수행자인 동시에 신실한 종교인으로서 올바른 관점을 견지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특히 큰스님으로서 대중을 교화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륵 신앙을 통한 교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대종사에게 있어서 선과 미륵 신앙은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같은 진리와 교화의 두 날개였다고 하겠다.

본고는 학술적 논문이라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종사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불교정화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한국불교가 혼탁해진 상황에서 정화는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선각자의 깃발과 같은 시대 정신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종사는 굽은 불교를 바로 세워 한국불교를 재조하고 재흥한 실천적인 선각자였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종사의 삶은 ‘선수행과 깨침’, ‘미륵 신앙을 통한 대중 교화’ 그리고 ‘정화를 통한 대장부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종사에 대한 연구는 김방룡선생님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종사와 관련된 증언집과 연구 등이 더욱 활발해져서, 문도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기릴만한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져, 잊히지 않는 위대함으로 한국불교사의 한 획으로 남기를 기원해 본다.

[제2발표]

## 월탄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 I. 서언
- II. 월탄스님의 정체성
- III. 월탄스님의 종단관
- IV. 결어

### I. 서언

한국현대 불교사에서는 불교와 교단을 위해 헌신한 큰스님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스님이 있었으니, 그는 월탄대종사(1937~2022)이다. 월탄대종사(이하, 월탄스님으로 약칭)는 조계종단의 석림동문회 회장, 조계사·법주사 주지, 종회의장, 원로의원 등 다양한 소임을 역임한 큰스님이다. 그러나 월탄스님에 대한 자료집, 논문 등은 현재까지는 부재하다. 이는 스님이 입적한지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스님에 대한 학술, 추모, 계승의 작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 현대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특히 불교정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기에 월탄스님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의 최일선(1960, 할복 6비구)에 섰고, 살아 생전에 불교정화 정신을

구현·계승하려고 노력한 당사자이었던 측면으로 인해, 주목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스님의 행보는 불교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월탄스님에 대한 학문적인 교두보를 놓는 차원에서 월탄스님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고 한다. 한 인물을 연구하려면 그 인물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그 인물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심, 사관, 입장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론에서 필자는 월탄스님의 정체성과 종단관을 설명하려고 한다. 필자는 월탄스님을 생존시에 네 번을 인터뷰하였다.<sup>1)</sup> 그런 과정에서 월탄스님은 어떤 스님이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런 관심을 이제는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이 글이 월탄스님, 불교정화운동, 금오문중, 법주사 등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진한 점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분석으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선학 제현의 비판을 기다린다.

## II. 월탄스님의 정체성

월탄스님은 어떤 스님이었는가? 이것이 본장의 초점이다. 필자는 스님을 ‘이상주의자’로 보고자 한다. 월탄스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상론자’라고 고백하였다. 필자는 이것에서 정체성을 끌어내려고 한다. 이상론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당위 및 지향을 위한 정신과 사상적인 논리이다. 때문에 이상론자는 선구자, 선지자의 성격을 내포한다. 또한 그런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분석, 미래의 준비, 희생, 헌신,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전제하에서 월탄스님의 삶, 조계종단 스님으로서의 일

1) 그는 다음과 같다.

- ▷ 동산스님 - 2006.9.8, 법주사 ;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범어사, 2007)
- ▷ 희찬스님 - 2010.3.7, 법주사 ; 『오대산의 버팀목』(월정사, 2011)
- ▷ 벽안스님 - 2013.2.17, 법주사 ; 『청백가풍의 표상』(벽안문도회, 2014)
- ▷ 경봉스님 - 2018.6.15, 미륵대홍사 ; 『삼소굴의 법향』(경봉문도회, 2020)

생 등에서 그런 성격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선 자신을 이상론자로 고백한 구술을 제시한다.

문: 스님의 출가 인연, 그리고 정확의 주역인 금오스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 저는 본래 이상론자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영웅전을 많이 읽게 된 것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김유신과 을지문덕의 전기를 읽고서는 아주 그분들의 일대기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김유신의 삼국 통일을 대비한 화랑의 훈련, 정신에 매료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웅들이 인류의 평화, 평등을 지향하였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니다.<sup>2)</sup>

위와 같은 구술에 나오듯이, 월탄은 유년시절에 읽었던 영웅 전기를 통해 김유신, 을지문덕의 삶을 흠모하였다. 특히 김유신의 화랑정신에 매료되었다. 이런 정신, 지향에 나온 자신의 정체성을 월탄스님은 이상론자라고 스스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신을 월탄은 고교시절에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졸업 후, 태권도 사범으로 체육관을 운영을 하다가 지리산으로 수행을 갔다. 그 수행에서 은사인 금오스님을 만나 1959년에 출가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지리산 천왕봉에 가서 수행을 해보자는 결심을 했어요. (중략) 우선 화엄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니 갑자기 25일 간이나 장마비가 계속 해서 내리기에 지리산으로 올라 가지는 못하고 그냥 화엄사에 하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엄사에 있었는데 화엄사의 지객을 보는 월국이라는 스님이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때 그 월국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이것 저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소설 책을 건네 주면서 읽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서는 저는 완전

2) 동산문도회·김광식,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7, p.269

히 불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에 완전히 빠지고, 스님 중에는 이런 스님도 있구나 하면서 저도 사명대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탁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여름 안거를 시작할 때이라, 제 은사인 금오스님의 하안거 결제 법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지객 스님이 저 같은 학생들도 큰스님 법문이 있으니 들어도 좋다고 해서 저도 말석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오스님의 법문이 무엇인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인 줄을 알고 있지만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도 모르고 찾지 않으면서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 이는 산송장이 사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일체유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 저는 사명대사 소설에 빠져 있었던 차에 금오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불현듯 나는 스님이 되고픈 생각이 확 일더라구요.<sup>3)</sup>

위의 회고에서 나오듯이 월탄은 화엄사에서 우연히 서산대사와<sup>4)</sup> 사명대사의 소설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특히 사명대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픈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런 직후, 은사인 금오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출가 결심을 단행하였다. 즉 그는 이상론자로서 김유신에 빠져 있다가, 사명대사가 되고픈 충동이 일었다. 사명대사는 스님이었기에, 금오스님의 법문에 자극을 받게 되자 입산, 출가의 길로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월탄이 읽은 소설 책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데 1950~60년대에 출가한 스님들을 많이 접해 본 필자는 출가 계기로 작용한 책이 『사명대사』임을 파악하였다.<sup>5)</sup> 이 책은 불교학자 이종익이 지은 소설로<sup>6)</sup> 1957년에 통문관이 발간하였다가, 1960년대에는 법통사·보련각 등에서 재간

3) 위의 책, p.271.

4) 월탄스님은 『석림』 6·7(1973)에 「서산사상 연구」를 기고하였다.

5)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통광스님(쌍계사 칠불암), 법보스님(직지사), 장일스님(비구니, 동화사 내 원암) 등이다. 통 광, 「나를 불문으로 이끈 사명대사」, 『해인』 1977년 11월호.

유철주, 「법보 ; 큰스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영허 녹원』, 조계종출판사, 2024, p.332.

정혜련, 「도립당 장일의 수행과 호법활동」, 『한마음연구』 14, 2025, p.426.

6) 이종익, 「사명대사의 생애와 일화」, 『금강』 16호(1986.4).

\_\_\_\_\_, 「사명대사에 얽힌 이야기」, 『법륜』 258호(1990.8) ~ 261호(1990.11)

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7) 사명대사의 치열한 정진, 나아가서는 중생구제를 위해 나선 내용은 민족불교, 호국불교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많은 스님, 신도,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 사명대사의 일생이 월탄스님을 출가의 길로 이끈 매개체이었다.

이렇듯 이상론자인 월탄스님은 사명대사의 이야기와8) 금오스님의 마음 법문이 결합되어 스님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행보는 중생 구제, 구국구세의 이상이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월탄스님은 1959년 입산 직후에 지리산(상무주암)에서 참선 정진을 하였고, 이어서 해인사 강원에서 수학하였다.

바로 그 무렵, 1960년 가을에 월탄스님의 행보에 큰 자극을 준 사건이 있어 났으니 그는 1960년 11월 19일, 전국승려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정화운동의 타당성을 입증, 호소하였던 이른바 할복 6비구 사건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월탄스님은 그 대회 참가, 순교단 가입, 할복 6비구 활동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해인사 총무를 보던 영암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 보고 지금 제2 승려대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데 해인사 학인 대표로 5명을 선발했는데 제가 거기에 뽑혔다는 것입니다. 불교정화에는 은사인 금오스님이 제일이니 자네가 마땅히 정화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서울, 조계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학인 대표가 누구인지는 기억에 없고, 제가 조계사에 간 과정도 어떻게 갔는지 아리송하군요.

문: 그것이 월탄스님을 유명하게 한 대법원 난입과 할복 사건이 나오게 한 그 때이군요.

7) 윤창화, 「이종익의 역사소설 『사명대사』」,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민족사, 2010, pp.345-350.

8) 월탄스님이 동국대 대학원에서 ‘서산사상’을 연구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륵당 월탄대종사 탐비」 참고.

답;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에 올라와 조계사로 갔습니다. 갔더니 스님들이 단식을 하고 그랬어요. 조계사에서 정화운동을 한참 하는데 순교단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때 수덕사의 원담스님이 정화기념관에서 정화정신을 고양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원담스님이 대각국사가 이차돈을 기리는 계송을 읊는데 저는 거기서 완전 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단에 자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 계송을 들은 직후 나도 이차돈과 같이 이번에 불교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마음, 결심이 확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무주암에서 생과 사,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하였기에 죽음에 대하여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교단에 자원을 한 스님 중에서 불교 정화를 위해서 최후로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스님 6명과 청담스님 하고, 정화회관 내의 지대방에서 모여 순교를 하는 공사(公事)까지 했습니다.<sup>9)</sup>

위의 회고에는 필자가 강조하는 이상론, 헌신, 순교에 대한 내용이 다수 나온다. 월탄스님은 해인사에서 조계사로 올라 와서, 불교정화의 타당성을 위해 열린 승려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래서 조계사 내의 정화기념관 강의에서 원담스님(수덕사)이 언급한 대각국사의 이차돈을 기리는 계송에 감동하였다. 신라 불교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이차돈의 순교정신을 추모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월탄스님은 순교단(12명)에 기꺼히 가입하였다. 순교단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宗團의 淨化 完遂를 위하여 宗正 猊下와 宗團 元老 諸德의 숭고한 淨化 理念과 大衆의 淸淨 信念에 大悟한 바 있어 同志 幾名이 규합하여 殉敎團을 조직하고 指導部의 決議事項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한 小僧들이 실천코자 하여 此를 실천하기 위하여 身命을 버리고 前衛隊가 될 것을 三寶 전에 盟誓하면서 이를 決意하나이다.

應化 2987년 11월 21일<sup>10)</sup>

9) 위의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pp274-276.

10) 『대한불교』 1960.11.24, 「정화완수 순교단 조직」.

월탄스님은 위의 결의문에 나온 내용을 적극 수용하였다. 정화 이념의 실천, 정화의 완수를 위해 순교한다는 결의이다. 순교단 12명<sup>11)</sup> 중에서 최후로 결심을 한 6명에<sup>12)</sup> 포함된 월탄스님은 대법원에 가서 할복(1960.10.24)으로 순교의 의지를 구현하였다.<sup>13)</sup> 역사적인 그날 대법원은 계류된 정화운동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비구승 중심의 정화운동이 판결로써 확정되기를 기대했던 비구측은 크게 분노하였다. 그래서 수 많은 사부대중이 대법원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하였다. 대법원에는 정화운동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순교를 결의한 6비구는 대법원장실에서 할복을 통한 의지를 결행하였다. 6비구를 비롯한 24명의 비구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2월 7일 집행유예로써 석방되었다.

이와 같은 1960년 10월 24일, 대법원 할복 사건은 불교정화운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월탄스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월탄스님은 순교를 불사한 그 사건으로 정화운동을 상징하는 소장파 스님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정화운동을 위한, 교단 정화를 위한, 불교를 위한 순교적인 정신이 저절로 월탄의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정립되었다. 이제 월탄스님은 막연한 이상주의자에서 순교적인 스님으로, 교단을 위한 행보에 제일 앞장 서는 스님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런 월탄스님의 행보를 더욱 진일보 하게 한 것은 1964년 동국대 제1기생으로의 입학이었다. 종비생 제도는 동국대에 엘리트의 승려들을 입학시켜 종단의 중추로 키워내려는 제도이다. 그 종비생 1기로 월탄스님이 입학을 하였던 것이다.

종비생 제도는 불교정화의 3대 사업인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구도에서 나왔다.<sup>14)</sup> 종단은 1962년 12월 28일, 제2회 중앙총회에서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11) 당시 12명의 순교 지원자는 다음과 같다. 장정월(張精月), 김효림(金曉林), 문성각(文性覺), 김도헌(金道憲), 김지족(金知足), 정성우(鄭性愚), 유월탄(柳月誕), 이마하(李摩訶), 춘추 박효성(春秋 朴孝性), 권진정(權眞靜), 이도명(李道明), 신정래(申正來).

12) 그 6명은 유월탄(해인사 ; 법주사), 문성각(양주 자재암; 신흥사), 권진정(여주 구곡사), 김도헌(화엄사), 이도명(화엄사), 정성우(양주 자재암) 등이다.

13) 박부영, 「대법원 ‘육비구 할복’ 사건 전개과정과 의미」, 『불교평론』 33, 2008.

종비생 제도를 포함시켰다.<sup>15)</sup> 그 이후인 1964년 1월 25일의 제6회 임시총회에 서는 종비생 제도를 실행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3대사업 추진의 건(1964.1.25 통과)

본 건에 대하여는 총림을 위시한 교육문제는 행정부에 위임하고 재래 강원은 존속시키며, 진보적인 교육은 승가대학의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두어 교육하고, 제복·기숙사·학비 등 제 문제는 총무원에서 방안을 마련토록 일임기로 의결하다.<sup>16)</sup>

총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그 초점은 승가대학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종비생 교육을 전담시킨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비용은 총무원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결정을 하였던 중앙총회의 과정을 소개한다.

손경산 의원; 총회의원은 종단정책을 다루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시대성에 비추 워 인재양성이 시급합니다. 과거 교육식으로 하느냐, 현대식으로 하느냐, 총식으로 하느냐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제양성을 위한 기본 문제부터 논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녹원 의원; 총림을 위시한 교육문제는 행정부에 위임하는게 좋겠 으며, 재래 강원은 존속시키기로 하고, 진보적인 교육은 승가 대학의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두어 기르고, 제복·기숙사·학비 등 제 문제를 신중히 연구해 나갈 방안을 일체 총무원에 위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청하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이의 없습니까?

(전원 무이로 통과되다)

14) 해주, 「석림40년의 회고와 기대」, 『석림』 40집, 1996, pp.64-67.

15) 『제1대 중앙총회 회의록』, p.115, p.122.

16) 『제1대 중앙총회 회의록』, p.231.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 손경산의 주도로 당시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종비생 제도의 방안이 통과되었다.<sup>17)</sup> 그 정황은 『대한불교』에서도<sup>18)</sup> 확인이 된다.

마침내 1964년 3월에 제1기 종비생 20명의 입학이 결정되었다. 종비생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 교통비, 의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64년 1월에 결정하고, 두달 후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한 연유는 무엇인가. 그는 1963년 7월 30일에 동국대 총장으로 임용된 김법린 총장의 결단이다. 통합종단의 주체가 된 비구승들이 1963년 2월 28일부터 동국대를 경영하게 되었다.<sup>19)</sup> 이런 구도에서 총장에 선임된 김법린은 비구승이 종단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김법린은 취임 후 6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는 “불교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단이므로 불타의 근본정신을 널리 선양 주지시키기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있다.<sup>20)</sup> 이것이 도제양성의 구체적인 행보인 종비생 제도의 배경이다.

김법린은 이 취지에서 1964년 1월 6~20일, 동국대에서 제1회 승니특별강습회(15일 예정)를 열었다. 강습회는 승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의 지식을 함양해 승단을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으로 기획되었다. 교육 내용은 불교의 교리, 사상, 역사, 불교미술, 헌법, 행정, 약초재배, 육림 등 다양하였다.<sup>21)</sup>

그런데 그 강습회 도중에 월정사 사태가 일어났다. 그 당시 월정사에서는 비

17) 손경산, 「宗費生이 걸어갈 길은?」, 『대한불교』 1964.10.4., p.2.

김광식, 「경산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83집, 2018.

18) 『대한불교』 1964.2.1, p.1, 「제6회 임시중앙총회, 3대사업에 박차」. 도제양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제양성 ; 오늘의 시대에 비추워 시대에 영합하는 인재의 양성이 시급함을 강조한 손경산 의원은 재래식 교육방법과 현대식 교육방법의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인가 혹은 절충식 등 원칙을 세워 도제양성의 기본책을 강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박추담의원은 도제양성은 물론 승풍 확립과 교화사업 등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를 전제하면서 현대식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에 못지 않은 엄격한 수도원의 운영으로 보다 근원적인 승니의 질적 향상도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따라서 승니의 새교육에 대하여 이행원 의원의 동의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금년부터 20명의 종비생을 양성하는데 인도철학과에 10명, 불교학과에 10명으로 하고 1인당 장학비 월 3천원 정도를 지급하여 기숙사, 교통, 제복을 제공할 것을 의결하여 연간 약 70만원의 예산으로 승니의 새교육에 대한 관문이 열렸다.

19) 이사로 들어간 인물은 청담, 서운, 능가, 경산, 벽안, 정영, 석주 등이었다.

20) 『대한불교』 1963.7.30, 「총장에 김법린박사 취임, 6개 시정원칙을 선언」.

21) 『대한불교』 1963.12.1, p.8 「승니특별강습회 실시(동계)」.

구승과 대처승 이 사찰 운영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그런데 대처승측이 법원 소송에서 우위의 판결을 받아 월정사로 진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당시 월정사 암자인 상원사 선원에서 수행을 하는 수좌들도 월정사 수호에 나섰다. 그때 그 선원에서 수행을 하였던 월탄스님이 월정사 수호에 나섰다. 그는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열린 그 강습회를 찾아 종단 중진(문성각, 김혜정, 송월주 등)들에게 긴급사태를 알리면서 월정사를 수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였다. 그러자 강습회의 장소가 동국대에서 월정사로 이전되었다.

긴급 사태로 버스를 대절하여 월정사로 내려간 대중(150여명)은 월정사를 수호하면서, 강의를 수강하였다.<sup>22)</sup> 중견승려들은 종단 미래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월탄스님의 회고를 제시한다.

문; 그 월정사 정화는 월탄스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럼요. 그리고 그때 월정사에서 종비생제도가 출범하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종비생이 생긴 것입니다. 1964년 납월 5일, 월정사 그 방에서 생겼습니다. 그때 월정사를 지키기 위하여 왔던 중진스님들 일타·송월주 등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때 송산스님으로부터 김법린 총장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김법린 총장이 “대처승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비구승도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말을 했다고 그래요. 송산스님은 김법린 총장과 친했는데, 김총장은 “비구승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화계사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고, 학비는 무료로 해줄 터이니 스님들이 학교에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비생 제도가 생겨서 비구승들이 대학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sup>23)</sup>

22) 수료식은 1월 28일, 월정사에서 있었다.

23) 김광식, 『오대산의 버팀목』, 월정사, 2011, p.59.

1964년 1월, 대처승과 대치를 하였던 월정사 그 현장에서 종비생 제도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1962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에 종비생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전연 없었다. 그런데 1964년 1월에 종비생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에는 월정사 사태로 인한 강습회가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월탄스님은 인식했다. 여기에서 월탄스님의 회고를 제시한다.

문: 그래서 월탄스님께서서는 종비생으로 들어 가셨나요?

답: 저는 종비생 1기로 들어 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종비생으로 동대에 가겠다고 한 스님들은 하나도 이력서를 안 내고 저만 냈어요. (중략)

그래서 저는 그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 때에 나이는 어렸지만 대법원에 가서 할복을 하고 그래서 어디에 가나 큰스님으로 대접받고 그랬거든요. (중략)

하여간에 시험을 보았는데 제가 아는 문제가 제법 나왔어요. 불교 대학 지원생이 260명이었는데, 제가 지원자 중에서 23등을 하었다고 했어요. 중으로는 제일 앞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안스님과 송산스님이 월탄스님은 시험성적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서 23등으로 합격을 하여 스님들 체면을 지켜 주었다고 하면서 좋아 하였다고 하더군요.<sup>24)</sup>

하여튼 월탄스님은 1964년 3월에 제1기 종비생 15명의<sup>25)</sup> 일원으로 입학하였다.<sup>26)</sup> 종단은 1965년에도 종비생 제도를 지속시켜,<sup>27)</sup> 제2기인 8명은<sup>28)</sup> 입학

24) 위의 책, pp.60-61.

25)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도철학과 ; 이양길, 김정길, 김민자, 전성진, 임봉준(자광스님), 김용숙, 탁만식, 방삼수(지하스님), 장충식(지연스님)

불교학과 ; 송재달, 유찬수(월탄스님), 김창식(현해스님), 장상길, 김영길, 박고홍

26) 『대한불교』 1964.12.13, p.3, 「교무행정의 회고와 반성 ; 종비생 육성」.

27) 『대한불교』 1965.1.3, p.3, 「3대사업의 전망」. 그 당시 월탄스님은 도제양성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다. 김광식, 「일타의 지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 『불교연구』 46집, 2017, pp.281-283.

28) 『석림』 창간호, p.25. 해주는 위의 고찰 p.66에서 2기생을 7명으로 기재하였다. 종비생 통계는 기록에 따라 다양하게 나온다. 근거에 의해 재정비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1966년 12월에 열린 종회에서는 총무원에서의 종비생 모집은 중단함을 결의했다.<sup>29)</sup> 그는 중단 예산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자 종비생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였는데, 그 중심에 월탄스님이 있었다.

저는 1963년에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수행을 하다가 1964년 1월의 월정사 불교정화에 주역으로 관여했어요. 그런데 오대산에서 종비생 제도를 만들자는 말이 나와서 제가 종비생 1기로 1964년 봄에 동국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당시 종단에서 종비생을 대졸 돈이 없다고 해서 1966년부터는 두해 동안 종비생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비생 대표로 종회에 가서 그것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종회에서 우리나라의 큰스님들은 반쫓가리 스님이다, 산에서는 도인 노릇을 하지만 산에서 나오시면 병어리가 된다고 풍자하면서, 전통불교와 현대불교를 접목하는 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종회에 있던 큰스님들이, 세상에 새파란 놈이 저럴 수 있느냐고 야단이 났어요. 특히 구산스님이 제일 강하게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워지자 청담스님이 나를 불러서 귓속말로 말은 맞지만 참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종회에 나가서 “큰스님들 욕보인 것을 참회합니다”라고 해 놓고는 말미에서는 그러나 한국불교는 전통불교와 현대불교를 접목하지 않으면 전망이 없다는 제 소신을 피력했어요. 그러자 행원, 석주, 채벽암, 서운스님은 잘 했다고 하면서 다 좋아하시더라구요.<sup>30)</sup>

1기, 1964년 ; 15명 입학

2기, 1965년 ; 9명 입학(비구니 3명)

3기, 1966년 ; 8명 입학(비구니 2명)

4기, 1967년 ; 13명 입학(비구니 5명), 총무원 선발 중단, 자치회 주관, 이한상 후원

5기, 1968년 ; 3명 입학

29) 『대한불교』 1965.2.4, p.1, 「제2기 종비생 선발, 예산관계로 줄어드는 종비생 육성책」.

『대한불교』 1966.12.19, p.1, 「도제양성, 1966년 교계 백서」.

『제2대 중앙종회 회의록』, 중앙종회, 2000, p.56. 1966년 12월 30일, 교육에 관한 건의 토의에서 조용명, 윤기원의 동의, 재청에 의해 통과되었다.

30) 김광식, 『청백가풍의 표상』, 2014, p.79

이와 같이 월탄스님은 종비생 대표로<sup>31)</sup> 소신 발언을 종회에 가서 개진하였다.<sup>32)</sup> 전통불교와 현대불교의 접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공개 발언은 월탄스님이 종비생 대표로서 또 하나의 개성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할복 비구에서 종비생이라는 이미지가 부가되었다. 즉 월탄스님의 위상이 고양되었다. 이처럼 월탄스님에 있어서 석림회는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sup>33)</sup>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김유신, 사명대사를 흠모한 이상주의자이었던 월탄스님은 출가 후, 대법원에서의 할복 사건으로 인한 명성에 종비생이라는 위상이 부가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의 월탄스님은 이상주의자에서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장파 대표 스님이 되었다.

### Ⅲ. 월탄스님의 종단관

본장에서는 월탄스님의 종단관을 살피려고 한다. 이상주의자, 할복 비구, 종비생의 입장에서 어떤 종단관을 갖고 있었는가이다. 그는 정화정신의 계승과 수행종단의 구현이었다. 이런 논지를 월탄은 입적 이전까지 일관적으로 갖고 있었다.

1954년부터 시작된 정화운동은 1962년 통합종단의 등장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후유증을 갖고 있었기에<sup>34)</sup> 정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구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우선 정화정신의 3대지표인 도제양성, 포교, 역경을 실천해야만 되었다. 그러나 종단에서 이탈된 부류의 저항, 반발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화동위원회의<sup>35)</sup> 흐름이었다. 대처승의 수용, 타협을 통한 종단 운영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화동파로

31) 석림동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32) 『종회 회의록』에는 안 나온다. 그 시점은 확인해야 한다.

33) 유월탄, 「석림 10년의 회고와 전망」, 『석림』 10, 1976.

34) 김광식, 「불교 '정화'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p.416-425.

\_\_\_\_\_, 「한국 현대불교와 정화운동」,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pp.165-168.

35) 김광식, 「불교정화운동과 화동위원회」,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2007, pp.241-264.

인해 정화정신이 퇴색된다고 반발하는 흐름도 있었다. 이는 이른바 제2정화, 재정화로 지칭되었다.

이런 구도에서 정화정신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일단의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 靈鷲會이었다.<sup>36)</sup> 1967년 1월에 등장한 그 영축회에 월탄 스님도 참여하였다. 할복 비구인 문성각(자재암, 신흥사)과 이행원(화계사)이 주도한 그 모임에 할복 비구인 월탄이 동참한 것은 당연한 행보로 이해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축회의 노선, 성격을 제시한다. 우선 그 정황을 보도한 것이 『대한불교』(1967.1.29)에 전한다.

승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한국불교의 정수가 되기 위하여 수도적인 자세로 임하자, 상호 화합하는데 힘쓰자, 종단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자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판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하에 젊은 승려들만의 모임인 「영축회」(靈鷲會)의 창립 준비위원 종정인 이청담도 참여하였는데, 회가 지난 20일 시내 화계사에서 열렸다. 전국 각 사암에서 모인 62명의 젊은 「에리트」들은 동 모임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10인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지문, 강령, 회칙 결정을 위임했다. 동 위원회는 21일 다시 5인의 「小委」로 축소시켜 거기서 회명, 강령, 회칙, 취지문 채택 등을 확정시키고 창립총회는 오는 3월 20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수련대회(강습회), 교리연구(발표회) 등으로 내용 충실을 기하고 대정진, 대화합, 대협조를 통해서 부처님의 正法을 이어 받고 이 나라를 살기 좋은 佛國土로 만들겠다는 등 모임에 대해서 교계 및 일반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sup>37)</sup>

이 보도기사에 나오듯 승단의 기강을 잡고, 불교의 정수가 되기 위해, 그리고 수도적 자세로 종단과업의 수행에 협조하여, 불교의 판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발기의 취지는 재정화의 의미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

36) 영축회의 배경, 전개, 성격 등은 김광식, 「제2정화운동과 영축회」, 『한국현대사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참고.

37) 『대한불교』 1967.1.29, 「韓國佛敎 淨化作業의 前衛로, 중진승려들 영축회 결성 준비」.

던 준비위원회의 대표는 이행원, 간사는 문성각이었다.<sup>38)</sup> 보도기사에서 영축회의 산파역인 소위원회의 위원을 이행원, 박청하, 고광덕, 황진경, 문성각이라고 전한 점을 주목하면 이들이 핵심 인물이다. 전국에서 62명이라는 중견 승려가 화계사로 왔다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영축회 출범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sup>39)</sup> 있어 제시한다.

### 취 지 문

比丘・帶妻 분쟁이라는 치욕적인 法難을 거쳐 새로운 각오 아래 오직 定慧雙修와 理事無碍를 제고하며, 六和의 정신에 입각하여 종단의 전통을 바로 잡고, 현실 타개를 위하여 歴史的인 統合宗團을 이룩한 지도 어언 해를 거듭하여 5개 星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보십시오.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同志愛的 분위기는 사라지고 악의에 찬 派閥造成과 權謀術數와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오늘의 원수를 내일의 동지로 바꾸면서 담벼슬만도 못한 立身 榮達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의 法脈을 끊는 가증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잡한 현실을 방관 내지 동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反省하고 求道心을 발양케 할 자극적인 바탕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청장년 도반으로서 正法에 입각한 義憤과 氣概에 찬 도반스님들의 精進과 宗團 防牌를 위주로 하는 모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道伴은 다음의 날짜에 모여 우선 發起人을 선발하고 다음 진행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8) 이행원은 종단의 총무부장이었다. 문성각은 소요산 자재암의 주지이었는데 그 후 신흥사 주지를 역임한 문성준이다.

39) 『聲準和尚牧牛錄』, 불교시대사, 1999, pp.329-330에 나온다. 필자는 이 자료의 원본은 보지 못하였다.

다 음

장소: 서울 성북구 수유리 화계사

일시: 1967년 1월 20일 오전 11시

文性覺 슴掌

위의 취지문은 영축회 준비위원회의 개최 배경, 모임의 일정을 알리면서 나온 문건이다. 여기에는 정화정신의 소멸, 종단의 부패상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취지문이 문성각의 이름으로 나왔음에서 일단은 준비 단계의 핵심 승려가 문성각임을 알 수 있다. 문성각은 비구축 불교정화운동을 상징하는 1960년 11월, 대법원 난입 사건 당시의 할복 6비구의 일원이었다. 월탄스님은 문성각과 할복 동지이었기에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축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대강의 틀을 정하고, 그를 『대한불교』(1967.2.5) 광고면에 창립 선언문을 게재하였다. 그 광고에는 창립 취지문, 실천강령, 입회 안내가 나와 있다. 우선 창립 취지문의 전문을 제시한다.

영축회(가칭) 창립 취지문

燦然, 佛智의 빛남이여! 茫渺法海의 너그러움이여! 그는 智悲慈雲으로 劫海를 窮盡하고 甘露의 律動으로 有無世間을 熏成하였습니다.

金口一旦 靈鷲에 열릴 때 劫前 맥박은 萬有로 발현하고 劫後의 光輝는 生靈을 示現하였습니다.

오! 不暮의 태양, 靈鷲의 光輝여! 그는 인간과 세계와 역사와 창조를 光明一點에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三千年 광휘의 파동은 靈山을 東으로 西로 振運하여 佛法의 땅 한국은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은 者입니다. 그를 이어 光懂의 상속자가 된 자입니다.

감격과 환희와 용기와 원력은 우리의 生理입니다. 우리는 압도된 환희와

감격에 문혀 오랜 꿈속에 잠겨 있었더니 이제 눈을 뜨고 자신과 四衛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이 現實

永遠과 無限! 自在와 환희, 淸淨과 和음이 光榮과 創造를 구가할 佛子의 세계가 - 이는 어찌된 일입니까!

虛妄과 退嬰, 不信과 我執, 解弛 葛藤으로 얼룩진 이 자신의 현실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를 앞에 놓고 우리들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심하였습니다. 佛子답게 靈鷲高嶺에 깊이 들어가 萬化의 源流에 逍遙하리, 영축의 광휘를 가슴에 안고 勇進의 생애를 내달리리 결심하였습니다.

靈山은 구원자의 동산입니다. 百花爛漫 窮劫을 노래하는 自在者의 마당입니다. 우리는 이제 世尊拈花意를 通身實現하고 이 땅, 이 겨레, 이 종단이 劫外者의 主人되게 하오리-- 이 뜻에서 우리는 이제 영축회를 창립함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 이 때에 낳은 靑壯佛子가 心魂으로 결집하여 靈山大法輪을 自身 삼아 내달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도리켜 생각하건대 위와 같은 우리의 念願 絶叫는 한낱 巨壑에 던져지는 한 방울 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法燈의 一滴油로 自處하고자 하는 것이니 法海의 一滴水가 되는 이 영광된 自覺을 버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원하옵건대 이로써 佛祖의 鴻恩에 豪毛의 값음이라도 되어지이다.

이 창립 취지문에서도<sup>40)</sup> 재정화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함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출범한 영축회의 실천 강령은 아래와 같다.

- ① 우리는 大精進으로 靈鷲拈花를 체달하여 至聖의 命脈을 繼承한다.
- ② 우리는 大和合으로 四衆一身을 도모하고 佛祖大機를 實踐한다.
- ③ 우리는 大協助로 宗團課業에 挺身하여 佛土 건설을 實現한다.

이 광고에는 창립 준비위원 10명의 인명도 나온다. 이들이 영축회를 발기하고, 준비하고, 창립의 제반 문제를 풀어간 주역임은 분명하다.

40) 『성준화상목우록』, p.350에도 나온다.

이행원 문성각 박청하 이진용 송월주 황진경 고광덕 조진몽 허법신  
유월탄

위의 준비위원회에 월탄스님이 나옴을 알 수 있다. 월탄스님은 그 이후 영축회 간부의 일원인 상임위원으로<sup>41)</sup>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영축회의 지성, 행보는 월탄스님의 정신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정화정신의 회복, 제2정화이었다. 그러나 영축회는 출범한지 1년만에 좌초되어, 그 본래의 취지를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는 주역들의 이완, 간부진의 이탈,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 수좌 단체인 선림회 발족 등이 중첩되어 중도하차하였다.<sup>42)</sup> 그러나 여기에서 월탄스님의 정화정신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60년대 월탄스님은 종비생 대표, 영축회 주역으로서 조계종단에서 정화정신이 구현되고 수행하는 종단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충만하였다. 그 이후 월탄스님은 종단의 개혁, 청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식하에 다양한 소임을 보았다. 월탄스님이 1989년 1월 22일, 석림동문회 회장으로서<sup>43)</sup> ‘불교정화 이념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sup>44)</sup>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때 발표된 내용들은 정화운동사 연구에서 기억할 논고이었다.<sup>45)</sup> 월탄스님의 정화종단을 만들려는 귀결은 1994년 종단개혁이었다. 이때 월탄스님은 종단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핵심인 총무원장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 청정, 정화의식은 지속되었다. 그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1998년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에 주도적 참여이었다. 당시 월탄스님은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그 일선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껏 정화개혁회의에 대해서는 학문적, 성

41) 간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 이서용                      수석 부회장 ; 이행원                      부회장 ; 박청하, 김일타  
상임위원 ; 송월주, 이도우, 김태연, 정지천, 황진경, 유월탄, 배도원, 문성각, 오법안

42) 위의 「제2정화운동과 영축회」, pp.443-449.

43) 월탄스님은 1980년 3월 13일, 석림동문회 제1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의 해주 논고, p.79.

44) 『경향신문』 1989.1.24, 「조계종 정화운동 주제 석림동문회 대토론회」. 이 토론회에서 발제한 인물은 벽암, 능가, 월주, 월탄, 지명, 청화 등이었다.

45) 발제된 일부 고찰은 다음과 같다.

능가, 「한국불교정화운동의 제문제」,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중도, 2016.

지명, 「조계종 제2정화(종단 자체정화)의 필연성」,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중도, 2016.

찰적인 접근이 일체 없었다.<sup>46)</sup> 개혁종단, 개혁회의에 대해서는 약간의 연구는 있으나<sup>47)</sup>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자료집 발간, 분석,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추후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여기에서 월탄스님의 정화정신의 지속, 구현 차원에서 정화개혁회의의 정체성만을 살피고자 한다. 즉 월탄스님의 종단관, 수행정신 강조, 정화정신의 구현 등을 발체하려는 것이다. 당시 정화개혁회의(1998.10)는 월하 종정의 교시에서 비롯되었다.

### 教 示

오늘의 종단 현황이 심히 염려되는 바 이에 교시를 내려 본인의 뜻을 밝히고저 하노라.

- 총무원장 삼선은 종헌 종법에 위배되는 바 절대 부당하다.
-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종헌 종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기 바라노라
- 중징계자들을 선별하여 특별 사면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라
- 부처님 근본 계율에 위배된 자(구족계 미 수지자)가 종무를 수행하는 것을 시정하고 청정 승가를 이룩하라.
- 모든 종도들은 불교정화 이념을 되살려 제2정화 불사를 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서 종단을 바로 잡기 바란다.

나의 뜻을 원로와 중진, 본사 주지, 종회의원들과 모든 종도들에게 밝히는 바이니 봉행하기 바라노라.

불기 2542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윤월하<sup>48)</sup>

46) 김광식, 「90년대 조계종단 ‘개혁’의 연구, 회고와 전망」, 『조계종단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증도기획, 2018.

47) 김광식, 「94년 개혁회의 성립과 이념」, 『대각사상』 41, 2024.

\_\_\_\_\_, 「94년 종단개혁의 개요와 성격」, 『세계불학』 6, 2025.

48) 『제2정화를 통해 조계종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화개혁회의, 1999, p.11.

이와 같은 월하 종정의 교시는 제2정화 불사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월하도 1차 정화운동(1954~1955) 당시의 핵심 주역이었다. 월탄은 2차 정화운동(1960)의 주역이었기에, 월하 종정 교시의 뜻을 체득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2정화 불사 선언문의 그 일부를 제시하겠다.

본래 우리 종단은 신구의(身口意)가 화합하는 승가(僧伽)를 바탕으로 수행과 전법, 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삼아 왔으나 작금에 이르러 승단의 화합과 위계가 문란해짐이 극에 달하여 급기야 월하 종정께서 제2정화의 기치로 교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중략)

이에 분개한 우리 사부대중은 현하 종단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종단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종도들의 나아갈 바를 밝히신 종정 예하의 교시를 적극 봉대하여 제2정화 불사의 숭고한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 (중략)

지금부터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제2정화 불사의 이루고자 하는 바는 자명하다. 다시는 우리 종단이 일부 권승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교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참된 수행자가 중심이 되어 종단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으로는 불조의 청정지계와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밖으로는 사회의 정신적 계도에 한층 노력하고자 한다. (중략)

이미 우리 종단은 지난 1954년 한국불교의 참된 선수행 가풍을 면면히 이어온 납자들을 중심으로 승단으로부터 왜색을 퇴치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제1차 정화불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조계종단을 건설한 제1정화의 기치를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국운 융성과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한국불교의 백년대계와 청정승가를 구현함으로써 수행자의 진면목을 되찾기 위한 제2정화불사의 가열한 전개를 굳게 천명하고자 한다.

불기 2542년 11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승려대회 참석 대중 일동<sup>49)</sup>

49) 위의 자료, pp.43-45.

위의 선언문은 1954년 1차 정화불사의 뜻, 정신을 계승하여 수행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다. 이 선언문에 담긴 뜻이 곧 월탄스님의 정신이었다. 수행하는 종단을 만들고, 정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화개혁회의는 좌절하였고, 월탄스님은 종권탐착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매도당하였다.<sup>50)</sup> 그 원인을 여기에서 다룰 여건은 없다.<sup>51)</sup> 그렇지만 정화개혁회의가 지향한 정신은 월탄스님의 정신, 의지이었음은 분명하다. 그 당시 월탄스님은 종단으로부터 중징계(멸빈, 승적박탈)를 당하여,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시련을 겪었다. 2009년에 징계는 풀려 명예회복은 되었으나,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자신이 지향한 그 뜻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스님은 정화 이후 종단을 이렇게 평가했다. “정화정신이 뿌리 깊게 작용하면서 종단을 운영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보다 물질을 우선시 한다. 정화 후 정신을 먼저 심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가람 수호에만 열중하는 우를 범했다. 외형은 커졌는데 정작 참 불교 정신은 희석되고 말았다. 사회가 물질화 됐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할 승가도 덩달아 물질화 되고 말았다. 스님들이 한시바빠 정법으로 되돌아가야한다, 내가 부처되고 모두 부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승려의 출가목적이자 전부이다. 우리 승려들이 국민들에게 참마음을 알려주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곧 선진국이고 인류평화가 실현된다.”(중략)

“나라는 고집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버렸다 버렸다 했는데 이 나이 들도록 버리지 못한게 더 있더라. 그래서 나부터 수행하는 모습 보이고 형식이라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늦바람이 들어 선방에 다니고 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보살 노릇 못하면 쪼그려 앉아라도 있자’는 마음으로 다닌다”며 웃었다.<sup>52)</sup>

50) 『98년 종단 사태의 본질』, 조계종 총무원, 1999.

51)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하권, 통도사, 2010, 「개혁세력의 분열과 정화개혁회의의 등장」.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서언, 결어만을 수록하였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통도사 여론에 의거 본문은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98년 사태의 본질은 개혁의 좌절과 개혁주체의 분열과 해체라고 하였으며, 정화개혁회의의 한계(폭력에 의한 문제 해결)도 지적했다. 이 책의 편찬실장은 남현스님이다.

52) 『불교신문』 2009.12.2, 「지상법석 ; 청주 용화사 회주 월탄스님」.

이렇게 월탄은 정화정신의 후퇴를 아쉬워 하였다. 그래서 자신부터 수행하고자 하였다. 월탄은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전국 각처의 선방에 다니면서 옹골찬 수행을 말년까지 지속하였다. 이런 월탄스님의 성찰, 수행 정신은 2013년 12월, 선학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sup>53)</sup>

선학원은 말 그대로 민족불교의 성지이자 정화불교의 산실이야. 언론에서 한국불교의 정화사를 집중 조명했으면 해. 선학원이 따지고 보면 조계종을 태동시킨 어머니데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근본정화이념을 새로 살려내야 해.

이렇듯이 그는 정화 불사의 산실인 선학원 정체성을 우선 거론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행한 정화운동의 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있음도 발언하였다.

“현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해인사 주지할 때 학인들을 위해 강의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래 학인들을 상대로 정화에 대해서 말해 줬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 이후에 동국대 불교대, 중앙승가대에서도 정화사를 주제로 4시간 동안 풀타임 강의했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친 김에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도 자리를 펴봤고. 특히 운문사 청암사 동학사 등 비구니 학인 6~7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화를 말하는데, 그야말로 피나는 정화의 역사와 현장을 말하니까 울어. 비구니 학인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울더라니까.”

역대 선배스님들이 이뤄놓은 정화의 역사.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후배들에 의해 흐트러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동안거 결제 들어갔잖아요. 법주사 선방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 24~5명 수좌들이 결제에 들었어. 그런데 한결 같이 24~5명 모두가 차를 가지고 오는 거야. 과거 우리는 걸망 메고 걸어 다녔거든. 전혀 다른 수행관념이고 수행문화지. 그렇지만 아무리 현대적 수행관념이라고 해도

53) 『불교저널』 2014.1.1, 「신년특집 - 월탄스님에게 듣는다 ; ‘정화정신 되살려 승가위상 회복하자’」.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비구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야. 세속적 물질에 의탁하게 되면 작년 백양사 도박 사건처럼 세상의 지탄을 받게 돼 있어. 부끄러운 일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지. 한 마디로 정화이념이 소멸되므로 그 옛날 순수하고 소박했던 계율정신과 가풍이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선학원이 오늘날 이 부끄러운 승가의 자화상을 지우는데 역할을 해야 돼. 이러한 내 뜻은 과거 선학원 이사장을 지낸 범행스님에게도 전했었고 정일스님에게도 밝혔어. 정일스님은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출가는 늦게 했지. 대처불교를 척결한 선학원의 저력이 또 필요한 때야.”

이런 조계종단 및 정화운동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는 순회 강연은<sup>54)</sup>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비 하면서, 후학들에게 그를 알리는 정신 교육인 것이다. 그러면서 정화정신의 소멸, 계율정신과 가풍의 후퇴 등을 냉철하게 지적하였다.

스님은 이처럼 목숨을 내걸고 만들어 낸 정통종단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기를 바랐다.

“종헌종법 몇 개 고친다고 종단과 승단이 정화되지 않아. 정화 60년, 우린 어디에 서 있느냐 반문했을 때 시대 탓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반성없이 구호로만 나아가선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해. 조계종 승려라면 최소한 한 달 이상 두문불출하고 냉정하게 참회하는 기간을 가져야 해. 대신에 누구의 잘 잘못이냐 따지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새로이 태어나자는 거지. 최근 승가의 범계는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제방 스님들에게 누를 끼친 일이야. 우리의 개혁은 종헌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으로 바꾸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 안 돼.”

계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스님은 간과하지 않는다. 반면 시대의 정신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54) 『불교신문』 2012,5,2, 「교육원·청담문도회 조계종 출범 특강마련」. 전국에 걸쳐 4회를 예상하였다.

그러면서 월탄스님은 정통종단 조계종의 성찰을 주문하였다. 그는 참회하고, 수행하는 종단이었다. 이와 같은 반성, 성찰, 미래 지향이 월탄의 종단관이라 하겠다. 부연하면 정화정신의 계승, 수행하는 종단이었다.<sup>55)</sup> 이런 월탄스님의 종단관은 아직도 유효한 종단 좌표라 볼 수 있다.

#### IV. 결어

본 고찰의 맺는말은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나아가서 추후 더욱 유의할 초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우선 필자가 서술한 중요 내용을 개선한다.

첫째, 월탄스님은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자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입산 이전의 김유신의 나라사랑 정신의 흠모, 그리고 사명대사의 흠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월탄스님의 정체성은 이상주의에서 시작되어 1960년 10월의 불교정화 운동 당시 할복 사건에서 더욱 고양되었다. 불교정화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 이차돈의 순교정신이 발현되어 할복 6비구로 개념화 되었다.

셋째, 월탄스님의 이상주의와 순교정신은 동국대 제1회 종비생으로 인하여 종단 내의 소장파를 대표하는 승려라는 위상을 부여하였다. 그래서 월탄에게는 선구자, 엘리트, 헌신의 이미지가 부가되었다.

넷째, 월탄스님의 이상주의, 정화정신은 1967년의 영축회 동참으로 지속되었다. 제2정화, 재정화의 기치를 올린 영축회의 동참, 활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기초에서 1989년 정화정신을 재조명한 토론회의 개최도 의미있는 행보이었다.

다섯째, 월탄스님의 정화정신은 1994년 종단개혁, 특히 1998년의 정화개혁

55) 월탄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병문안을 하러 온 법타스님(은해사, 원로의원)에게 조계종단은 수행정신이 퇴보하였다고 개선하면서, 그래서 망했다고 울면서 통탄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입적 10개월 전에 열린 청담스님 열반50주년 추모 세미나(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2021.11.4)에서 청담정신, 정화정신의 후퇴를 회고하면서 종단의 좌표에 진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회의 선도에서 더욱 정점에 도달하였다.

여섯째, 월탄스님은 98년 사태에서는 좌절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제방 선원에서의 정진, 성찰을 하면서 그는 종단이 정화정신이 구현되는 종단, 수행하는 종단으로 나가야 할 좌표를 제시하였다.

이제 추후의 ‘월탄연구’에 유의할 측면을 제시하겠다. 그는 자료 수집을 통한 자료집 발간, 다각적 접근에 의한 연구 추진, 정화운동을 수행한 승려와의 비교 연구 등이다. 필자가 지적한 내용들이 유관(정화운동, 고승, 금오문중 등) 방면 연구자들이 참고하길 기대한다.



[제2발표의 논평]

## 「월탄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을 읽고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한국 현대불교의 발전을 이끈 큰스님, 월탄대종사에 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이다. 발표자 김광식교수님은 한국 근현대불교 연구에 혁혁한 연구 성과를 일궈가고 있다. 그동안 3백 편이 넘는 연구 논문과 50권이 넘는 단행본을 출간하여 한국불교 연구의 지평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열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근현대 고승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를 발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오늘의 이 글, 「월탄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 역시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다. 필자는 스님의 연구에 관한 ‘교두보’를 놓는다는 입장에서 스님의 정체성과 종단관을 고찰하였다. 스님에 관한 기왕의 연구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각종 인터뷰 자료, 신문·잡지 기사 등을 탐색하고 정리한 노력이 돋보인다. 각종 자료에 드러나는 스님의 가치관과 인생관, 종단관 등을 망라한 연구이므로 논평자로서는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 제기할 사항이 없다. 다만 연구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스님의 위상이 널리 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 1. 사명대사의 올바른 이해

월탄스님은 출가 이전에 사명대사를 흠모하여 그와 같이 되겠다고 서원하였다고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명대사는 민족의 위인이다. 대사의 위대한 행보는 현대불교의 유명한 고승들에게 발심 출가의 귀감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대

표적인 학승(學僧)이었던 통광(通光, 1940~2013)스님도 소설 『사명대사』를 읽고 감동받아 출가를 결심하였다고 한다.(통광스님, 「나를 불문으로 이끈 사명대사」, 『월간 해인』 189호, 1997. 11)

그런데 오늘날 사명대사의 위업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을 맞아 민족을 구하기 위해 투신한 의승은 조선시대 억불의 고난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의승장에 대한 국가적 추모사업이 전개되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산 휴정과 사명 유정, 기허 영규 등 의승장의 영웅적, 신비적 서사(敍事)가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사명대사는 불법의 진리로 왜장을 설복시키고, 피랍 동포들을 귀환한 업적이 부각되면서 강화(講和), 즉 평화의 사절단과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즉 사명대사가 일본에 들어가 1,391명의 동포를 귀환시킨 공적에 주목하여 대사를 종전(終戰)을 위한 강화사(講和使)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역사 기록 어디에도 ‘강화’라는 개념은 없다. 대사가 일본에 건너 간 목적은 ‘정탐(偵探)’, 즉, 일본의 정세와 군사력을 파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대사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왜적과는 강화와 교린(交隣)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필사의 항전을 제창하였다. 대사는 “왜적과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지 않겠다.”라며 타협이 아니라 필사의 결전을 주장한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대각국사가 이차돈을 기리는 계송

월탄스님은 1961년, 원담스님의 정화정신 강의에서 대각국사가 이차돈스님을 기리는 계송을 들었다. 이 계송을 듣고 “나도 이차돈과 같이 불교를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결심하고 순교단에 자원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대각국사가 이차돈을 기리는 계송’은 원래 제목은 「염촉사인의 묘를 지나며(過厭觸舍人廟)」이다. 대각국사의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동문선(東文選)』 권19에 수록되어 있다.

천리를 돌아와 사인을 찾으니	千里歸來問舍人
청산은 홀로 서서 몇 봄을 보내었나	靑山獨立幾經春
만일 말세에 불법을 행하기 어려울 때를 만나면	若逢末世難行法
나도 또한 그대같이 몸을 아끼지 않으리	我亦如君不惜身

대각국사의 이 계송은 근현대의 고승들에게 출가자로서의 각오를 되새기는 큰 울림을 주었다. 정화운동에 참여하여 수행가풍을 진작한 향곡(香谷, 1912~1979)스님은 이 계송을 제자에게 글로 써주기도 하였다. (「불교 위해 목숨 바친 이차돈 뜻 이어야」, 향곡큰스님 일화, 법념스님, 『불교신문』, 2015. 8. 24)

출가자의 신분이었지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창검을 손에 든 사명대사, 불법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스님은 공통적으로 중생을 위한 헌신이라는 불법을 실천한 분들이다. 월탄스님은 이러한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지고(至高)한 가치를 출가와 수행의 지향점으로 삼았고, 이를 몸소 실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월탄스님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필자는 이 글을 쓴 목적 중의 하나를 ‘월탄스님 연구의 교두보’ 마련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인터뷰 기사, 회고록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 소개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님에 관한 향후 연구의 진작을 위한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글의 말미에서 언급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스님이 직접 쓴 글, 잡지와 신문 등의 기고문, 석림회 회장, 조계사·법주사 주지, 종회의장,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남긴 법문, 회의록, 도반과 문도 등에게 남긴 편지글 등 다양한 자료를 파악한다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의 탐구는 월탄스님 연구는 물론, 현대불교의 분수령이었던 정화운동의 구체적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4. 각주 교체

각주 8)에 “월탄스님이 동국대 대학원에서 ‘서산사상’을 연구한 것도 여기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룡당 월탄대종사 탐비」 참고”라고 하였다.

이 전거를 ‘유찬수(柳贊秀), 「西山思想 研究」,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로 교체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3발표]

# 월탄대종사의 정화운동과 종단개혁

김경집  
(동국대 연구교수)

I. 서언
II. 불교정화운동 전개와 비구 측 난관
1. 불교정화운동 시작과 양측의 갈등
2. 司法的 난관과 대처 측 사찰 强占
III. 월탄 대종사 할복 決行과 종단건립
1. 월탄 대종사의 할복 결행과 추이
2. 정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종단건립
IV. 결어

## I. 서언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되자 비구 측은 수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기세가 대단히 높았다. 일제강점기 정체성이 무너진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측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격한 나머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55년 8월 11일 제5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서 가결된 승려대회를 계기로 큰 흐름이 비구 측으로 넘어왔다. 위기감을 느낀 대처 측은 사법적 소송으로 이를 타개하려 하였다. 대처 측이 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항소한 비구 측이 승소하였다. 대처 측 상고로 대법원판결이 남게 되었다.

1960년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의 하야는 비구 측의 또 다른 역경이었다. 정치적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오판한 대처 측은 그동안 양도하였던 사찰을 강제로 점유하면서 분쟁의 골이 깊어졌다.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찰 재원이 사라지고, 불교의 종교적, 사회적 가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갈등 속에 사법적 최종 결정인 대법원판결이 1960년 11월 24일 예정되었다. 비구 측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불교정화운동이 물거품이 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 11월 19일 조계사에서 제2차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때 월탄 대종사를 비롯한 5인의 비구가 순교할 각오로 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대처 측 승소로 판결되자 6명의 비구는 불교정화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하며 대법원에서 할복을 결행하였다. 이 행동이 세간에 알려지자 진정한 순교의 자세라는 평가와 함께 수행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여러 견해에도 불구하고 월탄 대종사의 할복은 사법적 결정에 따라 불교정화운동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대의를 살리려고 자행한 행동이었다.

그와 같은 결단으로 비구 측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고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1962년 3월 25일 마침내 비구 측 주장이 담긴 종헌이 제정되고 그에 의해 4월 통합종단이 출범하였다.

그런 점에서 월탄 대종사의 할복은 불교정화운동사의 전환점이라고 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할복이 일어난 전후 관계를 살펴 월탄 대종사가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의 결행이 불교정화운동의 종결과 종단 설립에 기여한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불교정화운동 전개와 비구 측 난관

## 1. 불교정화운동 시작과 양측의 갈등

1952년 봄 수좌 대의의 수행도량 요구에 이어 1953년 10월 선학원 조실 금오의 수행도량 요구가 있었다.<sup>1)</sup>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불교에 의해 한국불교의 고상함이 모두 말살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친일 승려들은 사찰 토지를 반환하고 사찰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1차 유시를 발표하였다.<sup>2)</sup>

이런 분위기에 고무된 비구 측은 6월 24일 비구승들은 본격적인 정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불교정화추진발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금오, 부위원장 적음을 선출하였다. 25일에는 서울에 있는 비구승들이 모여 교단 정화운동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금오를 선출하였다. 위원장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수행자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구승대표자대회를 계획하였다.

1954년 8월 24-25일 제1차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sup>3)</sup> 첫째 날 종헌 제정위원과<sup>4)</sup> 대책위원을 선출한 후 교단 정화와 도제 양성 그리고 총림 창설 등 교단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다. 둘째 날 전형위원 7인을 호선한 후 그들이 선출한 제헌위원에게 종헌 제정을 일임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 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추진위원 15명을 선출하였다.<sup>5)</sup> 비구측의 중요한 방향이 설정되자 당시 언론들도 이를 지지하는 기사를 실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sup>6)</sup>

비구 측은 제2차 전국 비구승·니 대회를 소집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며 언론을 통한 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세간의 언론도 대처육식을 비난하

1) 금오선수행연구원 편,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1,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p. 86.

2) 『태고종사』, 종단사간행위원회, 2006, pp.248-250.

3) 『조선일보』 1954. 08. 26.

4) 종헌제정위원 9명은 효봉, 동산, 금오, 청담, 인곡, 성철, 석호, 향곡, 월하이다.

5) 금오선수행연구원 편,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1,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pp. 108-110.

정화대책위원은 효봉, 동산, 금오, 금봉, 인곡, 적음, 자운, 보경, 향곡, 일조, 성철, 홍경, 보문, 석호, 청담 등 15명이었다.

6) 『자유신문』 1954. 09. 17.

는 기사를 게재하며 불교계 정화 운동의 타당성을 옹호하였다.<sup>7)</sup>

1954년 9월 28-29일 제2차 전국비구승·니 대회에 제헌위원 9인과 대중 146명이 참석하였다. 새로운 조계종 종회를 설치하고 50명의 종회 의원을 선출한 후 준비한 종헌을 통과시켰다. 각부 임원의 선출과 새로운 조계종 헌장에 의한 교단 정리 및 도제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sup>8)</sup> 대회를 취재한 연합신문은 대처승을 제적하라는 강경한 제목으로 비구승·니의 주장을 실어 점차 정화 운동의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sup>9)</sup> 비구 측 움직임을 지켜본 대처 측도 9월 29일 태고사에서 중앙교무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1954년 11월 5일 비구승 80여 명이 태고사에 들어가 조계사 및 조계종 중앙총무원 현판을 교체하였다. 17일 학생복을 입은 수십 명의 청년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와 현판을 떼다가 이를 저지하는 비구승과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비구승 도견, 경우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혜철, 선길, 혜조, 희찬 등 4명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sup>11)</sup>

대처 측은 다시 태고사 현판을 걸며 11월 20-24일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비구 측 움직임을 대응하였다. 그들이 모색한 것은 종권을 비구승들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비구승은 정화 운동을 주도하는 비구승들이 아니라 대처승들과 함께 수행해 온 비구승들이었다. 이런 행동에 비구 측은 대처승을 호법승으로 받아들이는 유화책인 호법 대중의 등록 청원 촉구 공고를 언론에 배포하는 한편 12월 10-13일 제3차 전국비구승·니 대회를 개최하였다.<sup>12)</sup>

불교정화운동이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자 정부도 이를 수습하기 위해 1954년 12월 22일 비구승과 대처승 모두를 인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7) 금오선수행연구원 편,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1,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pp. 130-131.

8) 「평화신문」 1954. 09. 30.

9) 「연합신문」 1954. 09. 29.

10) 「평화신문」 1954.10.11, 「연합신문」 1954.10.12.

11) 「조선일보」 1954. 11. 19.

12) 금오선수행연구원 편,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1,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pp. 192-196.

비구 측은 12월 25일 종단 내에 대처승을 인정하지 않는 정화추진대책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955년 1월 문교부와 내무부 공동으로 ‘불교정화수습대책위원회’를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앞서 양측을 인정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부의 방향에 비구 승 40명은 1월 29일 문교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 유시에 입각한 불교 정화 방안이 나오기까지 단식농성을 하였다.<sup>13)</sup> 그런 노력으로 1월 31일 비구승·니 자격 심사 원칙으로 첫째 사바라이 죄를 짓지 않은 자, 둘째, 수도(修道)를 본위로 하는 자, 셋째 1955년 1월 31일 현재 소급하여 3년 이상 수도원 수행자, 넷째 독신승이라도 세속의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규정할 수 있었다.<sup>14)</sup> 이 규정은 내무부와 문교부에서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첫째, 사바라이 죄를 짓지 않은 자. 둘째, 수도를 본위로 한다. 셋째, 3년 이상 수도하고 20세 이상인 자. 넷째, 비불구자. 다섯째, 삭발, 염의지계자로 규정되었다.<sup>15)</sup>

이런 기준이 정해지자 1955년 2월 4일 비구 측, 대처 측 각 대표 5인으로 구성된 불교정화수습대책위가 문교부 장관실에서 열렸다.<sup>16)</sup> 이들은 사회적 인식과 불교계 희생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주지승 자격을 삭발, 염의, 독신, 수도, 비불구(非不具), 부주육초(不酒肉草), 단체생활(3인 이상), 25세 이상 등 8대 원칙에 합의하였다.<sup>17)</sup>

비구 측은 문교부와 내무부 장관에게 8대 원칙에 맞는 승려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여기에 합당한 승려 1,189명이 발표되었다.<sup>18)</sup> 그러나 8대 원칙 가운데 독신 조항에서 불리한 대처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구 측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 원칙에 맞는 승려가 참가하는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려 하자 소요를 우려한 문교부와 내무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5월 18일 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찰정화대책연석회의에 비구, 대처 측

13) 「서울신문」 1955. 01. 29.

14) 금오선수행연구원 편,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1,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pp. 231-232.

15) 「조선일보」 1955. 02. 05.

16) 비구 측은 효봉, 청담, 인곡, 월하, 경산, 대처 측은 권상로, 임석진, 송병영, 김상호, 이화응이 참여하였다.

17) 「경향신문」 1955. 02. 06.

18) 『불교정화분쟁자료』(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권68), 민족사 1996, p. 84.

대표와 문교부 장관, 문교부 문화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등이 참가하였다. 앞으로 구성될 사찰정화대책위원회는 양측 대표 5인으로 구성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을 채택하며 可否 동수일 경우 문교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는 내용을 논의하였다.<sup>19)</sup> 5월 20일 비구 측은 대책위원을 선출하고 그 명단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처 측은 문교부를 방문하여 기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제안을 거부하였다.<sup>20)</sup>

여러 차례 전국비구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비구 측 요구를 문교 당국이 인정하지 않자 6월 9일 비구승 200여 명이 조계사에서 묵언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6월 10일 새벽 대처승 300여 명이 단식하고 있는 비구승들을 기습하여 30여 명이 중, 경상을 입었다.<sup>21)</sup> 이런 대처승들의 행동에 분개한 지효는 맞아서 죽기보다 스스로 할복하겠다고 지니고 있던 칼로 자신의 배를 세 번 찔러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다.<sup>22)</sup> 이 일로 대처승 가운데 폭력 주모자 50명이 종로서에 연행되었다. 11일 28명이 재판에 회부하고 11명이 구속되었고, 이어 12일에 8명이 재판에 추가로 회부되었다.<sup>23)</sup>

갈등을 지켜보던 문교부는 양측의 공식 대표 5인을 위원으로 하는 사찰정화대책위원회 개최를 주선한 후 여기서 정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하였다. 대처 측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안을 받아들이게 되어 양측은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하였다.<sup>24)</sup>

1955년 7월 13일 오후 2시 제1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문교부 차관실에서 개최되었다. 양측 10명의 대표와 이선근 문교부 장관, 문교부 문화국장, 내무부 치안국장이 참여하였다. 제1차 회의는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9) 「경향신문」 1955. 05. 19.

20) 「자유신문」 1955. 05. 25.

21) 「동아일보」 1955. 6. 19.

22) 도광, 「정화일지」 『한국불교승단정화사』, 대보사 1996, p. 408.

23) 「동아일보」 1955. 06. 14.

24) 「조선일보」 1955. 07. 03.

비구 측 대표: 정금오, 이효봉, 이청담, 윤월하, 손경산. 대처 측 대표: 김상호, 정봉모, 이화용, 국묵담, 박대륜.

1955년 7월 14일 오후 2시 40분 제2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태고사 법당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비구 측이 주장한 종회 의원 선거와 대처 측이 주장한 주지 선거가 팽팽하게 맞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1955년 7월 15일 오후 3시 제3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태고사 법당에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는 종회 의원 선거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개최가 논의되어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5표, 기권 3표로 나왔다. 비구 측은 대회 소집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고 대회 일자, 장소, 대회 소집자 명의의 결정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태고사 법당에서 개최하고, 소집 명의를 대책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일정은 청담에게 일임하였다. 그러나 대처 측은 자신들은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한 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55년 7월 16일 오후 2시 50분 제4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태고사 법당에서 개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7월 18일 개최될 5차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양측은 각자 문교부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방안을 주장하였다. 비구 측은 대책위원회 명의로 전국승려대회 소집을 통보하였고, 대처 측은 앞으로 회의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sup>25)</sup>

7월 19일 앞서 7월 15일에 있었던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전국 독신승대회 소집안이 사찰정화위원회 의장 청담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sup>26)</sup> 8월 1일부터 5일까지 조계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문교부는 표결 절차를 문제 삼아 허가하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비구승들은 8월 2일 오전 10시 당국의 허가 없이 대회를 강행하였다. 대회에서 58명의 중앙종회 의원 후보자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전국 사찰 주지의 선출, 종헌 수정, 중앙간부 선출, 그리고 종단 운영상의 인사 관계 등 4개 항목과 불교 정화를 위한 일체 사무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전기 중앙종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20여 명의 사복 경찰이 대회를 제지하려고 하자 구산이 정화의 강력한 추진과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를 혈서로 썼다.<sup>27)</sup>

25) 김광식, 「사찰정화대책위원회의 개요와 성격」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p. 468-484.

26) 「연합신문」 1955. 07. 18.

27) 김경집, 「구산 수련의 정화와 결사운동」 『선문화연구』 제16집, p. 446.

1955년 8월 11일 문교부 장관, 내무·문교 관계자, 비구 측 대표 5명, 대처 측 대표 4명이 참석한 제5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 건이 7대 1로 가결되었다. 그로 인해 12일 상오 10시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되었다.<sup>28)</sup>

이 대회에서 기존 총무원 및 산하 기관장 해임, 종회 의원 선거, 종헌 개정 선포, 종단 사무 인계, 신임 집행부 선출, 주지 선거 등이 진행되었다. 이때 50여 명의 종회 의원과 623명의 주지, 그리고 총무원의 새로운 집행부로 종정 薛石友, 총무원장 李靑潭, 총무부장 金瑞雲, 교무부장 申素天, 재무부장 朴淇宗, 감찰부장 鄭金烏, 감찰부원장 金智曉가 선출되었다.<sup>29)</sup>

새로 임명된 주지들은 지정된 사찰로 돌아가 대처승으로부터 종단 업무의 인수를 결의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존속했던 대처 측 총무원은 해체되는 동시에 비구승 측에 전국 사찰의 주지 임명권과 재산관리권이 부여되었다.<sup>30)</sup>

## 2. 司法的 난관과 대처 측 사찰 强占

위기를 느낀 대처 측은 1955년 8월 12일에 있었던 전국승려대회 결의 및 불교정화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은 1956년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정되었다. 그러자 비구 측 대표 청담은 6월 21일 불복 공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sup>31)</sup>

서울지법 판결로 대처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비구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처 측과는 어떠한 타협도 필요 없다고 거절하였다. 대처 측은 판결에 따라 작년 이전의 사태로 환원된 것이므로 그동안 비구 측에게 양보한 일부 사찰과 재산을 도로 찾겠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1956년 7월 27일 서울지방법원은 대처 측이 비구 측을 상대로 한 宗權 반환과

28) 「동아일보」 1955. 08. 13.

29) 「경향신문」 1955. 08. 14.

30) 김경집, 앞의 논문, p. 447.

31) 「동아일보」 1956. 06. 22.

32) 「조선일보」 1956. 07. 23.

태고사 명도신청을 결정하였다. 그 결정문을 보면 ‘비구승 측은 총무원 宗政과 조계사 종무의 직권 행사를 정지하고 대처승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시킨다. 태고사의 부동산을 비구승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대처승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결정으로 28일 태고사 모든 건물이 명도되어 법당에 봉인이 붙여지고 봉쇄되면서 비구 측이 다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sup>33)</sup>

조계사를 점거한 대처 측은 태고사로 현판을 복구시키고 30일부터 종무를 개시하였다. 태고사를 비롯한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등 3대 사찰과 30개 본사의 운영권을 장악한 후 주지를 배치하였다. 조계사에서 물러난 비구 측은 30일 전국 각처에 있는 비구승·니에게 급거 상경하도록 통보하였다. 관계 당국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절충하지만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다시 농성과 단식투쟁을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sup>34)</sup>

8월 3일 오후 2시를 기해 대처 측은 조계사 법당과 부속 건물에 입주를 강행하였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다음날 4일 오후 5시경 원로 7명과 수행원 3명이 돌연 입주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기 중인 비구 측 신도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총무원장 임석진이 졸도하는 혼란이 일어나자 6시 50분경 조계사 경내에서 물러났다.<sup>35)</sup>

8월 6일 비구 측 총무원장 청담은 문교부에 가서 법원 측의 조치에 대하여 공탁금을 걸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sup>36)</sup> 8월 14일 비구 측과 대처 측의 조계사 명도 소송 사건 1심이 비구 측 승소로 판결되었다. 그 결정으로 조계사는 다시 비구 측이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sup>37)</sup> 15일부터 비구 측은 경찰의 경호 없이 조계사에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게 되었다.<sup>38)</sup>

문교 당국은 비구, 대처 양측이 연달아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법정 투쟁을 끝낼 수 있는 최종의 노력으로 9월 5일 봉은사에서 대처 측 비구승을 포함한 원로

33) 「동아일보」 1956. 07. 30.

34) 「조선일보」 1956. 07. 31.

35) 「동아일보」 1956. 08. 06.

36) 「경향신문」 1956. 08. 07.

37) 「조선일보」 1956. 08. 15.

38) 「동아일보」 1956. 08. 16.

비구승회의를 계획하였다. 비구, 대처 쌍방이 제기한 소송 비용은 사찰 재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국이 보호하여야 할 사찰 재산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대표 원로 비구승의 의견을 종합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sup>39)</sup>

정부의 의도와 달리 비구 측 총무원장 청담은 4일 성명서를 통해 5일 봉은사에서 문교부 주선으로 개최 예정인 원로비구승회의에 불응하였다. 작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는 합법적인 것이므로 문교 당국이 양측 의견을 종합하는 원로비구승회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sup>40)</sup>

1957년 6월 4일 비구 측은 조계사에서 제2회 정기 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956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종권 확인 소송에서 대처 측이 승소한다면 비구승 전원은 국법으로 극형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무원을 양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이유는 대처 측이 대통령 유시에 의하여 종권을 포기하고 비구 측에 양도하겠다는 서약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비구 측은 그 문서를 증거품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문교부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비구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sup>41)</sup>

걱정과 달리 1957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sup>42)</sup> 이 결과에 대처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사법적 분쟁은 최종심까지 가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해 양상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었다. 양측이 승소할 때마다 임명된 주지는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였고, 이때 동원된 신도 간의 충돌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1958년 6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군 진관사에서 대처승과 비구승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 비구승 측 신도 5명이 중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39) 「동아일보」 1956. 08. 30.

40) 「동아일보」 1956. 09. 05.

41) 「조선일보」 1957. 06. 07.

42) 「조선일보」 1957. 09. 19.

전 진관사의 주지였던 대처승 김경봉은 5월 자신이 해직되고 비구승 도연종이 이곳 주지로 오는 것을 반대하여 6일 자신을 지지하는 60여 명의 부락민을 동원하여 도연종 측 신도들을 마구 구타하였다. 다음날 7일에도 그와 같은 폭행을 자행하여 신도와 승려 5명에게 중상을 입혔다.<sup>43)</sup>

폭력에 앞장섰던 대처승은 朴文植 외에 奉京鍾, 韓文學, 李德珠, 金熙子 등 5명이었고, 이들은 비구승 金甫園 외 3명을 집단 구타하여 전치 2일 내지 1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구속된 후 1959년 3월 4일 징역 6월을 구형받은 후<sup>44)</sup>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다.<sup>45)</sup>

대처 측 사찰 强占은 서울 근교만이 아니었다. 지방에서도 대처승의 폭력과 사찰 강점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58년 11월 7일 백양사에서 대처승 40여 명은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사찰 점유권이 비구승 측으로 넘어가자 이에 분격하여 비구승 정경운 외 1명을 장작으로 집단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sup>46)</sup>

이런 물리적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본 백양사의 경우 폭력에 동원되는 인원도 증가하였고, 흥기가 동원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12월 9일 이곳에는 30여 명의 대처승이 지내고 있었다. 비구 측에서 주도권을 빼앗으려 흥기를 지닌 3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백양사를 점령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함께 지내라는 중재 후 대처승들은 13일 오후 1시경에 대처승 20여 명을 몰고 와서 다시 백양사를 점령하였다. 이후 대처승은 비구승을 상대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파괴’ 등의 죄목으로 광주지검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15일 광주지법은 쌍방 대표를 호출하여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쌍방의 요구조건이 합치되지 않아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sup>47)</sup>

재원이 많은 사찰의 경우 대처승들의 저항이 거셌다. 재산 3억 환이 넘는 청도 운문사의 경우 1957년 비구 측이 접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

43) 「경향신문」 1958. 06. 10.

44) 「동아일보」 1959. 03. 05.

45) 「동아일보」 1959. 03. 12.

46) 「조선일보」 1958. 11. 09.

47) 「동아일보」 1958. 12. 17.

나 1959년 1월 29일 대처승 金尙永이 비구 측 주지 金守仁을 대구지법에 제소하고 사유재산 일체를 가차압하고 주지 직권 정지 처분까지 단행하였다.<sup>48)</sup>

이런 폭력과 고소로 인해 쌍방의 소송비가 증가하면서 불교 재산의 낭비가 이어졌다. 비구 측과 대처 측 간에 유혈의 소동이 있었던 1958년 7월 이후 1959년 7월까지 양측은 종권 장악을 위한 소송이 이어졌다. 문교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9년 7월 현재 대처 측에서 비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55년 8월 비구 측이 소집한 '전국승려대회 소집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비롯해 69건에 달하였다. 비구 측이 패소하여 항고한 건수가 10건이나 되었다. 이런 사법적 갈등으로 인해 소송 비용으로 불교 재산 수천만 환이 탕진되었다.<sup>49)</sup>

소송과 사찰 강점으로 혼전을 거듭하던 정화 운동은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처 측은 4월 26일 이승만의 사임으로 비구 측을 지원하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인식하였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우세를 앞세워 사찰을 강제 점거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 것이다.

1960년 4월 30일 부산 시내의 大覺寺 비구승 李度一 외 1명은 부산지구 계엄사무소를 찾아 지난 27일 대처승 20여 명이 폭력배와 함께 절을 점거하였으니 이를 의법 처단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대처승들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에 의해 불법적으로 축출되었으니 다시 자신들이 사찰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비구승들은 대통령 유시는 개인 자격으로 발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 적법한 행정 행위이므로 아직도 유효하다고 항변하였다.<sup>50)</sup>

이런 양상이 심화되면서 사찰에서 물러났던 대처승들이 비구승을 강제 축출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1960년 5월 2일 현재 화암사, 서남사, 천은사 3개 사찰이 대처승에 의해서 접수되었고 해인사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sup>51)</sup>

부산 범어사의 경우 5월 1일 대처승 70여 명이 몰려와서 비구승들에게 사찰

48) 「동아일보」 1959. 02. 08.

49) 「동아일보」 1959. 07. 12.

50) 「동아일보」 1960. 05. 01.

51) 「조선일보」 1960. 05. 03.

운영권을 요구하였다. 비구승 측도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죽창을 준비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였다. 대구 能仁중학교 교장 金永煥의 경우 4월 27일 학생 50여 명을 이끌고 시내에 있는 大安寺, 大城寺, 普賢寺를 습격하여 이승만 부패정권하에서 점유한 사찰을 환원하는 양도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협박하였다. 응하지 않자 비구승 金鍾元 외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sup>52)</sup>

인력의 부족으로 대처승의 폭력을 상대하기 어려운 비구승은 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5월 대처승에 의해 화엄사에서 쫓겨난 비구승 15명은 지역 계엄사무소와 경찰국을 방문하고 자신들의 복귀를 호소하였다. 이어 12일에는 경찰국장과 사찰과장의 지원을 얻어 직접 화엄사에 가서 대처승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sup>53)</sup>

6월 5일 상오 대구 남산동에 있는 應圓寺 대처승과 신도 60여 명은 대안동에 있는 비구승 사찰 대안사를 습격 점거하였다. 이 소동은 군인이 출동하여 진압되었다. 그리고 쌍방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군의 주선으로 협상하였다. 그러나 대처승 측이 무력으로도 사찰을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였기 때문에 난항이었다.<sup>54)</sup>

시간이 지나면서 대처승의 사찰 강점은 점점 확대되었고 방법도 더욱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6월 2일 경남 하동의 대처승 윤기원은 비구승을 축출할 목적으로 성문, 목압, 용강 등 3개 부락 주민 약 3백여 명을 책동하여 쌍계사를 불법 점거하였다. 비구승 윤광호 외 15명을 묶고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현금 및 서류 등을 탈취하였다. 급보에 접한 마산 계엄 당국은 7일 저녁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시켜 주모자 윤기원 등 8명을 검거하여 경찰에 이첩하였다.<sup>55)</sup>

### Ⅲ. 월탄 대종사 할복 決行과 종단건립

52) 「동아일보」 1960. 05. 03.

53) 「동아일보」 1960. 05. 14.

54) 「조선일보」 1960. 06. 06.

55) 「조선일보」 1960. 06. 09.

## 1. 월탄 대종사의 할복 결행과 추이

1960년 11월 24일 예정된 대법원판결은 비구 측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비구 측은 11월 17일 오후 조계사에 모여 전국 비구승 승려대회 예비 회의를 열어 19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대처승을 축출할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sup>56)</sup>

11월 19일 조계사에서 불교정화를 위한 제2회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승려대회가 열렸다. 비구 측은 사법부에서 정의를 무시하고 대처육식하는 속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하는 오판을 할 경우 모든 비구승과 비구니들은 일제히 순교 항쟁에 돌입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sup>57)</sup>

월탄 대종사는 전국승려대회에 해인사 대표로 참여하였다. 대회에서 청담은 불리한 판결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생각하였다. 젊은 승려들에게 “우리 1600년의 전통불교를 살리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들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임진왜란 때도 구국했는데 오늘 정법불교를 이렇게 말살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사는 보람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 생명을 아끼지 말고 정법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발심을 하자.”고 설득하였다. 그의 말에 문성각(文性覺) 김도헌(金道憲) 정성우(鄭性愚) 유월탄(柳月誕) 권진정(權眞靜) 이도명(李道明) 6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대처 측이 승소할 경우 순교하겠다고 결의했다.<sup>58)</sup>

전국승려대회를 마치고 비구승 7백여 명과 신도 2백여 명은 ‘불법에는 대처승 없다’, ‘대처승은 정화에 순종하라’, ‘사원을 요정화 하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중앙청 앞에서 남대문, 을지로, 동대문을 돌며 24일에 있을 대법원판결에서 비구 측 승소를 호소하였다.<sup>59)</sup>

비구 측 행동에 대처 측 총무원장 朴大輪은 담화를 통해 비판하였다. 24일 있을 대법원판결에 대항하기 위해 비구 측은 여러 가지의 난동 행위를 꾀한다. 그들은 국회의원을 조정하여 대법원의 공정 판결에 저항하고, 3.15 부정선거에 집

56) 「조선일보」 1960. 11. 18.

57) 「동아일보」 1960. 11. 20.

58) 「순교를 결심한 육비구의 할복 사건」 『고경』 제139호(2024. 11), <http://songchol.com/bbs/board>.

59) 「동아일보」 1960. 11. 22.

단협력한 죄악을 음폐하기 위하여 승려대회라는 명목하에 선량한 승도를 구사하여 데모 난동 등을 획책하는데 이는 반민주 반혁명의 대역적 망동이라고 지적하였다.<sup>60)</sup>

올바른 대법원판결을 기원하는 비구승들의 움직임은 지방에도 있었다. 22일 오후 부산 각 사찰에서 공부하거나 사찰을 운영하는 비구승과 비구니 3백여 명은 ‘불법에는 대처승 없다’,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부산 시내 광복동과 중앙동 일대를 행진하였다. 이어 시내 일간 신문사와 행정당국을 방문하고 비구승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격심한 분규가 거듭되고 있는 불교계 정화를 위해서는 비구승이 사찰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것은 오직 석가의 계명이라 주장하였다.<sup>61)</sup>

판결이 임박한 11월 23일 새벽 4시부터 비구승 7백여 명은 조계사에서 ‘불법에는 대처승 없다’, ‘사찰은 비구승의 수도장이다’ 등의 격문을 내걸고 사법부는 불교 정화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석가여래의 제자라는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대한불교 조계종 제2회 전국승려대회 이름으로 배포하였다.<sup>62)</sup>

23일 비구 측 단식투쟁 하는 곳에 ‘한국불교의 주도권이 대처식육하는 속인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불법 오판이 있을 때는 정의의 순교 항쟁에 돌입한다’ 격문이 나붙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검찰은 24일의 대법원판결 후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서 법원 주위에 대한 경비를 시경에 지시하였다.<sup>63)</sup> 23일 오후 비구 측의 청담은 裴廷鉉 대법원장 대리를 방문하였다. 이때 수행한 비구승이 短刀를 꺼내 대법원장 앞에서 할복자살하는 꼴을 보아야 하겠는가 하자 이를 말리는 비서관들과 실강이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sup>64)</sup>

11월 24일 신도들은 새벽 6시부터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8시경부터 2백여 명의 경비 경관이 법원의 앞문과 뒷문에서 진을 치고 불교 신도들이

60) 「동아일보」 1960. 11. 20.

61) 「동아일보」 1960. 11. 24.

62) 「동아일보」 1960. 11. 24.

63) 「경향신문」 1960. 11. 24.

64) 「조선일보」 1960. 11. 24.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자 이를 뿌리치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판결 예정 시간인 11시 10분 전 경비진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안에 있는 신도들을 모조리 밖으로 밀어냈다. 경비 경관과 신도들이 옥신각신하였고, 대한 불교학생회는 ‘우리나라 불교사에 오점을 남길 판결은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다.<sup>65)</sup>

24일 상오 11시 대법원 민사 1부는 대처승과 鞠聲祐가 제기한 1955년 8월의 사찰정화대책위원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 당사자 자격 규정에 있어서 법률상 오류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57년 9월 17일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sup>66)</sup>

대법원판결이 비구 측 패소로 결정되자 24일 오후 6명의 비구는 미리 준비한 검은 작업복을 입고 안주머니에 칼을 숨기고 대법원 청사로 향했다.<sup>67)</sup>

오후 3시 20분경 대법원장 비서실에 들어가 이날 재판장인 高在鎬 대법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번 판결이 비구승에게 불리하든지 판결을 연기하든지 혹은 고법으로 보내든지 한다면 또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싸움을 또 해야 한다면 싸우면서 修道를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비서관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다고 하자 모두 5치가량 되는 粧刀로 배를 찔러 피가 낭자한 채 대법관 만나게 될 때까지 물러가지 않는다고 버텼다. 그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 도현은 갑자기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고 다른 비구들은 선 채로 정의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외쳤고, 이어 대법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비서관들은 칼을 빼고 대법관들을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타일렀으나 듣지 않았다. 서대문 경찰서장은 정사복 경관을 동원 비서관실로 뛰어 들어가 배에 꽂힌 칼을 뽑지 않으면 강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비구승들이 말을 듣지 않자 몽둥이를 휘두르고 의자를 던져 제압한 후 경찰구호반이 들 것으로 수도의대 제

65) 「경향신문」 1960. 11. 24.

66) 「동아일보」 1960. 11. 25.

67) 「순교를 결심한 육비구의 할복 사건」 『고경』 제139호(2024. 11), <http://songchol.com/bbs/board>.

2 부속병원으로 옮겼다.

6명의 비구승이 할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백여 명의 비구승들이 대법원으로 몰려와 소리를 지르면서 법원 청사 안을 내달려 소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대법원장실로 억지로 들어가려는 승려와 이를 제지하려는 법원 직원 및 경찰관들 사이에 실강이가 벌어졌다. 2, 30분이 지나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몽둥이로 위협하며 법원에서 물러가라고 지시하였다.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승려와 신도들이 저항하자 강권을 발동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대법원 청사 안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었다.

4시 12분경 승려들과 경찰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맞섰다. 6, 70명의 승려가 3층에서 연좌하였고, 다친 10여 명의 승려가 복도에 있었다. 현관 밖에서는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승려와 이를 막으려는 기마대를 비롯한 경찰이 비를 맞으며 대치하였다.

4시 50분경 청담이 도착하여 불도에 몸 바친 사람으로서 가질 태도가 아니라고 타일러 모두 1층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청담은 경찰에게 6명의 비구가 할복할 무렵 어느 대법관이 승려 가운데 한두 명 죽으면 어떠냐는 말에 젊은 승려들이 흥분하여 몰려온 것이며, 승려 몇 사람이 모두 할복했다기에 우리도 따라서 순교하자고 여기에 온 것이라 설명하였다.<sup>68)</sup>

25일 상오 서울시 경찰국은 조사 중이던 비구승 236명, 비구니 93명, 그리고 여자 신도 4명 등 모두 333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혐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 주모자급 13명, 법원 청사 내로 난입하여 기물 손괴 등에 가담했던 자 156명, 법원 청사 밖에서 경찰관과 충돌했던 자 160명이었다. 혐의가 없는 2명은 곧바로 풀려났다.<sup>69)</sup>

조계사에 모였던 비구승 약 1천 명은 25일 단식투쟁을 끝냈다. 이어 26일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구속된 승려 133명을 석방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sup>70)</sup> 28일 서울시경은 각 경찰서에서 대법원 난입 사건에 가담한 비구

68) 「조선일보」 1960. 11. 25.

69) 「조선일보」 1960. 11. 25.

70) 「동아일보」 1960. 11. 27.

승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고 구속 송청하라고 지시하였다.<sup>71)</sup>

경찰은 구속된 비구승 가운데 청담을 대법원 할복과 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았다.<sup>72)</sup> 그러나 12월 1일 오후 서울지법은 청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한 끝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해제하였다.<sup>73)</sup> 그리고 법원 광장에서 연좌데모를 하는 비구승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고 선동한 책임자로 華溪寺 주지 行願을 지명 수배하였다. 30일 오후 貞陵 근처에 있는 新興寺를 비롯하여 행원이 은신할 만한 여러 곳을 급습하였으나 체포하지 못하였다.<sup>74)</sup> 지방 사찰에서 은신하였던 행원은 12월 7일 오후 서대문 경찰서에 출두한 후 법원 청사 내의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8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청되었다.<sup>75)</sup>

대법원에 난입한 비구승 가운데 주모자 24명은 특수건조물 침입 및 특수 공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날 기소되지 않은 307명은 모두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sup>76)</sup>

1961년 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지법에서 24명에 대한 첫 공판이 개정되었고,<sup>77)</sup> 이어 31일 오전 검찰은 24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였다. 文炳述 징역 2년, 權泰鉉 징역 2년, 柳贊秀 징역 2년, 鄭性禹 징역 2년, 李成燮) 징역 2년, 金惺天 징역 1년, 崔圭泰, 權寧識, 洪在浩, 金鍾萬, 朴容煥, 崔武甲, 羅正煥, 崔甲成, 李憲哲, 朴淳萬, 鄭根培, 朴正能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6월, 金博文, 金正年, 金學祚, 崔福允, 朴守根, 金道憲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었다.<sup>78)</sup> 이 가운데 할복을 결행하였던 6명의 비구는 文炳述(성각), 權泰鉉(진정), 柳贊秀(월탄), 鄭性禹(성우), 李成燮(도명), 金道憲(도헌)이다.

2월 7일 오전 서울지법은 24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전 피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이 뚜렷하고

71) 「경향신문」 1960. 11. 29.

72) 「동아일보」 1960. 11. 26.

73) 「동아일보」 1960. 12. 02.

74) 「동아일보」 1960. 12. 02.

75) 「동아일보」 1960. 12. 09.

76) 「동아일보」 1960. 12. 16.

77) 「동아일보」 1961. 01. 24.

78) 「동아일보」 1961. 01. 31.

이들이 사회에 미친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엄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전원이 불교계 정화라는 일념에서 이런 지나친 행동을 저질렀고 다년간 입산수도 생활로 일반사회와 절연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판시하였다.<sup>79)</sup>

## 2. 정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종단건립

1960년 11월 24일 결행된 월탄 대종사를 포함 6 비구의 할복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려는 비구 측의 간절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는 법원 판결에도 반영되어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런 인식은 1961년 5.16 이후 들어선 혁명정부에도 영향을 주어 종교계가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사이비 성직자는 용퇴하라는 담화가 발표되었다.<sup>80)</sup> 그 뒤를 이어 각 언론도 불교 본연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시론을 발표하며 비구 측 주장을 옹호하였다. 이런 기조는 1962년 3월 25일 통합종단이 출범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61년 12월 15일 발표된 동아일보 시론 ‘佛敎淨化의 大義’는 비구승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융성하여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를 탄압하여 전대의 훌륭한 유산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은 帶妻肉食을 묵인 또는 권장하여 신성해야 할 사찰에 파계를 일삼는 자들이 聖騷然하고 대로를 활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요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 정화의 大宗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純潔高遵하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대조류를 구실로 계율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미 종교인의 태도가 아니다. 불교계의 철저한 정화를 위해서는 계율을 엄수하고 峻烈한 수행으로 도를 완성하여 普度衆生할 엄중한 각오가 없는 자는 僧籍을 떠나야 한

79) 「동아일보」 1961. 02. 07.

80) ‘종교계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동아일보」 1961. 11. 10. 1면.

다. 승적을 떠나서 신도로서 敬虔恭遜한 마음으로 삼보를 섬기고 각기 그 재능에 따라 행정 포교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불교는 조계종으로 통일되어 있는바 同宗의 계율은 帶妻肉食을 죄악으로 嚴戒하고 있다. 대처육식을 하고 세속인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면서 종교의 성직자로 남는 자가 있다면 과연 누가 그를 성직자라 볼 것이며, 그의 설법에 얼마나 권위가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 주는 덕화는 어느 정도라고 볼 것인가?

만약 대처가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성직자로서의 억누를 수 없는 사명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대처를 금하는 종파에서 깨끗이 물러나 자기의 주장에 따라 새로 일파를 창건하라. 종교 문제의 해결은 姑息과 妥協을 不許한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요 새로운 분쟁의 시초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1)</sup>

1962년 1월 11일 시론에서 ‘다시 佛教의 淨化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펼쳤다. 불교에 대해서 현실의 구차한 장애를 물리치고 철저한 정화가 요청되는 것은 불교의 形骸가 아니라 불교의 眞髓이다. 쾌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여 진정한 종교인이 될 것이며, 무엇으로써 世道人心을 正道로 이끌 것인가?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 만민에게 버리는 바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처육식하는 자는 걸치장은 여하튼 결코 승려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유일파인 조계종의 승려는 아니다.<sup>82)</sup>

1962년 1월 23일에는 ‘佛教再建을 위한 契機’라는 시론에서는 비구 측이 주장해 온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이 불교에 바라는 것은 결코 전래의 종교적 形骸가 아니요 진실로 世道人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투철한 종교의 정신과 종교인이다. 형해를 붙잡고 적당히 세속과 타협하여 종교를 실생활의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종교나 종교인은 남의 노력에 寄食하는 존재로서 차라리 없느니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종전의 병폐와 그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성직자와 신도의 본분을 엄격히 규정하고 성직자 단체와 신도 단체의 한계와 활동 범위를 명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계율의 재검토도

81) 「동아일보」 1961. 12. 15.

82) 「동아일보」 1962. 01. 11.

있어야 할 것이다. 또 舊來의 갈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차 재건을 위해서 건설적인 提議와 합의, 거기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조계종이라는 단일 종파 내에서 비구도 성직자가 될 수 있고 대처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면 이는 계율의 문란이요, 계율이 문란한 종교는 이미 그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sup>83)</sup>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은 그 뒤 통합종단 건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교부는 비구, 대처 양측과 함께 사회 인사도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1962년 1월 18일 비구 대처 측 각 5명과 문교부 대표 1명이 참여하는 ‘불교재건위원회’ 결성에 합의하였다.<sup>84)</sup> 22일 오후 2시 중앙공보관에서 비구 측 최원허, 이청담, 박추담, 손경산, 이행원과 대처 측 조용명, 안흥덕, 이남채, 박승룡, 황성기 그리고 사회 인사로 문교부 장관이 참석한 결성식이 개최되었다.<sup>85)</sup>

세간의 여론은 불교재건위원회 결성에 있어 비구 측을 지지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인위적인 기구를 통해 비구, 대처 양측의 부자연한 통합을 모색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제에 완전히 둘로 갈라져 각기 수도와 포교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전개하는 편이 의의가 있으며 불교 발전상 도움이 될 수 있다. 화해에 급한 나머지 불합리한 타결을 서두른다면 오히려 후일의 화근을 胚胎시킬 수 있다고 摘示하였다.<sup>86)</sup>

불교재건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차 불교재건위원회는 1962년 1월 22일 오후 2시 중앙공보관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의 주된 내용은 불교재건위원회의 운영 세칙의 심의였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장과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제2차 불교재건위원회는 1962년 1월 25일 오전 10시 문교부 영화시사실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 6항의 불교재건공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운영계획서를 심의하였다. 제3차 불교재건위원회는 1962년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중앙공보관에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에서는 불교재건 비상총회 회칙을 심의하였다. 제4차 불교재건위원회는 1962년 1월 31일 오전

83) 「동아일보」 1962. 01. 23.

84) 「경향신문」 1962. 01. 18.

85) 『불교정화분쟁자료』(근현대불교자료전집 68권, 민족사 1996), pp. 297-301.

86) 「조선일보」 1962. 01. 24.

11시 문교부 문예국장실에서 개최되었다. 4차 회의에서는 재건비상총회의원 선출 작업에 들어가 양측 15명씩 총회의원 30명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비상총회의원의 유고를 대비하여 6명의 보궐위원을 비상총회의원 자격에 준하여 선출하였다.<sup>87)</sup> 불교비상총회는 2월 12일 역사적인 개회식을 열고 종단 이름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하는 등 종명과 종지에 합의하였다.<sup>88)</sup>

이 과정에서 서로의 기득권이 걸려있는 승려 자격 조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6 비구 할복으로 사회적으로 비구승 중심으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고, 세간의 여론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이를 지지하였다.

승려라면 불교의 성직자이다. 이를 양분하여 수도승·교화승이라는 전례 없는 카테고리 설정하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파한 자들도 여전히 성직자로 남아 있으려고 애썼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 양심을 저버린 잔재주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하늘 아래 성직을 양분하여 계율을 지키는 자도 성직자요, 파하는 자도 성직자로 모시는 종교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흐리멍텅한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종교에 뜻을 둔 이상 불퇴전의 결의로 수도에 勇進하여 계율을 엄수함으로써 올바른 성직자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서 신도로 자처하든가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고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종교의 신성을 모독하고 마침내는 종교를 타락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중간적 존재를 단호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성·순수성·엄격성을 잃은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害毒的인 無用之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건된 불교는 티 없는 청정한 지도 인사들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계율을 범한 자가 성직에 앉아 성직자인 체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들을 신도로 환원시켜야 하고, 교계의 핵심체인 총회는 어디까지나 청정 승려로만 구성하여 신도 대중의 전형이 되고 숭앙하는 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 정화란 결국 문란했던 조직체를 바로잡아 승속의 분을 엄격히 규제하고,

87) 김광식, 「불교재건위원회의 개요와 성격」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p. 500-518.

88) 「동아일보」 1962. 02. 21.

교계 내의 타락되었던 氣風을 一掃하고, 참된 수도와 포교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에 대처했던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出家 修道하려는 자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고, 그렇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포교나 행정사무에 능한 자는 각기 그 재능에 따라 적절한 직책을 주어 일시에 生途를 끊는 일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sup>89)</sup>

문교부는 이런 사회적 인식에 힘입어 출가 독신자만을 승려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처승의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출가 독신자만이 승려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처승은 출가 독신으로 승려가 되든가 환속해야 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sup>90)</sup>

2월 28일 전문 19장 116조의 종헌이 통과되었고, 3월 6일 비구 측 종회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선포되었다. 대처 측이 반발하자 문교부는 30명으로 구성된 재건비상종회를 해산하고 비구, 대처 양측 5명씩 그리고 사회 인사 5명으로 구성된 비상종회로 개편하였다. 반포된 종헌 일부를 수정한 다음 3월 22일 통과시켰다.<sup>91)</sup> 이어 3월 25일 수정된 종헌을 확정 공포하였다.<sup>92)</sup>

통합종단 출범에 대해 여론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한국불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종의 경과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원칙과 현실을 다 같이 살리는 방도를 취하였다.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이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은 듯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관용을 극한 논리 방안이다. 원래 종교의 성직자는 엄격한 계율을 준수하여 신도 대중에게 산 典型을 제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율은 글자 그대로 성직자의 생명이다. 그 간에 寸毫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만약 타협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성직자의 자격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이 최대한의 관용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물러나서 새로 종파를 창건하든지 종교계에서 깨끗이 손을 떼든지 해야 할 것이요, 이 이상 한국의 유일한 전통 종파인 조계종에 머물러 있을 명분이 없다.<sup>93)</sup>

89) 「동아일보」 1962. 02. 27.

90) 「경향신문」 1962. 03. 11.

91) 「동아일보」 1962. 03. 25.

92) 「조선일보」 1962. 03. 26.

93) 「동아일보」 1962. 03. 27.

중앙총회는 1962년 4월 1일 새 종정에는 비구 측의 李曉峰, 총무원장에는 대 처 측의 林錫珍을 선출했다.<sup>94)</sup> 비구 측은 대 처 측이 종단의 실질적인 책임자에 선출된 것에 반발하였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4월 6일 통합종단에 참여하였다. 4월 14일 문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전통을 계승한 종단이 세워지게 되었다.

#### IV. 결어

한국 현대불교사에 있어 정화운동은 일제강점기 무너진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사찰령 시행규칙에 의해 각 본산의 사법이 제정될 때 본산 주지는 10년 안거, 말사 주지는 5년 안거의 비구승이었다. 그러나 1926년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한국불교의 승려 대부분은 대 처화되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조선불교조계종에서 조선불교로 명칭을 바꾸고 모범총림을 세워 전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 비구승의 청정도량 요구와 대통령의 유시로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서로의 양보가 없는 대립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비구 측은 대 처 측의 폭력에 시달렸다. 조계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찰에서 서로의 연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종교적 해결이 어렵게 되자 양측은 세간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화운동 기간 제기된 크고 작은 소송이 80여 건에 이르렀다.

많은 소송 가운데 양측에 가장 민감했던 것은 1955년 8월 11일 제5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 건이 7대 1로 가결되어 12일 상오 10시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것에 대한 대 처 측 소송이었다. 이 사안이 1956년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효라고

94) 「동아일보」 1962. 04. 02.

판정되자 비구 측은 6월 21일 불복 공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1957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처 측이 상고하여 대법원판결을 남겨놓게 되었다.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비구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었고, 실제 1960년 11월 24일 판결도 비구 측 패소로 결정되었다. 사태가 비구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자 24일 오후 월탄 대종사를 비롯 6명의 비구는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 할복하였다. 이들은 경찰에 진압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월탄 대종사는 1960년 11월 19일 조계사에서 불교정화를 위한 제2회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승려대회에 해인사 대표로 참여하여 24일 대법원에서 할복하였다. 활동 시기로 본다면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할복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비구 측을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종단의 승려 자격도 비구 측 주장이 담기면서 한국불교 전통이 정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월탄 대종사의 할복은 불교정화운동의 물결을 바꿔놓은 전환점이며, 일제강점기 훼손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가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3발표의 논평]

## 「월탄대종사의 정화운동과 종단 개혁」을 읽고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좌교수)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 정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불교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탄 대종사를 중심으로 정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조계종단의 출발을 알 수 있는 논문을 읽을 수 있어서 기쁜 마음 가늠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도 월탄 대종사님을 몇 번 뵈은 적이 있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불교의 중흥과 번영을 고민하셨을 당시, 동국대 철학과를 정년하신 김용정 교수님과 몇 번 뵈은 적이 있다. 이제 스님에 관한 세미나의 논평을 맡게 되어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경집 박사는 근현대불교사의 전문가이며, 이 분야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유관 논문도 많을 뿐만아니라 저서도 다수 출간했다. 이 논문도 역시 창의적이며, 흠결이 없이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논평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논문의 장단점을 분석 정리하여,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1. 먼저 이 논문을 읽고,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료 중심의 치밀한 역사적 전개이다. 이 논문은 비구 측과 대처 측의 충돌을 시기별·사건별로 세밀하게 추적하며, 언론 보도와 정부 문서, 승려단체 활동 등의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정화운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예컨대 사찰정화대책위원회의 각 회의 내용, 전국승려대회,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할복 사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둘째 월탄 대종사의 할복이라는 핵심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단 개혁의 전환점으로서 할복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이후 사회적 여론의 변화와 통합종단 수립까지의 연결고리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연결되고 있다.

셋째 시론·언론자료를 통한 시대적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시론을 통해 당시 사회가 정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객관화하고 있다.

넷째 정화운동의 결과로서 종헌 제정과 조계종 통합 종단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962년 종헌 제정 과정, 재건위원회의 활동, 종회의 구성 등 제도화 과정을 세밀히 서술하고 있다.

## 2.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논평자의 조언을 받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적 서술을 보완하고, 문서를 나열한 것처럼 다가오는 문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으로 사건을 나열하고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비판적 분석이나 해석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월탄 대종사의 할복 결행이 실제로 종단 내외에 어떤 정신적 전환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심리적, 사상적 분석이 상세하게 서술되면 좋겠다.

둘째 세미나의 형식에 따른 한계라 생각하지만, 월탄 대종사 개인의 생애와 정신적 배경이 매우 축약되어 있다. 할복을 결행한 이유와 그가 지녔던 종교적 신념, 인물됨에 대한 고찰이 사실상 없다고 인식된다. 단지 “할복을 통해 정화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월탄 대종사의 수행 내력이나, 당시 승단에서의 위상, 선풍 계승과의 관계 등을 더 서술해야 이 논문의 인물사적 깊이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넷째 ‘정화’의 개념 정의와 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검토가 보완되면 좋겠다. 정화운동이 단순히 대처승 배제라는 형태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계율 회복, 불교 정체성의 복원이었는가? 그 철학적·종교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다.

다섯째 대처 측 입장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이 부족하다. 전체 논조가 비구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화운동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처 측의 입장, 사상, 문제의식은 거의 서술되지 않아 역사적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섯째 불교사 내 위치와 비교 분석이 미흡하다. 조선 중기 불교계 쇠퇴기나 구한말 개혁운동 등 한국 불교사 내 정화운동의 맥락화를 시도했다면 더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승속 혼재 양상과의 비교, 일본 식민지 시기 대처 허용 배경과의 연계성 등등.

일곱째 현대 불교에 주는 함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종단 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교계 내 갈등(계율 해석, 사찰 운영권 등)에 비춰 월탄 대종사의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 이상에서 논평자가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소감을 밝혔다.

논평자의 견해를 떠나 이 논문은, 근현대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논문이 아닐 수 없다. 하여 논평자의 졸견으로 인해 이 논문에 대한 가치가 오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제4발표]

## 월탄대종사의 불사와 전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 I. 서언
- II. 불사의 유형과 월탄스님의 활동
  - 1. 불사와 전법의 개념 정의
  - 2. 화엄경의 십종 광대불사
  - 3. 보살의 십종불사
  - 4. 현대적인 불사의 유형
- III. 월탄스님의 행장 분석
  - 1. 제1기 출가 정진기(1957~1968)
  - 2. 제2기 사찰 및 종단 소임기(1969~2000)
  - 3. 제3기 중창 불사기(2001~2022)
- IV. 결어

### I. 서언

출가사문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가 보여주는 모든 일은 불사(佛事) 아닌 것이 없다. 미륵당 월탄대종사(1937~2022, 이하 월탄스님) 또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 불사와 전법(轉法)의 행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월탄스님은 금오(金烏, 1896~1968)선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선원에서 수행 생활을 시작했으며 선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스승 금오선사는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상인이 장사를 하듯이 수행자는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월탄스님 또한 이 가풍을 이어받아

수행의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행자도 세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월탄스님이 출가하여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행로는 결코 순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60년 6비구 할복 사건의 한 사람이었으며, 1964년 최초로 종비생 1기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990년과 1994년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단이 송월주스님의 3연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월탄스님은 정화개혁회의 의장으로서 종단 갈등의 한 쪽에서 있었다. 이 일로 인하여 종단에서 징계를 당했다가 복직 되는 등의 수난도 겪었다.

세월이 흘러 2010년에 이르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대되면서 월탄스님은 다시 종단의 어른으로 인정받고 설법을 통해 활발한 전법교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행자가 겪는 질곡 또한 수행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탓할 문제는 아니다. 월탄스님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가야 할 길을 멈추거나, 해야 할 일을 마다하는 성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스님은 스스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결정했고, 실천했다. 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불사였고, 전법교화의 길이었으며, 그 길을 거침없이 나아갔고, 다음과 같은 걸림 없는 메시지로 대중을 감화시켰다.

“참 자기를 깨달은 사람은 수억 년을 살지만, 참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해 오욕 탐진ちに 집착하면 사형선고 받은 것과 같다. 여러 불자가 진정으로 천 년 만 년 지혜와 자비가 총만하고 인류와 우주 만물이 나와 같은 한 몸뚱이로 알고 산다면, 본래 면목인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참 자기를 갖고 사는 것이다. 불법(佛法)의 고수는 참 자기를 찾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sup>1)</sup>

일상의 법문에서 “본래 면목인 부모미생전의 참된 자기를 깨우치는 것이 불교

1) 불교신문, 2022년 8월 19일자 기사, “추모특집, 월탄대종사 어록” 중에서

수행의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한 월탄스님은 승가의 구태를 단호하게 불식시키고 종무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종단 발전을 이루기를 소망했고 헌신했다.

수행자의 삶을 조망하는 것은 그 삶의 여정을 미화하기 위한 것도 시비곡직을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삶 속에서 보여준 발자취를 통해서 후학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한 이정표로 삼기 위함이다. 본 고에서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사의 유형을 살펴보고 월탄스님이 보여준 수행자로서의 길을 3기로 구분하여 불사와 전법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 II. 불사의 유형과 월탄스님의 활동

### 1. 불사와 전법의 개념 정의

불사(佛事)는 흔히 사찰의 건축(建築), 불상의 조상(造像), 불화의 조성(造成)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불사는 승보에 대한 공양, 각종 불교 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양불덕지사(發揚佛德之事), 즉 ‘부처님의 덕을 펼쳐 일으키는 일’로 설명하기도 한다. 선종에서는 ‘부처님 법을 행하는 일을 거양하는 일[舉揚佛法之行事]’로서 개안(開眼)·안좌(安座)·염향(拈香)·입실(入室)·보설(普說)·수시(垂示)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sup>2)</sup> 그렇지만 경전에서는 불사의 의미를 더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깊은 반야바라밀을 수지하면 이 보살은 이미 수기를 받은 것이며, 오래지 않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보살은 마땅히 나한·벽지불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곧 보살마하살을 이룰 징조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설한 변재(辯才)는 모두 불사(佛事)이다.”<sup>3)</sup>

2) 이기선, “불교정신 짓든 불사(佛事)여야,” 『불교평론』, 2025년 3월 30일자 기사 참조

이 가르침에서 불사(佛事)는 곧 설법을 통한 전법륜(轉法輪)임을 보여준다. 불사는 부처님의 중생교화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 중에서 불사 아닌 것이 없다.

『대방광불화엄경』 80화엄 「불부사의품」에서는 부처님의 열 가지 불사를 언급하고 있다. 열 가지는 바르게 생각하는 중생들 앞에 현전(現前)하는 불사, 중생들을 위해 대승(大乘)을 설하는 불사, 일체중생의 선근(善根)을 증장시키는 불사, 생사(生死)의 분별을 떠나 정법에 들게 하는 불사, 중생을 버리지 않고 때에 맞추어 교화(教化)하는 불사, 걸림 없이 일체 세계에 나투시는 불사, 변화신의 모습으로 단절됨이 없는 불사, 자재한神通력(神通力)이 끊어지지 않는 불사, 청정한 법계(法界)에서 널리 설법(說法)하는 불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서 언제나 열 가지 불사(佛事)를 짓습니다. 그 열 가지란 모든 부처님은 만일 어떤 중생이 바로 그를 생각하면 곧 그 앞에 나타나고, 모든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을 위해 대승, 즉 마하연(摩訶衍)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은 항상 일체중생의 한량없는 선근을 기르고, 모든 부처님은 만일 어떤 중생이 처음으로 생사를 떠나 바른 법의 지위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분별해 알며,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때로 모이고, 모든 부처님은 항상 모든 세계에 걸림 없이 노닐며,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로 언제나 일체중생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은 그 변화하는 몸이 항상 끊이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은 자재한 신력이 끊이지 않고, 모든 부처님은 항상 청정한 법계에 편히 머물면서 중생들을 위해 널리 연설하나니, 불자여,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서 언제나 열 가지 불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sup>4)</sup>

3) 受持深般若波羅蜜者，當知是菩薩爲已受記，成阿耨多羅三耶三善不復久。是菩薩不畏當墮羅漢、辟支佛地，是者則菩薩摩訶薩應成之兆。佛語舍利弗：“汝所說辯才者，皆是佛事。『放光般若經』卷第十

4) 佛子！一切諸佛於一切世界、一切時有十種佛事。何等爲十？一切諸佛若有衆生正憶念者，卽現在前；一切諸佛常爲衆生說摩訶衍；一切諸佛常能長養一切衆生無量善根；一切諸佛若有衆生始離生死，入正法位，悉分別知；一切諸佛不捨衆生教化時會；一切諸佛常遊一切世界無有障礙；一切諸佛大悲常不捨離一切衆生；一切諸佛所變化身常不斷絕；一切諸佛自在神力未曾斷絕；一切諸佛普常安住清淨法界，悉爲衆生而廣演說。佛子！是爲一切諸佛於一切世界、一切時有十種佛事。김운수 역주, 『대방광불화엄경V』, 한산암, 2011, pp.401~402.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체제불의 십종불사는 삼세삼계(三世三界)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법교화시에 실천하는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념을 성취하는 중생들 앞에 나투시는 모습, 중생을 위해서 마하연(摩訶衍) 즉, 대승의 법을 설하는 것, 그리고 일체중생들이 한량없는 선근을 증장시키도록 이끌어 주는 것 등이 전법교화를 성취하기 위한 불사에 해당 된다. 그리고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법에 들게 하면서도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것, 일체 세계에서 걸림 없이 변화신의 모습을 나투며 자재한 육신통으로 모든 중생들이 청정법계에 안주하도록 널리 설법하는 모습 등도 여래의 십종불사에 포함된다. 이를 요약하면 부처님의 전법교화 활동 모두가 불사(佛事)라는 것이다.

## 2. 화엄경의 십종 광대불사

『대방광불화엄경』 80화엄 「불부사의법품」에서는 제불세존께서 중생을 위해 지으시는 열 가지 불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5)</sup> 이는 부처님의 육신과 사대(四大), 거동을 베푸시는 모든 활동이 능히 법을 드러내고 이익을 이루므로 불사 아닌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화엄경을 바탕으로 불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1) 제1 도솔타천(兜率陀天) 광대불사

부처님의 첫 번째 도솔타천 광대불사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하는 불사를 말한다. 이때 부처님은 한량없는 상호, 위덕, 광명, 음성, 말씀, 삼매, 지혜를 갖추고 행하는 경계가 무량하여 천상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조복시키고 일승으로 제도하여 생사를 넘어서게 한다. 부처님은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며, 감각(感官)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조복하며, 차별적인 삼승(三乘)을 말하면서도 원만한 일승(一乘)을 말하여 두루 제도하는 것으로 첫 번째 광

5) 김윤수 역주, 『대방광불화엄경V』, 앞의 책, pp.431~448.

대불사를 성취한다. 이는 섭취중생(攝取衆生)의 불사로 중생을 섭수하는 부처님의 중생교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여래는 공간과 대상의 제한을 뛰어넘고, 각종 경계에 걸림이 없이 원만 구족한 대승의 법을 설하고 생사에 집착을 벗어나도록 중생을 제도한다.

## 2) 제2 강신모태(降神母胎) 광대불사

부처님의 두 번째 강신모태 광대불사는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태에 들어갈 적에 구경삼매(究竟三昧)로 태어나는 법을 관찰하며 공의 이치를 깨우치고 무쟁 삼매에 들어 집착이 없는 지혜로 장엄한 누각의 불사를 짓는 일이다. 여래는 어머니의 태안에 있으면서도 세간을 이익되게 하려고 갖가지 불사를 시현하게 된다. 이후 탄생, 등지, 궁전, 출가, 정각의 성취, 전법륜, 열반을 나투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신모태 광대불사는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간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 중생제도를 실천하겠다는 원력을 표현한 불사로 해석한 것이다.

## 3) 제3 시탄왕궁(示誕王宮) 광대불사

부처님의 세 번째 시탄왕궁 광대불사는 왕궁에 탄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불사를 말한다. 생법(生法), 즉, 태어나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물질, 욕망, 궁전, 음악 등을 탐하거나 물들지 않으며, 부처님이 청정한 계율을 지니어 원만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어여뻐 여기는 연민심을 내는 것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사가 된다. 부처님의 탄생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이미 성숙한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하며, 각종 불사를 지어 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비록 궁궐 안에서 성장하지만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며, 걸림 없는 마음으로 신통을 나투며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는 불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 4) 제4 사이출가(捨而出家) 광대불사

부처님의 네 번째 사이출가 광대불사는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으로 중생

들로 하여금 세상 법이 모두 허망한 것이어서 무상하게 무너지는 것임을 알고 싫은 마음을 내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세간의 탐욕과 사랑과 번뇌를 아주 끊어 버리고 청정한 행을 닦아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네 번째 불사에 해당 된다. 부처님이 왕자의 신분에서 출가할 적에는 세속의 위의를 버리고 무쟁의 삼매에 머물러 본래의 서원과 한량없는 공덕에 만족하며 큰 지혜의 빛으로 세간의 어둠을 소멸하고 세상의 가장 높은 복전(福田)이 되는 것이 넓고 큰 불사가 된다. 이는 중생들에게 출가하는 것이 청정하고 허물이 없으며 세간의 지혜 높은 깃발이 된다는 의미를 제시한다.

### 5) 제5 성취정각(成最正覺) 광대불사

부처님의 다섯 번째 성취정각 광대불사는 온갖 지혜를 갖추어 한량없는 법을 깨우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불사는 부처님이 보리좌에 올라서 법륜을 굴림으로써 보살들로 하여금 가지가지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닦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체 공덕을 성취하여 세계(世界), 중생계(衆生界), 불계(佛界)에서 일체중생을 조복시키고, 신통 변화로 중생을 제도하는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 6) 제6 불퇴전법(不退轉法) 광대불사

부처님의 여섯 번째 불퇴전법 광대불사는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려 보살들을 퇴전하지 않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전법륜(轉法輪)은 대승보살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체득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와 복덕과 지혜를 갖추도록 이끌어 주는 전법교화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중생들의 마음과 행의 차별함에 따라 법륜으로 불사를 짓는다.

### 7) 제7 왕도성읍(王都城邑) 광대불사

부처님의 일곱 번째 왕도성읍 광대불사는 왕성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위해 행

하는 불사를 말한다. 왕성은 인간 왕의 도성에 국한되지 않고 천상 중생과 천룡 팔부의 도성이 모두 포함된다. 부처님이 성문에 들어설 때면 땅이 진동하고 광명이 두루 비추어 모든 중생이 보고, 듣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험벗은 사람은 옷을 얻고, 근심하던 이들은 평안하게 되고, 세상이 장엄되게 하는 불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사는 현대에 이르러 빈곤복전을 구제하는 것이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8) 제8 아란야처(阿蘭若處) 광대불사

부처님의 여덟 번째 아란야처 광대불사는 한적한 수행처, 적정처, 공한처, 불주처, 삼매처 등이 형성되도록 하는 불사를 말한다. 부처님이 삼매에 들고, 숲을 거닐면 그곳이 불계(佛界)가 됨으로써 저절로 불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대승보살과 재가불자들의 행원으로 지어지는 것이며 부처님은 이곳에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설법을 베풀어 중생을 제도한다.

#### 9) 제9 청정선근(淸淨善根) 광대불사

부처님의 아홉 번째 청정선근 광대불사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대해 깨끗한 믿음과 지혜를 내고, 감관을 조복하여 선근공덕을 짓도록 하는 불사를 말한다. 보살들은 스스로 보리의 도에 밝은 지혜를 갖추고, 열반(涅槃), 무상(無常), 불신(佛身), 공덕원만의 불사를 지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고 마음을 내어 수행하고, 염불삼매를 체득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으로 부처님의 불사를 실천한다.

#### 10) 제10 열반복전(涅槃福田) 광대불사

부처님의 열 번째 열반복전 광대불사는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통해 복전을 짓도록 하는 불사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한량없는 중생들이 슬피 울며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래의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려운데 위 없는 복전(福田)이 영원히 가시는 구나”라는 마음을 일으켜 불사를 짓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청정한 복전, 최상의 복전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불사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3. 보살의 십종불사

『대방광불화엄경』 제41권 「십정품(十定品)」에서는 보살의 십종불사(十種佛事)를 설명하고 있다.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으로 짓는 불사로 중생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형상으로 짓는 불사로 중생들을 조복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기억과 생각으로 짓는 불사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세계를 진동하는 불사로 중생들로 하여금 악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방편과 깨달음으로 짓는 불사로 중생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꿈으로 현몽하는 불사로 중생들이 항상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대광명을 놓아 짓는 불사로 두루 모든 중생들을 거두고자 하기 위함이다.

여덟째, 보살행을 닦는 불사로 중생들이 수승한 서원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아홉째, 정등각을 이루는 불사로 중생들이 환법(幻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열째, 묘한 법륜을 굴리는 불사로 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sup>6)</sup>

6) 佛子！菩薩摩訶薩令衆生得十種圓滿已，復爲衆生作十種佛事。何等爲十？所謂：以音聲作佛事，爲成熟衆生故；以色形作佛事，爲調伏衆生故；以憶念作佛事，爲清淨衆生故；以震動世界作佛事，爲令衆生離惡趣故；以方便覺悟作佛事，爲令衆生不失念故；以夢中現相作佛事，爲令衆生恒正念故；以放大光明作佛事，

이와 같은 보살의 불사는 중생계에 머물러 실천하는 모습이며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적멸에 들어 반열반(般涅槃)을 보여주는 것은 중생들이 피로하고 싫어함을 일으킬 때 이를 알고 중생들이 열반을 통해 깨우치게 하기 위한 불사라 할 수 있다. 즉, 보살이 중생계에 태어나 보살행을 실천하는 모습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모두 불사라는 의미이다.

#### 4. 현대적인 불사의 유형

사찰에서 수행자의 삶 그 자체는 모두 불사(佛事)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찰의 당우(堂宇)를 건립하거나 탑과 불상을 모시는 등의 건축 및 불상 조성 등을 불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의식이나 각종 의례를 집전하거나 봉행하는 것도 불사이며,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촉진하거나 출가자의 수행 정진도 불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의식 및 의례 중심의 불사, 각종 불물(佛物)을 조성하는 불사, 수행 정진 불사, 그리고 전법교화 활동 불사 등으로 구분하였다.

##### 1) 의식 봉행 불사

사찰에서는 입춘, 부처님 오신날, 백중, 동지 등의 연간 단위로 봉행하는 기도 불사가 있으며, 불자나 일반인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시식(施食)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재의식 불사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관음재일, 지장재일 등 6재일 의식이 봉행되었으나 현재는 사찰의 상황과 신도들의 동참에 따라서 간소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찰에서는 유주무주 고힌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추선공양을 올리는 천도재, 49일 동안 망자의 업장 소멸과 가족의 애도를 보살피는 49재, 살아 있는 사람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생전예수재,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는

---

爲普攝取諸衆生故；以修菩薩行作佛事，爲令衆生住勝願故；以成正等覺作佛事，爲令衆生知幻法故；以轉妙法輪作佛事，爲衆說法不失時故；以現住壽命作佛事，爲調伏一切衆生故；以示般涅槃作佛事，知諸衆生起疲厭故 『대방광불화엄경』 41권(ABC, K0080 v8, p.681c10-c23)

부처님의 모습을 재현하며 공양을 올리는 영산재, 수륙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수륙재 등 여러 가지 재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의식 및 의례 중심의 불사는 전통적인 전법교화 방법의 일환으로 각국의 문화와 사회적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사가 유지, 발전되는 것은 포교 성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포교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2) 불물 조성 불사

사찰에는 불물(佛物), 승물(僧物), 무진장물(無盡藏物)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불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각을 비롯하여 각종 상징물들이 포함하며, 승물은 수행자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화를 말하고, 무진장물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활동 등에 소요되는 재화라 할 수 있다. 불물(佛物)과 관련된 불사에는 부처님의 전법교화를 외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조성되는 법당, 불전, 탑 등 각종 건축 불사, 불화·탱화·괘불 등을 조성하는 불화 조성 불사, 도량을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들을 유지 보수하는 도량 정비 불사 등이 포함된다. 월탄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는 절에서 대웅전을 비롯한 각종 전각 건립, 청동미륵대불 조성 등의 불물 조성 불사를 추진하고 원만하게 회향했다.

## 3) 수행정진 불사

수행정진과 관련된 불사는 주로 안거에 참여하거나 대중을 외호하며 출가 수행자들이 원만하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회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수행처를 설립하거나 조실로서 수행자를 제접하는 모든 활동도 수행정진 불사로 지칭할 수 있다. 월탄스님은 일생을 선방 안거에 참여했으며, 미륵대흥사 중창 불사를 주도하여 완성시키고, 수행센터 운영을 주도했다. 금성선원의 수용인원은 15명이지만 매년 4~50명의 수행자들이 방부를 들이려고 찾아오는 등 수행불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전법교화 불사

전법교화 불사는 사찰에서 현대적 포교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도교육, 조직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행을 통한 포교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법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회 불사라 할 수 있고, 신도교육을 확대하여 불자들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교육불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도조직을 확대하여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조직불사, 사찰에서 복지기관을 설립 운영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불사, 그리고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불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총칭하여 포교불사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재를 양성하여 대승보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인재불사라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월탄스님은 상좌가 총 28명이었으며, 문도대표는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이 맡고 있다. 그리고 손상좌는 동출스님을 비롯하여 총 36명이고, 증손상좌와 재가제자 등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 육성했다. 월탄스님이 출가 대승보살을 육성하는 인재불사에 성과를 거둔 것은 상좌와 손상좌의 면면을 통해 보여주었다.

#### 5) 불사십조(佛事十條)

2008년 남원 실상사에서는 “우리나라 절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4차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모아서 2009년 앞으로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불사십조’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 ② 생명 살림의 불사
- ③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 ④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 ⑤ 대중적 협동의 불사
- ⑥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 ⑦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 ⑧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 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 ⑩ 지속 가능한 생태적 불사<sup>7)</sup>

실상사에서 제시한 불사십조의 주요 내용은 주로 건축불사와 관련된 것으로 무분별한 사찰 불사가 가져오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 불사나 정신적 불사 등 어떤 형태와 내용의 불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불사의 목적은 전법교화와 중생 구제의 원력을 바탕으로 여법하게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 Ⅲ. 월탄스님의 행장 분석

월탄스님은 1957년 20세 무렵에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스님 구족계를 수지하면서 일생을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스님은 사미계를 수지하면서부터 이미 선원에서 안거에 들었으며, 종단 내 소임을 보는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선방에서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님은 이판(理判)으로 정진하면서 방부의 기회가 주어지면 사무변사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월탄스님의 수행과정은 그 자체로 불사였으며, 전법교화의 실천이었다. 여기서는 스님의 행장을 출가 정진기, 사찰 및 종단 소임기, 선원 불사기 등 크게 3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제1기 출가 정진기(1957~1968)

월탄스님 행장 중 제1기는 1957년 화엄사로 출가하여 1966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약 10여 년의 과정으로 이 시기는 출가 정진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스님은 화엄사 금정암, 지리산 상무주암, 수도암, 무명암,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안거 수행에 집중했다. 1960년 해인사 사교과 수학 중 전국 제2 승려대회에 강원 대표로 참석하였고, 대법원 할복 사건으로 중퇴하는 일을 경험했다. 이때 스님은 정화의 정당성을 부르짖으며 할복을 감행한 6비구 가운데 1인으로 참여했다. 당시 스님은 명분을 위해 사리를

7) 이기선, 앞의 논문, 『불교평론』, 2025년 3월 30일자 기사 참조.

버리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정화불사를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애종심을 목숨을 던져 표현하였다.<sup>8)</sup> 당시의 일에 대해 월탄스님은 “불교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지닌 희망자를 모집하여 참여했다”라고 회고했다.<sup>9)</sup> 이 사건으로 청정 승가 회복과 불교 정화의 명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사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61년 3월 비구 승단의 손을 들어주었다.<sup>10)</sup> 스님은 “고작 1,000명 남짓한 비구승들이 7,000여 명의 대처승을 이기고 불교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죽음을 각오하고 호법에 뛰어든 수행자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회고했다.<sup>11)</sup>

월탄스님은 1964년부터 1968년까지 4년 동안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제1기 종비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종비생 제도는 1964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장차 불교계와 종단을 이끌어갈 젊은 승가 인재를 양성하고자 종단과 동국대가 함께 추진하였다. 1968년 2월 졸업한 종비생 제1기 졸업생은 총 8명으로 군입대자 2명을 제외한 6명의 스님들은 포교사 자격증을 품수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순회 포교에 나섰다.<sup>12)</sup> 종비생 제도의 도입으로 동국대에 입학한 스님들의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종단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종비생 출신 스님들은 정화 이후 종단체계를 바로 잡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크고 작은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13)</sup>

이후 월탄스님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산대사 사상을 연구하여 석사학위

8) 6비구 할복 사건은 1960년 11월 대법원이 비구승의 입장을 받아들인 고법판결을 파기 환송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불교정화의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정화의 당위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사법부의 오판을 막고자 월탄, 성각, 진정, 도명, 도현, 성우 스님 등 6명의 비구스님들이 대법원에 들어가 할복한 일이다. 이 일로 여론의 물줄기가 돌려졌고,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불교정화가 일단락되었다.

9) 불교신문, 2016년 11월 8일자 기사 참조.

10) 이 할복 사건으로 월탄, 성각, 진정, 도명, 도현, 성우 스님 등 6비구를 비롯하여 24명의 스님들이 건조물침입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돼 80여 일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1961년 2월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불교신문 2016년 11월 8일자 기사 참조.

11) 불교신문, 2012년 4월 16일자 기사 참조,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법회, 유일 육비구 월탄스님 법문, “정화 원동력은 위법망구의 정신”

12) 제1기 종비생 졸업자는 월탄스님, 현해스님, 탁도안스님, 혜경스님(비구니), 길상스님, 혜명스님, 공철스님, 진형스님, 지연스님 등이었다. 불교신문 2010년 5월 16일자 기사 참조.

13) 불교신문, 1993년 8월 25일자 기사 참조.

를 취득했다. 이 시기에 스님은 선원 안거, 강원 수학,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현대적 학문을 연마하는 등 내전 및 외전과 선교를 두루 겸비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불교학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승가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1967년 3월 월탄스님은 정화 정신을 계승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모임인 영축회(靈鷲會) 발족당시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sup>14)</sup> 이 모임은 당대의 선지식을 대표하는 서용스님, 송산스님, 일타스님, 성준스님 등이 지도부를 형성하여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월탄스님은 종무행정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월탄스님의 행장에서 제1기 출가 정진기는 개인적 수행, 학문 탐마, 수행자로서의 자질과 수행력을 갖추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 2. 제2기 사찰 및 종단 소임기(1969~2000)

월탄스님이 주지 소임을 담당한 사찰은 1969년 서울 개운사, 1977년 강화 전등사, 1982년 속리산 법주사, 1995년 청주 용화사 등으로 다양하다. 전등사 주지로 재임 중에는 명부전 이전 중창 불사, 종각 신축 불사 등을 완수해 냈다. 또한 법주사 주지로 재임하던 1988년에는 청동미륵대불 조성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함으로써 승가 리더십의 원형을 보여 주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는 월탄스님이 주지로 재임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크게 융창했으며, 속리산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탄스님은 주지가 되자마자 법주사 경내 왼쪽 미륵부처님을 종전의 시멘트 불상을 해체하고 1990년 4월 11일 동양 최대의 불상인 청동 미륵대불을 회향했다. 이 불상은 높이만도 38미터에 이르며 소요된 청동만도 160여 톤, 공사인력은 연인원이 3만5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향식에서는 1989년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도 모셨

14) 영축회 준비위원에 참여한 스님은 송산, 청하, 성준, 월주, 월탄 스님 등 6인이었으며, 이후 회장에 서용스님, 수석부회장 송산스님, 부회장 청하스님, 일타스님, 간사장은 성준이 맡았다. 불교신문, 2016년 11월 21일자 기사 참조.

다. 법주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이 된 것이다. <중략> 월탄스님의 원력으로 동양 최대의 청동대불이 법주사에 조성되면서 전국에서 수 많은 관광객들이 속리산을 찾는 관광특수를 누렸다. 속리산의 공식적인 탐방객 기록은 1992년부터 시작됐는데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1992년 217만9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sup>15)</sup>

월탄스님은 1969년부터 1996년까지 약 25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4대부터 제10대까지 기간 동안 중앙종회의원을 5선할 정도로 종단적 역할이 막중해졌다. 또한 1971년 총무원 규정부장, 1972년 불교신문사 사장, 1978년 중앙종회의 수석부의장, 1982년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단은 큰 내홍을 겪어야만 했다. 내홍의 원인은 총무원장에 집중된 종권과 권력 행사에 있어서 종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표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월탄스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1994년 8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연구원은 개원 법회와 더불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sup>16)</sup> 이 시기에 월탄스님은 동국대학교 승가 동문 300여 명을 대표하는 초대 동문회장에 추대되기도 했다.<sup>17)</sup>

1994년 종단개혁과정에서 월탄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 봉직하면서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 3선을 가결한 중앙종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불참 배경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리고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기자회견에서 월탄스님은 “불교 정화 운동과 불교 개혁 운동을 이어받아 불교 대화합의 차원에서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불교 자주화, 승풍 진작, 승가 교육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중무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sup>18)</sup>

15) <https://www.boeun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41> 기사 참조.

16) 불교신문, 1994년 8월 21일자, “한국불교연구원 설립” 기사 참조. 불교발전연구원은 월하종정예하를 비롯해서 종단내외의 큰스님들을 증명,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불교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100여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연구발표회 및 연구지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17) 불교신문, 1994년 4월 4일자, 동대 승가동문회 창립-초대회장에 월탄스님“ 기사 참조.

“1천6백 년 불교 역사 자체를 자랑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구한 역사를 가진 종교로서 불교는 불교 문화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종단 내에 문화기획부를 신설하여 문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21세기 한국의 문화 사업을 불교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sup>19)</sup>

이 선거에서 월탄스님은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이후 종단 집행부에서 나아갈 길을 선구자적 입장에서 제시하였고, 추후 총무원장 스님들은 제시된 내용들을 종책으로 수용했다.<sup>20)</sup> 1998년 월탄스님은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때 월탄스님은 8대 종책 선언, 6대 지표, 36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체계적으로 선거에 임했다.<sup>21)</sup> 그러나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 3연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1998년 11월 26일 정화개혁회의가 출범하고 월탄스님은 상임위원장에 추대되었다.<sup>22)</sup>

그렇지만 정화개혁회의는 기존의 총무원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단은 더욱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총무원과 종회 측에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고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종단 사태는 자율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나서서 일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시도했다. 이후 정화개혁회의는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청사를 반환하게 되었고, 종단은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월탄스님은 정화개혁회의의 참여로 인해 제29대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정화개혁회의는 2002년 2월 전 종정 월하스님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을 표함으로서 사실상 해체되었다.<sup>23)</sup>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는 월탄스님

18) 연합뉴스, 1994년 11월 9일자, “총무원장 선거에 월탄(月誕), 월주스님 출마선언” 기사 참조.

19) 불교신문, 1994년 11월 30일자, “종책 실천방안 일문일답-월탄스님” 기사 참조.

20)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26명중 168표를 얻은 월주스님이 당선되었고, 월탄스님은 146표로 낙선했다.

21) 불교신문, 1998년 11월 10일자, “(특집) 제29대 총무원장후보 공약-월탄스님” 기사 참조.

22) 불교신문, 1998년 12월 1일자, “정화개혁회의 개원 및 헌판식 가져” 기사 참조.

23) 불교신문, 2002년 2월 15일자, “정화개혁회의의 사실상 해체” 기사 참조.

을 비롯한 8명의 스님을 멸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2년 2월 1일 서울지법에서 정화개혁회의 측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직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정화회의 측은 조계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정화개혁회의 측 소송이 각하되면서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통합의 차원에서 징계자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사법부의 오판이 종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 제30대 총무원장에 정대스님이 취임함으로써 종단은 빠르게 안정되었다.

제2기 사찰 및 종단 소임기의 기간 동안 월탄스님이 보여준 행보는 말사 및 본사 주지 소임을 실천하면서 유형무형의 각종 불사를 적극 추진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직을 역임하면서 종단 발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명감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총무원장 등 중앙종무기관의 선출직 장을 담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종단의 정책을 통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소임을 맡았으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 종단에서 징계를 당하는 책임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월탄스님은 작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이상향으로 추구했던 수행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월탄스님의 불사와 전법의 이념은 청정한 수행가풍의 유지,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민족종교, 화합과 관용의 실천 등으로 제시되었다.

승가의 위계와 정법의 당간을 회복한다면 청정 수행가풍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불교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떳떳하고 당당한 민족종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진단한 월탄스님은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화합’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sup>24)</sup>

24) 불교신문, 1998년 11월 10일자 기사 참조.

### 3. 제3기 중창 불사기(2001~2022년 7월 7일)

2001년부터 2022년 완전한 열반에 들기까지 약 20여 년에 걸친 월탄스님의 생애는 제3기 미륵대흥사 중창 불사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스님은 단양의 미륵대흥사에서 주석하면서 도량 건립 불사에 진력했다.

미륵대흥사는 충북 단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646년 자장율사가 양산 통도사와 함께 창건한 사찰로 알려진 고찰이다. 한때 건물이 200여 칸이 넘었고, 천여 명 이상의 대중이 수행하던 대가람이었으나 1876년 화마에 소실된 이후 폐사되었다. 2001년부터 월탄스님이 중창 불사의 원력을 세우고 심혈을 기울여 전각들을 완공해 나갔다. 이 불사에는 10여 년간 약 300억 원의 불사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 암자로는 청련암, 원통암, 말월암, 굴암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통암과 청련암이 남아 있다.

월탄스님은 2006년 종단 징계가 해제되었으며, 2010년에는 원로위원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해인총림에서 법전 종정예하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14년에는 미륵대흥사 금성선원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 미륵대흥사 주지를 역임하여 도량과 금성선원을 이끌다가 2022년 열반에 들었다.

월탄스님은 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으로 지리산 화엄사를 찾아 금오스님을 친견하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매진한 결과 상무주암에서 한 소식을 전하였다.

“처음에는 그토록 괴롭히던 우물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다시 3일 밤낮을 몽매에 들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다리도 아프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경험을 했다. 모두가 일체유심조이며 마음이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업식에 의해 생긴 뜬구름 같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 경지가 진정 은사스님이 말씀하신 참마음인지 확인하고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팔만대장경을 모아놓은 해인사로 갔다”<sup>25)</sup>

월탄스님의 이러한 원력은 미륵대흥사의 선원불사로 이어졌다.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기어이 불사를 계속하여 완공하였고 또한 금성선원을 운영하는 원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2,000명 수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눈 밝은 도인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야만 불교 정확에 헌신했던 옛 어른 스님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적에는 선방에서 삼시 세끼 밥만 줘도 고마워서 정말 목숨 걸고 정진했습니다. 자기 건강 챙기고 잇속 챙기는 이를 수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평화는 거창한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나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sup>25)</sup>

#### IV. 결어

월탄스님의 불사와 전법은 일관되게 눈푸른 납자가 실천하는 수행의 일환이었음을 행장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출가한 이후 월탄스님의 행장은 출가정진기, 사찰 및 종단 소임기, 미륵대흥사 중창 및 선원불사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출가 정진기에서 나타난 월탄스님 행장의 주요 특징은 사미계를 받은 직후부터 제방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간화선 수행에 열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속의 판결에 저항하여 6비구 할복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종단 종비생 1기로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한 것도 월탄스님의 수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찰 및 종단 소임기에서 월탄스님은 크고 작은 절에서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와 말사인 청주 용화사 회주 등으로 재임하면서 보여준 불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총무원장 출마, 정화개혁회

25) 불교신문, 2009년 11월 28일자, “청주 용화사 회주 월탄스님” 기사 참조.

26) 불교신문, 2017년 4월 26일, “힘듭니까? 역경과 시련이 바로 보살입니다.”기사 참조.

의 상임위원장 등의 소임을 통해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총무원장이 되어 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 해도 종단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륵대흥사 금성선원 불사기에 월탄스님은 중앙종회, 총무원 등 종단 차원의 관심을 접고 한 사람이라도 눈 밝은 도인이 나오기를 바라는 원력으로 수행센터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리고 금성선원 조실로서 후학을 제접하면서 간화선을 통한 수행자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월탄스님의 불사와 전법은 수행불사, 도량불사, 그리고 전법불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청주 용화사, 단양 미륵대흥사 등의 사찰에 새겨진 족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탄스님이 보여준 불사관과 전법관은 참다운 수행자의 양성과 청정하고 여법한 도량 건립, 그리고 설법을 통한 중생제도라는 것을 후학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제4발표의 논평]

## 「월탄대종사의 불사와 전법」에 대한 논평

선지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한국ESG경영원 자문위원)

논문에서 승가의 불사와 전법은 실천하는 수행자의 일환이었음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미룡당 월탄대종사(이하 월탄스님)께서 일생동안 실천했던 불사(佛事) 및 전법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불교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월탄스님께서 출가하여 수행하고, 소임을 담당하고, 종단활동을 전개한 과정은 현대 한국불교가 직면했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월탄스님은 1960년 6비구 할복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은 광복이후 심화된 비구 대처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원력의 표현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후인 1962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미봉책이었지만 불교계가 통합되는 길이 열렸다.

월탄스님은 1964년 종비생 1기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대한불교조계종단이 비구스님들 중에서 학승을 길러내기 위한 종책의 결실이었다.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3대 종책사업 중에서 동국대를 통해 승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종단의 원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 당시 월탄스님을 비롯한 종비생 1기 스님들이 원만하게 학업을 마치는 계기로 종비생 제도가 지속될 수 있었다.

월탄스님은 1990년과 1994년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종단개혁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종단 개혁의 한 축을 담당했다. 비록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해도 월탄스님의 출마는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가 정책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정화개혁회의 의장이었던 월탄스님이 원로위원으로 추대되고 종단 어른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종단화합과 발전의 에너지가 충분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멸빈, 제적 등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이 사면 복권되는 것은 종단갈등을 해소하고 종도의 화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월탄스님의 행장을 분석해 보면 논문 서두에서 이 논문의 발제자인 김응철 교수님이 밝혔듯이 출가사문이 일생동안 걸어온 길은 그 모두가 불사이며 전법활동이라는 것을 새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제자는 월탄스님의 행장을 제1기 출가 정진기, 제2기 사찰 및 종단 소임기, 제3기 미륵대흥사 중창불사기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행장 구분은 시계열적 분석으로 월탄스님의 업적을 지나치게 단순화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월탄스님의 행장에서 나타난 특징을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불사의 의미를 화엄경의 불사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 대승보살의 관점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수행자인 월탄스님의 행장을 연계시키는 데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월탄스님의 행장 속에 담겨진 불사와 전법교화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방광불화엄경』 80화엄의 불부사의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십종의 광대불사를 월탄스님의 행장 분석에 응용한 것은 경전적 근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실적으로 수행자의 행장을 통해서 불사와 전법교화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 자료의 제약,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월탄스님과 같이 독자적인 저술이 없는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접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는 각종 언론에 등장한 자료를 수집하여 월탄스님의 행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진 불사의 의미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 논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월탄스님의 불사관과 전법교화에 대한 사상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자료 수집의 어려

움과 시간적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월탄스님의 도반이나 상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출가수행자들이 직접적인 저술을 남기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발제자는 간화선 수행의 여정을 통한 월탄스님 수행력과 이판사판을 넘나드는 행장을 보여줌으로써 종단발전의 원력이 되었음을 서술했다.

특히 오랜 동안 폐사지로 남아 있던 미륵대흥사를 중창하고, 금성선원을 창건하여 대중을 제접하다 열반에 드신 모습은 후학들의 귀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월탄스님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한국불교 현대사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륵당 월탄대중사의 행장은 종단정화와 통합종단의 출범, 중앙종회의원 활동을 통한 종단발전의 추구, 총무원장 선출과 같은 종단 선거제도,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수행처 운영방법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응철 교수님이 발제한 “미륵당 월탄대중사의 불사와 전법”은 향후 한국불교 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시간에 훌륭한 논문으로 월탄대중사의 행장을 분석해주신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제5발표]

## 월탄대종사의 교육관: 종비생과 석림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

- I. 서론
- II. 종비생 제도와 월탄 대종사
  - 1. 월정사 사태와 종비생 제도 탄생
  - 2. 종비생의 대학 생활과 도전
- III. 석림회 · 석림동문회와 월탄 대종사
  - 1. 석림회 활동과 기여
  - 2. 석림동문회 결성과 역할
- IV. 결론

### I. 서론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해왔으나, 조선시대의 억불정책과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 강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특히 일제가 강제로 시행한 승려의 대처 허용 정책은 출가 중심의 전통적 승가질서와 수행풍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청정승가구현을 위한 비구승의 지속적인 노력에 뿌리를 두고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불교정화운동은 단순한 종단 개편을 넘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일대 개혁운동이었다.

정화운동의 결과로 1962년 4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이 비구와 대처승의 통합 종단 형식으로 발족되면서, 종단은 역경(譯經)·도제양성(徒弟陽成)·포교(布教)라는 3대 사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도제양성 사업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였다.

도제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종비생(宗費生) 제도였다. 1962년 12월 25일 제2회 중앙총회에서 종비생 교육법<sup>1)</sup>이 제정되어 공포된 이 제도는 종단이 학비를 부담하여 우수한 승려들을 대학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승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시행되지 못했다. 종단 내부에서는 “외전(外典)을 배우면 환속하기 쉽다”는 우려가 팽배했고, 재정적 부담과 함께 전통 교육 방식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1964년 1월에 발생한 ‘월정사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같은해 2월 15일 제1기 종비생을 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종비생들을 중심으로 1965년 10월 16일 동국대 석림회가 창립되었고, 1977년 5월 5일에는 석림동문회가 결성되어 한국불교 교육 발전의 핵심 네트워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비생 제도의 도입과 석림회, 석림동문회의 구성 및 발전 과정의 중심에는 종비생 1기 월탄대종사(月誕大宗師, 1937-2022)가 있었다. 금오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한 월탄대종사는 불교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1960년 11월 대법원 할복사건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였다.

종비생 1기로 동국대에 입학하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교육을 받아들인 월탄대종사는 종단 원로들의 기존 관념을 타파하고, 종비생제도가 정착되는 데 앞장섰으며, 지속적으로 도제양성을 지원하여, 한국불교가 ‘지적(知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종비생 1기 월탄대종사의 교육 실천과 한국불교

1) 교육법 제5장 종비생 제24조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또는 국내에 종비생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 종비생은 전문학림을 졸업하여야 한다. 제26조 종비생은 종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그의 연구사항에 관하여 본종에 연차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종비생제(制)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근현대교육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월탄대종사가 종비생 1기로 보여준 선구자적 역할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어 대종사가 추구한 교육이념과 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를 받아들이는 교육관이 오늘날 승가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월탄대종사의 교육관을 종비생 1기와 석림회 및 석림동문회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대종사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실천 활동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시간적 범위는 종비생 제도가 시작된 1964년부터 대종사가 입적한 2022년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교정화운동 시기와 그 이후의 영향까지 포함한다.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첫째, 종비생 제도의 탄생 배경과 월탄대종사의 역할을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한다. 1964년 1월 ‘월정사 사태’가 종비생 제도 탄생의 직접적 계기가 된 과정과 월탄 스님의 결정적 역할을 다룬다. 둘째, 동국대 석림회와 석림동문회를 통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후학 양성 노력 등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형성된 월탄대종사 교육관의 특징과 한국 근현대불교 교육사에서 갖는 의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 이론과 실천의 통합, 수행과 학문의 균형 등 대종사 교육 철학의 핵심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과 역사적 접근법을 병행한다. 주요 자료는 월탄대종사의 구술,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등 교계 언론 보도, 석림회와 석림동문회의 기록물과 『석림』 등을 활용한다.

월탄대종사의 교육관에 대한 직접적인 학술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비생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등 교계 언론에서 종비생 제도의 역사와 의의를 다룬 기획 기사들이 일부 있다. 이들 자료는 종비생 제도의 탄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석림』은 석림회와 석림동문회 역사를 담고 있어 이번 연구의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 II. 종비생 제도와 월탄 대종사

### 1. 월정사 사태와 종비생 제도 탄생

종비생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1964년 1월 19일 발생한 ‘월정사 사태’였다. 이 사건은 한국불교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당시 대처승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오대산 월정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여 명을 동원하여 점거를 시도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인 중대(中臺)가 있는 곳으로,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당시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안거 수행 중이던 월탄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불교정화운동의 경험은 월탄 스님이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신념과 실천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종사는 “5대 보궁의 하나이며, 한국불교의 상징인 적멸보궁을 대처승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생명을 바꿔도 못 넘길 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 동국대에서 열리고 있던 승니특별동계강습회에 가서 참가 중이던 스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승니특별강습회에 참가 중이던 150명의 스님들은 강습을 중단하고 월정사로 향했다. 당시 승니특별강습회는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중견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이다.

기보한바 있는 승니특별동계강습회 수료식이 지난 1월 28일 월정사에서 거행되었다.

동국대학교 군사학 강의실에서 시작한 동 강습회는 예정보다 강의 기간을 늘려 강습회 후반을 월정사에서 마쳤는데 월정사에서 특히 김일타 스님을 강사로 율의(律儀)에 대한 강의와 김탄허 스님으로부터는 동양철학 강의를 각각 청강하였다.

또한 이날의 수료식의 개식사에서 이행원 교무부장은 이번 강습생은 정화이념을 고취하고 3대사업의 추진에 하나의 효모가 되고 따라서 시대에 호응하는 시

대의 선구가 되는 승려로서 다음 강습회에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바랐다. 수료생을 대표한 임석정 스님은 답사에서 이번 강습회가 종단 탄생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제1회 수강생이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 긍지를 더욱 높일 것을 다짐한 다음 총무원의 관계부서 스님들과 강사진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이날 특히 강사진을 대표한 서경수 선생은 “제행(諸行)은 무상하지만 이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불교는 낡은 것으로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낡은 것이 아니며 그 이유는 새것은 부단히 낡은 것 속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佛子는 마땅히 새시대와 사조를 이끌며 특히 스님들은 人生에 의미를 불어 넣어 주는 일을 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수료사에서 수료한 승니는 총 1백14명이었으며 수강시간 수는 총 84시간 강사진은 이기영 박사를 위시하여 사계의 권위 교수와 이청담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고승대덕 스님들 16명이었다. 교과목 및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선학개요 이청담, 선학사상 이석호, 조계종사 전관응, 율장 김일타, 인도불교사 이기영(동대 교수), 인도종교사상사 박성배(동대 강사), 중국불교사상사 이종익(건국대 강사), 한국불교사상사 조명기(동국대 교수), 일반종교사 서경수(동대 강사), 불교미술 황수영(동대 교수), 육림개론(育林概論)(권뇌택(동대교수), 특수작물재배개론 김희곤(동대 교수), 과수재배개론 원세종(동대 교수), 헌법 강병두(동대교수), 정부기구론 김운태(동대 교수), 행정 김운태(동대 교수)<sup>2)</sup>

한편 1월 20일 새벽 월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0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집결해 있었다. 압도적인 비구 측 인원 앞에서 대처승들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찰 하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월정사 사태 직후 김법린 동국대 총장은 종단 지도부와 함께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김 총장은 “비구 측이 자꾸 당하는 이유는 학력이 낮아 사회적으로 무시당

2) <대한불교> 1964년 2월1일 제47호 2면 「僧尼特別講習會盛了」

하기 때문입니다. 대처승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을 다녀왔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비구 스님들은 전통 강원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비구 스님들도 현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호소에 크게 공감했다. 일타 스님의 제안으로 그 자리에서 종비생 입학이 결의되었고, 1964년 1월 25일 제6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는 “진보적인 교육은 승가대학의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두어 교육하고 제복, 기숙사, 학비 등 제 문제는 총무원에서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up>12)</sup> 이로써 1962년에 제정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했던 종비생 제도가 마침내 실현되게 되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박서각 중앙총회 부의장의 사회로 제6회 임시중앙총회가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6회 임시중앙총회에서는 종단 과업인 3대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의안이 채택되어 도제양성에는 우선 종비생을 두어 승가대학이 발족하기까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현대교육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도제양성 = 오늘의 시대에 비추어 시대에 영합하는 인재의 양성이 시급함을 강조한 손경산 의원은 재래식 교육방법과 현대식 교육방법의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인가 혹은 절충식 등 원칙을 세워 도제양성의 기본책을 강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 따라서 승니의 새 교육에 대하여 이행원 의원의 동의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금년부터 20명의 종비생을 양성하는데 인도철학과에 10명, 불교과에 10명으로 하고 1인당 장학금 월 3천원 정도를 지급하여 기숙사, 교통, 제복을 제공할 것을 의결하여 연간 약 70만원의 예산으로 승니의 새 교육에 대한 관문이 열렸다.<sup>3)</sup>

종단은 종비생 선발 규정에 따르면, 인도철학과와 불교학과에 각 10명씩 20명을 동국대에 입학시키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전문학림을 졸업한 비구승으로 제한되었고, 종단에서 학비, 기숙사, 생활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

3) <대한불교> 1964년 2월 1일 제47호 1면 「제6회 임시중앙총회」

시 종단 재정으로는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막상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월정사에서 종비생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스님들 가운데 실제로 원서를 제출한 이는 월탄 스님이 유일했다. 당시 27세였던 월탄 스님은 이미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정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수행자였다. 월탄 스님의 지원 결정은 쉽지 않았다. 원서를 제출한 후 다시 찾아가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동국대 재단 사무국장 법안 스님은 “월탄 스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님만은 꼭 와야 됩니다. 누군가는 첫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설득했다. 이러한 설득과 함께 월탄 스님 스스로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1964년 2월 종비생 선발 시험에서 월탄 스님은 합격했다. 1기 종비생 선발 당시 면접 내용의 일부가 불교신문에 전하는데 다음과 같다.

▲「현대는 승려들의 사회적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젊은 승려는 말한다. 다시 이어서 「승려는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그러니 대학교육은 필요하며 그러므로서만이 「현하 불교도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말한다. ▲또 어떤 승려는 온갖 죄악속에서 마구 덩굴 듯 파묻쳐 사는 인간에게 대하여 일반적으로 종교인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승려는 사회 정화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것은 곧 중생교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이 얘기들은 지난 번의 동대 불교대학의 종비생 선발고사에서 現下불교도의 임무를 논하는 답안에 보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에 응시한 젊은 승려들은 지식에 의한 썩의 정복욕에 불타고 있다.<sup>4)</sup>

한편 종단 지도부는 “월탄 스님이 ‘와일드맨’으로 운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내면이 좀 있구나”라며 안도했다고 한다. 최종 선발된 종비생 1기 15명 중에는 월탄 스님 외에도 현해, 자광, 지하, 도안, 법안 스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대한불교> 1964년 4월 1일 제49호 1면 「輪廻線」

지난 2월 5일 선발고사를 실시한바 있는 종비생의 16명 중 12명이 종립 동국대학의 인도철학과 및 불교학과에 응시하여 12명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지난 2월 16일부터 20일에 걸쳐 실시된 동국대학교의 64년도 신입생 입학고사에서 합격한 종비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법명) ▼인도철학과 이양길(범일) 김정길(길상) 전성진(성길) 임봉준(자광) 김용숙(명진) 탁만식(도안) 방삼수(법용) ▼불교학과 송재달(진형) 유찬수(월탄) 손상길(월문) 김영길(길상) 박삼홍(혜명)<sup>5)</sup>

모두 각 강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님들로, 현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64년 3월, 이들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여 한국불교 현대 교육의 첫 장을 열었다.

## 2. 종비생의 대학 생활과 도전

종비생들의 대학 생활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초기에는 송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울 화계사 큰방에서 1년 6개월간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 생활을 했다. 1965년 9월 1일에야 전용 기숙사인 백상원(白象院)이 건립되어 이전하게 되었다. 백상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5동 488번지에 위치했으며, 이후 40년 동안 종비생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학업 면에서도 전통 강원과 현대 대학의 교육 방식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컸다. 전통 강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 내용에서 강원은 대승경전 중심의 교학 체계였으나, 대학은 원시불교부터 현대불교까지 통시적 접근을 했다. 둘째, 교육 방법에서 강원은 암송과 토론 중심의 도제식 교육이었으나, 대학은 강의와 연구 중심의 학술적 접근이었다. 셋째, 평가 방식에서 강원은 스승의 인가 중심이었으나, 대학은 시험과 학점제라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불교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다.

5) <대한불교> 1964년 3월 1일 48호 1면, 「종비생 동대 불교대학에 12명 합격」

타 종교의 경우, 개신교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선교사들을 통해 서구식 신학 교육을 도입했고, 천주교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이에 비해 불교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현대 교육 수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종비생 제도의 역사적 의의가 크다.

월탄 스님도 초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강의를 듣고 있으면 잠만 와. 그리고 화두만 생각나”라는 고백은 수행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생(학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겪은 갈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점차 학업에 적응하면서 2학년부터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장학금을 받았다. 특히 원시불교 경전 공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중요했다. “우리 한국불교가 원시불교와 원시경전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후일 승가교육 개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제1기 종비생이 탄생된 해인 1964년 10월 4일자 대한불교는 경산 스님의 ‘종비생이 걸어갈 길은?’이라는 기고를 싣고 있다. 경산 스님은 거종적으로 종단의 운명을 종비생에게 걸고 있다며 종비생의 의무와 사명이 중차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땅히 종비생은 자신이 서 있는 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있는 분발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첫째 종비생의 의무라고 하면 여하히 수행해서 이 나라의 佛祖正脈을 계승하고 신라 고려와 같은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宗風을 만회하고 作興하며 종단 기강을 확립할 과제에 遡成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사적인 제약으로서 위축된바 교세와 기풍을 되찾아 민족불교에 중흥의 대업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시대감각에 隨應된 대장경 번역사업 아울러서 시대사상과 대결하고 또는 包越할 포교사업도 오로지 종비생들에게만 걸 수 있는 일련의 기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sup>6)</sup>

경산 스님의 이 기고는 종비생 제도 출범 당시 불교계의 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다. 총무원장을 역임한 경산 스님은 “거종적으로 종운을 종비생에게 걸고 있다”고 단언하며, 종비생 제도가 한국불교 재건의 핵심임을 천명했다. 경산 스님이 제시한 종비생의 첫 번째 의무는 “불조정맥을 계승하고 신라 고려와 같

6) 경산 스님, <대한불교> 1964년 10월 4일자 제60호 2면 「종비생이 걸어갈 길은?」

은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신라 고려’라는 준거점(準據點)은 불교가 국가와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대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종풍을 만회하고 작흥하며 종단 기강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의무는 “사회사적인 제약으로 위축된 교세와 기풍을 되찾아 민족불교 중흥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회사적 제약’은 조선시대 억불정책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변화까지를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시대감각에 수응된 대장경 번역사업”과 “시대사상과 대결하고 포월할 포교사업”을 제시했다. ‘시대감각’과 ‘시대사상’의 반복적 언급은 전통의 현대적 변용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경산 스님은 이러한 모든 과제가 “오로지 종비생들에게만 걸 수 있는 기대”라고 결론지었다. 기성 승려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경산 스님 기고문은 1960년대 한국불교의 개혁 열망과 비전을 담은 역사적 문서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 내부 개혁과 사회적 역할의 동시 추구라는 과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종비생 제도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재정난, 보수적 반대,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폐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월탄 스님은 이러한 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지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6년의 일이다. 당시 총무원장 영암 스님은 재정난을 이유로 2년간 종비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종비생 제도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위기였다. 이에 월탄 스님은 졸업을 앞두고 총무원장 영암 스님을 찾아가 재고를 건의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종비생을 뽑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불교가 살아 있는 불교가 못 되고 산속에 남아 있는 골동품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 스님 뽑아 주시오”라는 월탄 스님의 호소에는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 결과 종비생 선발이 재개되었고,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68년 2월 28일 종비생 1기 중 8명이 졸업했다. 월탄 스님은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서산대사 사상을 연구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전통불교

사상을 현대적 학문 방법론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서산대사의 사상 연구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한편 종단에서는 졸업 후 종단은 종비생들에게 전국순회 포교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종비생 교육의 성과를 검증하고, 현대적 포교 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였다. 월탄 스님이 속한 영남반은 17일간 부산, 대구 등지를 순회하며 ‘현대인의 삶과 불교’를 주제로 포교했다. 종비생들의 포교는 기존 방식과 확연히 달랐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법으로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현대적 언어를 사용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했다. 또한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실현했다. 전국순회 포교의 성공은 종비생 제도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청담 스님은 “종비생들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고, 이는 종비생 제도가 지속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종비생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1971년 1월 3일 <대한불교> 385호 2면에는 「종비생 교육」이란 제목으로 당시 백상원 사감 월탄 스님의 기고가 실렸다.

당초 종비생 육성계획은 우선 매학년마다 20명의 종비생을 선발모집하여 일체의 학비 및 생활비를 학교, 재단 및 총무원 등 세 기관에서 공동으로 부담함과 동시에, 오래지 않아 僧伽大學을 설립하여 기존 승려의 단기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과 초학 승려들의 내외전을 망라 체계적 제도하의 종합교육을 이수토록하여 질적 수준이 높은 명실이 三界大師요 人天之眼目を 갖춘 성직자로서의 교육을 도모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한 시행착오이었음인지 현재 7년을 공한 오늘에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숱한 수난을 겪으면서 다행인지 아직도 종비생이란 명맥만은 유지하며 많은 문제를 내포한채 있는 실정이다. … 우선적을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불타의 종지와 종통을 신수봉행하며 시대를 앞장서며 불교 내지 사회의 지도자적 인격을 연마하여 기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여건을 갖춘 기숙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②비구니 기숙사와

사감을 속히 지정하여 비구니들의 지도자 양성에는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③일단 종비생이라면 똑같은 대우로서 한 기숙사 안에 거주토록 하여 학문탐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여 불안과 초조를 없애고 마음 놓고 열심히 수학할 수 있게 하고 한편 사감의 통제하에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행이 돈독하며 재래식 불교와 현대식 불교를 조화하여 불교의 시대적 방향 감각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사분(기)을 발령토록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후학을 기르는데 노력토록 한다. ⑤종비생들의 승려이면 학생이라는 입장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의복을 착용하도록 새로운 스타일의 승복이 필요하다 ⑥종단은 시대적 사명감에 적응하고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불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어도 매년 20명 이상의 신행 품행이 단정하며 학구열이 충만한 승려들을 엄선하여 예비고사의 승·불·불교에 구애없이 입학시켜 취학토록하여 지도자적 인격 교육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몇가지 문젠 종비생 교육에 있어서 당위적인 것으로 하루 속히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sup>8)</sup>

월탄 스님의 이 기고문은 1960년대 중반 야심차게 시작된 종비생 제도가 7년 만에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월탄 스님은 이 글에서 종비생 제도의 원대한 초기 구상과 초라한 현실을 대비시키며, 불교 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한다.

종비생 제도는 애초에 매년 20명의 우수한 승려를 선발하여 학교, 재단, 총무원이 공동으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나아가 승가대학을 설립하여 기존 승려들에게는 단기 재교육을, 초학 승려들에게는 내전과 외전을 아우르는 종합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삼계대사’이자 ‘인천지안목’을 갖춘 성직자 양성이라는 목표는 한국불교가 전통적 강원 교육을 넘어 근대적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7) 사문의 오자로 보임.

8) 1971년 1월3일 대한불교 385호 2면 ‘종비생 교육’ 유월탄(백상원 사감)

월탄 스님이 목격한 7년 후의 현실은 참담했다. 종비생 제도는 ‘명맥만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고, 승가대학 설립은 요원했으며, ‘술한 수난’을 겪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실패는 단순한 운영상의 미숙함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월탄 스님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우선 ‘최소한도의 여건을 갖춘 기숙사’조차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에 약속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비생들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생활했다는 지적은 재정 운영의 실패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구니 교육의 소외 문제다. 비구니 기숙사와 사감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종비생 교육이 사실상 비구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월탄 스님은 또한 ‘재래식 불교와 현대식 불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는 당시 한국불교가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 즉 전통적 수행과 근대적 교육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승려이면서 학생’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고려한 새로운 승복의 필요성 제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월탄 스님이 제시한 개선 방안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선발 제도의 개혁이다. 예비고사의 합격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신행과 품행, 학구열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험 위주의 경직된 선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또한 ‘상구보리하화중생’이라는 불교 본연의 목적과 ‘시대적 사명감’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과제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종비생 교육에 있어서 당위적인 것으로 하루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절박함은 당시 불교계가 교육 개혁의 성패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월탄 스님의 기고문은 한국불교 교육 개혁의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종비생 제도의 실패는 원대한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월탄 스님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기도 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전통과 현대의 균형 있는 교육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월탄 스님 기고문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의식을 담은 살아있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종비생 1기로서 월탄 스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불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했다. 전통적 강원 교육에서 현대적 대학 교육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불교 이해와 실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둘째, 정화운동의 이념을 교육 현대화로 구현했다. 대법원 할복 사건으로 보여준 정화 의지를 교육 개혁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한국 불교가 생명력 있는 종교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물리적 정화를 넘어 지적, 정신적 정화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 모델을 제시했다. 전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를 수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은 한국불교 현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화나 전통 고수라는 양극단을 피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한 것이었다. 넷째, 후학들에게 구체적인 롤모델이 되었다. 종비생 1기의 성공은 이후 많은 스님이 현대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불교의 지적 수준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종비생 제도는 한국불교가 전근대적 종교에서 현대적 종교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였으며, 월탄 스님은 선구자로서 한국불교 교육사에 족적을 남겼다. 스님이 보여준 도전정신과 성공적인 학업 성취, 그리고 졸업 후의 활발한 실천은 종비생 제도가 일회성 실험이 아닌 지속가능한 승가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지적 경쟁력을 갖추고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월탄 대종사가 걸어간 길은 한국불교 현대화의 시금석이었다.

### Ⅲ. 석림회 · 석림동문회와 월탄대종사

## 1. 석림회 활동과 월탄대종사 기여

종비생 제도 시행 이전에도 동국대학교에는 스님 신분의 학생들이 있었다. 석림동문회 주소록(2005년)에 따르면 무진장 스님을 비롯한 11명이 종비생 이전부터 재학하고 있었다. 이 스님들은 개인적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종단이나 교구본사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개인의 노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스님들은 후배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당시 동국대학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송산, 경산, 법안 스님 등이 석림회 창립을 적극 지원했다. 송산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와 동국대 상임이사, 서울 화계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종비생 제도 도입에 앞장섰고, 화계사 큰방을 기숙사로 제공했다. 경산 스님은 재정적 지원을, 법안 스님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국대 석림회는 1965년에 공식 창립되었으나 연원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1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회 중앙총회에서 종단의 3대 과제인 역경·포교·도제양성의 일환으로 종비생 교육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동국대 석림회는 1965년 10월 16일 동국대 대학선원(현 정각원)에서 공식 창립되었다. 이에 앞서 9월 21일 대학선원에서 발기위원회가 열렸는데, 불교대 재학 중인 승려 4명과 종비생 대표 3명이 참석하여 종비생 중심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고 명칭을 ‘석림회(釋林會)’로 정했다.

창립총회에는 재학 승려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홍정식, 김동화 박사 등 교수들도 함께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불교학과 4학년 김공철 스님이 선출되었다.<sup>26)</sup> 석림(釋林)이란 명칭은 ‘서로 탁마(琢磨)하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후예들이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2기 종비생 호진 스님의 제의로 정해졌다.<sup>9)</sup> 개인의 수행과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석림회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월탄 스님은 석림회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이였다. 4학년이어서 초대 임원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석림회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

9) 월탄 스님은 법경 스님이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할을 담당 했다. 특히 종비생 1기의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며 멘토 역할을 수행 했다.

석림회 회칙 전문은 “석림인은 수행자로서 정진하며 동시에 대학인으로서 학문적 소양의 실천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의 실행에 의거한 자기완성과 불국정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데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월탄 스님을 비롯한 초기 멤버들의 고민과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초기 석림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기 법회와 세미나 개최였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 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고,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했다. 이는 수행과 학문의 균형을 추구하는 석림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활동이었다.

둘째, 회지 『석림(釋林)』 간행이었다. 1968년 7월 14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매년 1~2회씩 발간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구 논문, 수필, 시 등을 게재하여 문필 활동의 장이 되었다. 창간호에는 종비생 제도가 성립한 상황과 의의, 종비생 현황 등이 상세히 다루어졌다.

셋째, 사회 참여 활동이었다. 1966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화계사에서 ‘한국 불교근대화를 위한 제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종단 최초의 젊은 승려 심포지엄으로 평가받았다. 17일에는 경제, 18일에는 교육, 19일에는 의제(衣制)를 다루었다. 석림회가 수행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전국 강원도의 교육 실태 조사였다. 1968년 7월 20일 ‘현행 교육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전국에 배부하여 조사결과를 『석림』 제2집에 공표했고, 11월에는 ‘승가교육에 관한 문제’ 설문지를 전국 강원도에 배포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각 강원도의 학인 수와 강사 현황 △교육 과정과 사용 교재 △교육 시설과 환경 △학인들의 만족도와 요구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학인들의 불만도 높았다. 특히 현대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1968년 4월 21일, 석림회는 전국순회 포교를 다녀온 1회 졸업생 스님 다섯 명



이렇게 하여 조용히, 그러나 의지에 찬 一步를 내디딘 석림은 在東大 승려들의 명실상부한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새롭고 유능한 일재들을 계속 흡수하고, 종단적으로는 내일의 불교역사를 창조할 역군으로 성장해 갔다.

특히 초창기에 석림인들은 학생들이긴 해도 이미 법랍이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단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낭만 따위는 아예 접어두고 오직 스스로의 실력향상과 내일에의 불교중흥만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림인들이 재래의 山中禪院이나 講院을 박차고 都會로 나온 것도 오로지 낙후된 불교의 상황을 하루 속히 개선하기 위해서이며 그 낙후의 원인이 바로 현대교육의 부재에 오는 것임을 깨닫고,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에 맞도록 發音시켜서 불교를 개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었다. 그랬던 만큼 비록 晚學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그 만큼 진지하고 열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역사는 대중을 이끄는 소수의 선각자에 의해서 改變된다고 한다면, 석림인의 이러한 자각과 노력은 바로 한국불교의 희망, 그것이 아닐 수 없다. … 이 땅에 法音を 전파한지 1600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先師들이 피눈물 나는 역경으로 法脈을 이어왔던가, 그야말로 不惜身命하고 扶宗樹教하는 殉教精神이 아니었다면 오늘 날 이 땅에 법음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숭고한 先師들의 護法精神을 욕되게 해서는 안되며 역사 앞에 부끄러운 석림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석림인은 佛法이 最上の 가르침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이 탐욕과 이기주의에 물든 고통의 사바세계를 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까닭에 석림인은 절망할 수 없다. 나의 생명조차 다 받쳐서라도 法燈을 지켜 가야만 하는 것이다.<sup>10)</sup>

월탄 스님이 석림회 명예회장으로 쓴 「석림 10년의 회고와 전망」은 1976년 가을에 작성된 것으로, 1960~70년대 젊은 스님들의 자의식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초창기 석림인들의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법랍이 10년이

10) 유월탄(석림회 명예회장), 「권두에세이-석림 10년의 회고와 전망」, 『석림』 10호 8~14, 1976.10

넘은” 만학도들로서 “종단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학교 생활의 낭만 따위는 접어두고” 실력 향상과 불교 중흥에만 매진했다. “재래의 산중선원이나 강원을 박차고 도회로 나온” 이유는 “낙후된 불교의 원인이 현대교육의 부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에 맞도록 발음시켜서 불교를 개혁”하고자 했다.

월탄 스님은 “역사는 대중을 이끄는 소수의 선각자에 의해서 개변된다”며 석림인들을 “한국불교의 희망”으로 규정한다. 1600년 한국불교사를 관통하는 “불석신명하고 부종수교하는 순교정신”을 계승하여 “탐욕과 이기주의에 물든 사바세계를 정화”해야 한다는 사명을 강조한다.

이 회고문은 전통 강원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대 교육을 통해 불교를 개혁하려 했던 젊은 스님들의 열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한국불교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던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 2. 석림동문회 결성과 역할

종비생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졸업생들이 늘기 시작했다. 각자의 소임지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느꼈다. 종비생 10기까지 졸업하게 된 1977년, 석림회 동문들이 주도하여 석림동문회 결성을 추진했다.

1977년 5월 5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석림동문회(釋林同文會) 결성 총회가 열렸다. 졸업생 50명과 재학생 70명 등 120명이 참석했다. 석림동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도모 △후배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 △종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불교 현대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현재 1100여 명의 졸업생과 150여 명의 재학생이 있다.

1980년 3월 13일 제1차 총회에서 월탄 스님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종비생 1기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당시 월탄 스님은 43세로, 종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석림동문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1986년에는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개원하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발전했음을 의미했다.

석림동문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석림동문회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석림동문회는 조계종 三大 중흥대작불사(포교, 역경, 도제양성)의 하나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승려 중 종단 장학생으로 종립대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수학시켜 졸업한 스님들이 모인 동문단체이다...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선후배 동문들의 다양한 역할 및 동문들 간 화합과 단결로 조계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sup>11)</sup>

석림동문회는 1992년 3월 13일 ‘한국 불교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불교발전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인식전환을 위한 3대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석림인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불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93년 9월 5-6일 강원도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석림동문회 임시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석림인의 위상과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현대 포교에 있어서 석림인의 역할 △석림인의 종단 역할 △석림동문의 사회역할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석림인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석림동문회는 종단 정책에 대한 건의와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종단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석림동문회와 석림회 임원스님 합동 간담회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석림회 임원스님 및 종회의원 합동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석림동문회는 1100여 명의 졸업생과 150여 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통 강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현대 교육을 받은 승려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불교 현대화의 실질적 동력이 되었다.

---

11) <http://www.sukrim.or.kr/>

월탄 스님과 석림동문회가 추구한 승가교육 현대화는 전통의 부정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 이는 경산 스님이 1964년 종비생들에게 요구했던 “시대 감각에 수응된”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석림회 창립 당시부터 “재래의 산중선원이나 강원을 박차고 도회로 나온” 이유가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에 맞도록 발음 시켜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석림동문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승가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했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종단에 정책을 건의하며, 후배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었던 승가교육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림동문회의 형성과 발전은 한국불교 승가교육 현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77년 창립 이후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불교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초대 회장 월탄 스님의 리더십은 이러한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림동문회가 추구한 승가교육 현대화가 전통의 부정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는 점이다. 석림동문회의 발전은 종비생 제도가 개인의 교육을 넘어 불교계 전체의 인적 네트워크와 개혁 동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한다.

한편 월탄대종사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상좌와 손상좌, 증손상좌 등 60여 명에 이르는 미룡당 월탄대종사 문도회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인재 풀을 형성하고 있다. 가람수호, 포교, 교육, 참선, 군포교, 종무행정,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월탄 스님의 제자 교육 철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첫째, 엄격함과 자비의 조화였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정법에서 어긋나면 뇌성(雷聲)같은 사자후(獅子吼)로 엄한 아버지처럼 경책하셨지만, 평소에는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 같은 분”<sup>12)</sup>이라고 회고했다. 전통적인 사제관계의 엄격함과 현대적인 인격적 배려가 조화를 이룬 교육 방식이었다. 둘째, 수행과 교육의

12) 「월탄대종사 문도대표 성운스님」,

<불교신문>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92>

균형이었다. 제자들에게 철저한 수행을 요구하면서도 현대적 지식의 습득을 권장했다. 성운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은사 스님은 평소 ‘생활 속의 신앙체계’를 강조하셨다”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선객(禪客)이지만 염불신앙과 정토신앙도 중시하셨다”고 한다.<sup>45)</sup> 다양한 수행법을 인정하고 각자의 근기에 맞는 지도를 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천적 교육이었다. 단순히 이론적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도록 이끌었으며, 이는 불교가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생활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의 표현이었다.

주목할 점은 교육 철학이다. 엄격함과 자비의 조화, 수행과 교육의 균형, 실천적 가르침을 통해 60여 명의 제자를 양성했으며, 개인적 노력을 넘어 종단 차원의 교육 제도화에도 앞장섰다. 중앙종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교육 관련 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에 힘썼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종비생 1기 월탄대종사의 교육관을 종비생 제도와 석림회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월탄대종사는 한국불교 교육사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선구자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월탄대종사는 종비생 1기로서 한국불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했다. 1964년 월정사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종비생 제도에 첫 번째로 지원하여 합격함으로써 종단 내부의 편견을 실천으로 극복했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졸업 후 활동은 종비생 제도가 일회성 실험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재정난으로 종비생 선발이 중단될 위기에서 “종비생을 뽑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불교가 살아있는 불교가 못 되고 산속에 남아 있는 골동품으로 남을 겁니다”라고 호소하여 제도를 지킨 것은 스님의 선견지명을 보여준다.

둘째, 월탄대종사의 교육관은 전통 계승과 혁신의 균형, 이론과 실천의 통합, 수행과 학문의 조화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해인사 강원에서의 전통적 수학과 동국대학교에서의 현대적 교육을 모두 경험한 스님은 양자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생활 속의 신앙체계’를 강조하며 불교 교육이 관념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1960년 대법원 할복 사건부터 원적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실천 정신은 교육이 삶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증명했다.

셋째, 월탄대종사는 개인적 노력을 넘어 교육의 제도화에 기여했다. 석림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1980년 석림동문회 초대 회장으로서 조직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중앙종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백상원 기숙사 사감,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넷째, 월탄대종사는 60여 명의 제자를 직접 양성했다. 엄격함과 자비의 조화, 다양한 수행법의 인정, 실천적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을 지도했으며, 문도들은 오늘날 한국불교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월탄대종사의 교육관이 현대 한국불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월탄대종사가 보여준 균형 잡힌 접근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모델이다.

둘째, 교육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월탄대종사가 대법원 할복 사건부터 평생의 불사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실천적 삶은, 진정한 교육이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승가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셋째,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조직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월탄대종사가 평생 추구한 교육의 제도화 노력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탄대종사가 제시한 교육 모델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전통 강원 교육과 현대 대학 교육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며, 수행과 학문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종비생 제도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초기의 이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월탄대종사의 교육 철학과 실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종비생 제도와 석림회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했지만, 대종사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종비생 제도 6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초기의 이상과 현재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월탄대종사가 종비생 1기로서 걸어간 선구자의 길은 후학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며, 교육적 유산은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월탄대종사의 교육관과 현대적 의의를 조명함으로써, 한국불교 교육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하고자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월탄대종사의 교육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성운, 「송산 행원의 업적에 대한 포교적 관점의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 한국 불교사연구소, 2014

김광식,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정신 계승 - 교육·포교·역경을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제37호, 한국정토학회, 2022

<불교신문>

<석림>

동국대 석림회 홈페이지([www.seokrim.org](http://www.seokrim.org))



[제5발표의 논평]

## 「월탄 대종사의 교육관: 종비생과 석림회 활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1. 시작하는 말

금번 발표문 「한국불교 현대교육사에서 월탄 대종사의 위상과 역할」은 해방 이후 한국불교가 제도적 재건과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던 시기에, 승가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월탄 대종사의 교육적 기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단순한 인물 연구를 넘어, 종비생 제도라는 제도적 실험이 어떻게 실제 한국불교 승가교육 체계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핵심에 있었던 월탄 대종사의 사상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논평에서는 해당 발표문이 갖는 승가교육에 대한 학술적 의의와 그 속에 내포된 현대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2. 논문 개요 및 분석

발표자는 ‘월탄 대종사의 종비생 제도에 선도적 기여’와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온고지신(溫故知新)적 교육관’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표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종비생 제도에 대한 월탄 대종사의 선도적 기여

발표자에 의하면, 월탄 대종사는 해방 이후 한국불교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종비생 제도의 실질적 개척자였다. 1964년 월정사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종비생 제도 도입 논의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지원하고 입학시험을 치른 스님으로서 제도 시행의 상징이자 실천 주체로 자리했다. 이후 대종사는 종비생 1기 수학, 법주사 교무국장 겸 주지로서의 교육 지원, 그리고 석림회 창립 멤버 및 석림동문회 조직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했다. 무엇보다 종비생 제도가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비생 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그는 종비생 제도의 중단 위기 시 직접 총무원장 영암 스님에게 제도 유지를 간청하는 등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수호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스님들 1,000여 명 이상이 학·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

#### 둘째,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온고지신’적 교육 실천

발표자는 월탄 대종사의 교육관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승가교육에서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발표자는 월탄 대종사의 승가교육에 있어서 온고(溫故)에 해당하는 ‘전통의 뿌리’를 그의 해인사·상원사에서의 강고한 수행 이력과 초기불교·사성제·팔정도에 대한 이해에서 찾고 있다. 온고와 더불어 지신(知新)은 현대적 수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① 동국대 재학 시절 수학을 통한 서산대사 사상 연구 ② 학문 방법론의 도입 ③ 커리큘럼 개편 시도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발표자에 의하면, 월탄 대종사는 온고지신의 교육관을 토대로 ‘균형적 사고’와 ‘제자 교육’을 하였다. ① 경전교육과 선 수행 ② 대승불교와 원시불교 ③ 교학과 실천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은 균형적 사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자 교육에 있어서는 전통적 도제식과 현대적 교육 방식을 병행하며 제자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책임·사명·사회성과 개방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발표자는 이와 같이 월탄 대종사를 종비생 제도의 실행자이자 전통과 현대를 회통한 온고지신의 교육 실천자로서 한국불교 현대교육의 대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 3. 현재 승가교육에 대한 제언

월탄 대종사의 승가교육에 대한 온고지신의 정신과 실천은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의 승가교육은 ‘현대화’라는 패러다임 하에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이 전면 수정되었는데, ‘승가대학의 한글 경전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는 승가대학의 학인들이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한문 중심의 교육으로는 문자 해독 자체에 너무 시간과 노력이 소용되어 경전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행되었다.

이에 당시 교육원(현 총무원 교육부)은 승가대학에서는 한문경전 교육을 하지 않는 대신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초급자를 위한 과정으로 ‘불교한문 아카데미’와 역경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정규 대학원 과정인 ‘한문불전번역학과’를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불교한문 아카데미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한문불전번역학과는 ‘한국불교인문학과’로 변경되었다. 불교한문 아카데미는 운영 재원의 문제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한문불전번역학과는 입학생의 감소로 인해 한국불교인문학과 내 전공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글경전은 한문경전을 번역한 것이기에 한문 역경 인력의 양성은 승가교육의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는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는 월탄 대종사의 온고지신의 교육 정신을 되살려야 함을 시사한다. 논자는 이제 한문은 물론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등 불교고전어에 대한 승가교육을 조계종은 물론 범종단 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언한다. 국고지원에 의한 역경 사업은 종교편향의 역풍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경전의 번역은 현재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한글경전 번역은 불교고전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불교고전어 교육은 온고(溫故)이고 승가교육 현대화는 지신(知新)인 것이다.

### 4. 맺는 말

월탄 대종사는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끈 선구자로서,

종비생 제도의 상징적 인물이자 제도 정착과 확산의 실천 주체였다. 그는 전통의 뿌리 위에 현대적 교육 방법을 접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온고지신의 교육철학을 몸소 실천하였다.

발표문은 단지 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승가교육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의 구축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해 본질적인 성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늘날 한국불교계 전체가 안고 있는 승가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월탄대종사의 실천과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의 승가교육에 대한 정신과 실천이 앞으로의 불교교육 재건을 위한 살아있는 전범(典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본 자료집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엄히 금합니다.





마음과 몸은 본래 공이니  
공이라 한 그 공 또한 공이다  
이 때 어떠한 물건인고?  
(일월상을 그리며)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로다.

<월탄대종사 오도송>

풀어라 풀어라,  
너와 나를 풀어라 본래 자리 향기나니,  
미륵광명 귀를 막네

<월탄대종사 임종계>